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중생이 자비심 일으키면
그곳이 복 밭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2월 21일) · 주간

제1039호 2015년 4월 9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300여 세계 고승 광화문서 '평화 기원 법석' 펼친다

세계평화기원대회 ·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5월 15~18일 개최

2500여 국내외 스님
지구촌 평화위해 기도
종교인평화선언 발표도
달라이라마 초청 무산

전세계 고승들이 모여 한반도와 지구촌 평화를 기원하는 대규모 법석이 마련된다. 봉축행사기간동안 열리는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의 주요 일정이 발표됐다.

'세계평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 (위원장 지현)는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조계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이하 기원대회)' 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와 유럽,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개국 종교지도자 300여 명을 비롯해 국내 종교계 및 주요 정관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미 대회 참석이 확정된 고승 명단을 보면 캄보디아 승왕 텝봉 스님을 비롯해 프랑스 담마라타 유네스코 불교협회 책임자, 인도 롭장 아쇼카미션 회장, 수담모 호주불교연합회장, 방글라데시 우파냐조타 골드사원 원장, 프라냐난다 그린하트 승가대 총장, 네팔 노르부 타망사원 회장, 스리랑카 니양고다 시람종 부종정, 고다가마 승가대 총장, 베트남 은고탄 국립불교집행 부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행사는 5월 16일 광화문광장에서의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 행진(16일 오후 4시, 동대문-광화문),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무차대재(17일 오전 9시, 조계사), 세계종교지도자 현충원 참배(16일 오전 9시),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 회의(16일 오후 1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전통문화순례(17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전통사찰) 등이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종교인평화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기원대회주요일정

일 정	사 업 명	시 간	장 소
15일 (금)	초청인사입국, 무대설치		
	환영만찬	18:00-19:00	호텔
16일 (토)	현충원 참배	09:00-11:00	현충원
	세계평화 종교지도자 원탁회의	13:00-15:30	호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행진	15:30-18:00	동국대학교-광화문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18:00-21:00	광화문
17일 (일)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무차대재	09:00-13:00	조계사
	연등회 문화행사 순례	13:00-14:00	안국동
	전통문화체험(전통사찰방문)	14:00-18:00	봉은사
	환송만찬	18:00-20:00	호텔

간화선 무차대회에서는 총 2500여 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입정에 드는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이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평화법문과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이번 기원대회 관계로 연등회는 예년과 달리 1시간 가량 앞당겨진다.

봉행위원회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인사들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광복 관련 유공자 초청도 추진해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원대회에서 초청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달라이라마 방한은 무산됐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방한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참석이 미지수다.

기원대회 봉행위원장 지현 스님은 기자브리핑에서 "남북화해와 세계평화를 위해 불자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불교가 불자와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 고

감사편지 공모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힐링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 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장' 을 생활화 하기 위한 이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lin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다수로 수상자에게는 주최 · 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 · 동산반야회 · 공림공양회 · 여여원



부처님 출가 · 열반 정신 오색풍선에

출가 · 열반재일을 기념하는 오색풍선이 정동진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삼광사(주지 무원)는 출가 · 열반재일을 맞아 문화 소외 계층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출가체험힐링열차' 프로그램을 3월 26일~27일 진행했다. 350여 사부대중은 이날 삭발 대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풍선에 붙인 후 하늘 위로 날리는 의식을 통해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겼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제공=삼광사

위령재부터 템플스테이까지

세월호 참사 1주기, 불교 추모행사 잇달아

조계종 4월 14일 추모법회
16일 전국 사찰 타종식

불교사회硏 등 3대 종교 단체
15일 '사회적 책무' 세미나
복지재단도 구호 체계 포럼

미황사 등 위로 템플스테이
팽목항 현지서 추모재도

지난해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불교계가 추모행사를 잇달아 개최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4월 14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추모의 의미인 타종 5타로 시작하는 이날 법회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분향 및 추도사, 전병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추모사,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의 호소문 발표, 발원문 낭독, 염불 천도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는 4월 16일 오전 10시 사시예불에 맞춰 추모의 의미인 타종 5타와 추모발원을 진행한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전문 연구단체들이 한데 모여 세월호 참사를 통해 종교의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과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4월 15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교 측에서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세월호의 윤리학과 불교의 역할'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연구소장 법안 스님이 토론자로 나선다.

가톨릭에서는 경동현 우리신학연구소장이 '가톨릭 교회의 사회 참여성찰' 을 발표하며 의정부교구 현우석 신부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개신교에서는 김희헌 성공회대 연구교수가 '메시아의 두 계보, 한국 개신교의 양면성의 뿌리' 를 주제로 발제를, 토론자는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의 정경일 원장이 나선다.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함께 울었던 국민들의 아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템플스테이도 마련된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안산시와 인접한 용인 법륜사에서 '희망으로 피어나라' 콘서트를 연다. 4월 11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콘서트는 1박 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며, 참가자를 포함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안양시 청소년 교향악단은 가수의 꿈을 키우던 단원고 학생이 생전에 부른 '거위의 꿈' 을 연주하며, 바이올리니스트 김형선, 국악과 성악을 넘나드는 '미음' 의 공연과 난타무대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고 이후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숙소를 지원해 온 진도 쌍계사도 나섰다. 여전히 슬픔이 머물러 있는 팽목항과는 15분 거리, 진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쌍계사의 '우리 마음의 힐링' 템플스테이는 4월 10일~12일, 17일~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마련된다. 마음치유를 위한 명상과 108배를 통해 휴식과 위안을 전할 예정이다.

실종자의 귀환을 염원하며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해남 미황사와 주지 금강 스님도 위로와 추모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세월호 1주기 추모 순례 템플스테이' 는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하다. 108배, 명상과 팽목항 순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기간은 4월 11일부터 19일까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도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앞서 재난관리체계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제2차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성기환 서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한편, 진도 팽목항에서는 진도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팽목항 법당에서 세월호 인양, 희생자 극락왕생, 실종자 수습 등을 발원하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4월 16일에는 낮 12시 선원사 운천스님의 자장면 공양 후 오후 1시 추모재가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품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현실 통탄 재가가 바꿔 나가겠다”

바른불교재가모임 창립법회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우희종)은 3월 31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서 우희종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향후 모임이 나아갈 지향점을 제시했다.

우 대표는 “한국불교계의 모습은 대표적인 조계종, 태고종 할 것 없이 재가자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럽히지 않도록 재가신도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운영위는 조윤예 여성가족부 서기관과 김종규 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과 함께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을 공동대표로 추인했으며, 운영위원 6명과 사무처장을 각각 인선했다. 또한 재가모임의 정관도 승인했다.

향후 사업 계획도 발표됐다. 재가모임은 청정승가 회복을 위한 종단 내부 동력 활성화를 위해 △보시 거부 운동 및 바른 보시 운동 △재가불자 참여를 위한 릴레이 기고 △바람직한 사찰 및 스님 홍보 △재가불자가 참여하는 사찰의 순기능 홍보 사업 등을 전개한다.

또한 봉암사나 조계사에서 전국 재가불자대회를 연례화 하는 것을 비롯해 △올바른 재가불자상 정립을 위한 재가모임 학당 개설 △재가모임 지역 지회 결성 △회원 간 교류 및 수행 공유 △타 재가단체나 승가, 이웃 종교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불자대상’ 공고

4월 24일까지 추천인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불기2559년 불자대상 시행을 공모하고 4월 24일까지 후보를 추천 받는다. 불자대상은 불법홍포 및 한국불교 위상 제고, 불자의 자긍심 고취, 종단 발전과 홍보,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로가 큰 불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과 고인(故人), 단체를 포함한다.

후보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 및 본종 산하사찰 주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각 말사 주지는 교구본사 주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급 포교단체와 신도단체는 포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천서와 공적사항 입증 자료 등을 꾸며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불자대상 시상식은 부처님오신 날인 오는 5월 25일 서울 조계사 봉축법요식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상패 및 부상이 주어진다. 이나은 기자

“선학원과 대화로 갈등 해소”

정상화추진위 2일 첫 회의

15명 내외 상임위원회 구성
내부 의견 경청해 대화 추진
법등 스님 “신뢰 회복 우선”
“강력 대응” 목소리도 다수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는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가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선학원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강성보다는 온건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법등 스님은 추진위원과의 의견 나누기 시간에서 대화를 전제한 갈등 해소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스님은 “현재 조계종과 선학원의 문제는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합의가 수차례 파기되다보니 서로 불신만 쌓였다. 많은 종도들의 의견을 들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출범에 맞춰 중진스님과 추진위원들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뒤 선학원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추진위원 스님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종회의원 종범 스님은 “선학원 이사진이 종헌 종법을 부정하고 제적원을 제출한 것은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선학원이 자체 수계식을 열 예정이지만, 종단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인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함결 스님도 제201차 임시종회에서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 소속 사찰관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에 대한 권리 제한과 징계가 7월31일까지로 유예된 사실을 지적하며 “더 이상 유예는 힘들다. 7월31일 이전에 결과를 내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추진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진위원회 내부 의견과 활동 목적들부터 가다듬고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선원수좌회 강설 스님은 수좌회가 중재에 나설 의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강설 스님은 “지난 수좌회 회의 때 당시 총무부장의 요청으로 대책반을 꾸렸으나 상황이 급변해 활동을 중단했다”면서 “4월 7일 회의에서 수좌회가 선학원 이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안건을 논의한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조계종 총무부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종무기관에서 2명, 종회의원 3명, 교구본사주지 3명, 중진스님 3명, 선원에서 3명과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등 15명 안팎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으로 △선학원 근현대 역사 정리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선학원 관련자료 수집 △중앙종회 등과 공동 대응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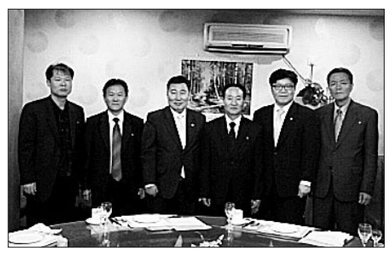
또한 선학원 임원진과 대화 및 협의 진행을 비롯해 선학원 관련 사찰 대중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선학원 분원장 · 문도 대상 좌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위원 79명 가운데 42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조계종과 선학원, 동근(同根)의 역사 및 이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남북불교 교류 ‘청신호’ 켜지나

천태종 · 진각종도
北 조불련과 회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과 대표단은 3월 28일(사진 왼쪽)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와 대표단은 3월 30일(사진 오른쪽) 각각 북측 조불련을 만나 올해 교류계획을 논의했다.

광복70년을 맞는 올해 남북불교 교류에 청신호가 켜졌다. 조계종에 이어 천태종과 진각종도 잇달아 조선불교도연맹을 만나 올해 교류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이 3월 28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칠보산 호텔에서 만나 첫 공식 회담을 진행했다.

남북을 대표하는 두 불교지도자들이 경색된 남북불교 교류현황에 대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한 후 올해 발전적 교류사업을 전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춘광 천태종 총무원장과 강수린 위원장은 또 남북 불교교류사업의 실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성서 다시 별도로 만나 결정키로 협의 했다. 천태종은 이번 회담에서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 평화통일기원대법회(10월) △대각국사 의천 스님 914주기 열반다례재(11월) △개성 지역 사찰 불사의 건 △남북청소년 문화교류의 건 △개성지역 불교문화재 고증 토론회 개최의 건 △개성지역 성지순례의 건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도 3월 30일 오후 중국 심양 칠보산호텔에서 북한 조불련 강수린 위원장을 만나 상호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덕정 정사는 통리원장 회정 정사의 인사 메시지를 전하며 “광복 70주년과 6 · 15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남북 불교인들의 지혜로운 원력과 화합의 실천을 위해 나가자”며 “이를 위해 상호교류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을 모으고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자”고 말했다.

진각종은 이번 만남에서 조불련 측에 ‘분단극복 평화통일 공동법회’를 6월중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행할 것과 남북 불교도 공동학술대회를 10월 중 평양과 서울 혹은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공존 · 상생 · 합심의 통일 담론 준비 중”

자승 스님, 홍용표 통일부 장관 예방서 밝혀

조계종이 올해 개발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종단 차원의 통일담론의 기조가 공존과 상생, 합심임을 재차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3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남북이 갈등 없이 하나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종단 차원의 통일담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북측 인사들과 만나보니 남과 북이 서로를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서로가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존과 상생, 합심을 조계종 통일담론의 세 가지 원칙으로 소개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닌 함께 대화해야 한다는 뜻에서 ‘공존’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데에서 ‘상생’을, 민족 동질감 회복을 위해 ‘합심’을 제시했다는 게 자승 스님의 설명이다.

이어 스님은 “정부와 종단의 통일론이 다르면 국민들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면서 “완성단계에 이르면 통일부와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장관은 “공존과 상생, 합심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통일담론을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면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토록 하겠다. 이런 민간교류의 노력들은 향후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3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조계종 종회, 종책 전문성 결여”

NGO모니터단 201차 임시회 평가 보고서 발표

“개원 초기라 의장과 사무처장의 의사진행이 미숙했으며 종회의원들도 중앙종회법 등 관련법 및 종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앙종회가 운영되는 점이 아쉬웠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집행위원장 김종규, 이하 모니터단)는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0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총평을 내놨다.

특히 모니터단은 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종회법 위반 논란, 동국대 결의문 채택 과정서 자구수정 및 발표를 위장단과 일부 의원들에게 위임한 부분 등을 놓고 “종회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종헌 개정안을 2개로 나누어 상정한 것이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맞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으며, 후보자 선출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산중총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본사주지 선거 후유증을 막기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일시에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반면, 의례법 개정에 따라 4곳 이상의 교육기관과 대중처소에서 표준의례의식안을 6개월 이상 시연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에 의한 개정이 아니라 충분한 시연 등을 통해 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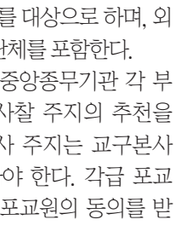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중앙종회의원들의 낮은 출석율에 대해서는 “총 77.5%의 출석율을 보였다. 16대 중앙종회가 시작한 초기라 의원들의 참석율이 높고 열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첫날 90%의 출석율이 회기 마지막 날 66.25%에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이번 임시회 현장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평가를 진행한 뒤 평가서를 채택 · 발표했다. 평가서는 3월 30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에 전달됐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세계최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5월 15일까지 수시전형

5.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조계종 진흥원특위, 진흥원 공식 방문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특별위원회(위원장 정념)가 진흥원을 공식 방문키로 했다. 하지만 양측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흥원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4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정념 스님, 진화 스님, 제정 스님, 박종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진흥원과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진흥원을 공식 방문하기로 했다. 방문 일정 등은 위원장 정념 스님에게 위임했다.

신성민 기자

"사회 변혁위해 종교계가 나서자"

KCRP, '답게 살자' 세미나 개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장 자승, 이하 KCRP)는 3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범종교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월 25일 범종교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에 이어 구체적인 운동실천을 위한 행보다.

이날 불교 패널로 나선 임장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조계종은 3년 전 자성과쇄신결사체추진본부를 구성, '붓다로 살자' 운동을 전개해 부처님 정신의 생활화 · 대중화 · 사회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중앙신도회는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답게 살자' 운동으로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인 자(慈, 사랑), 비(悲, 더불어 아파함), 희(喜, 더불어 기뻐함), 사(捨, 버림)을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주제 강연자로 나선 권길중 답게살자운동 준비위원장(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은 "학교폭력, 노사갈등, 세대갈등, 빈부격차 등 모든 사회적 문제는 공동체 정신의 해체에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각 종단이 지닌 이웃사랑 실천계율에 따라 자기 쇄신을 시작해 사회를 화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7대 종단 대표로 불교 임장수(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개신교 심영식(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회장), 원불교 이지철(원불교 청운회), 유교 박평선(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학술위원장), 천주교 김문태(서울디지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 박아름 수습기자

따뜻한 식사에 어르신 · 봉사자도 '웃음꽃'

1일, 탑골 원각사 급식 재개… 원경 스님 원력 계승

지난 3월 2일 문을 닫았던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이 한달여 만에 다시 재개됐다. 종로 탑골공원 한켠에서 가난한 어르신들의 주린 배를 책임졌던 원각사의 자비의 원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승된 것이다. 심곡암 주지이자 前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이 자비의 원력을 이어가게 됐다.

원각복지회(회장 원경)은 중단됐던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을 4월 1일자로 재개했다. 원각사는 오전 10시 여느 때와 같이 사시예불로 봉사를 시작했으며, 재개 첫날인 만큼 탑골공원 인근을 가두 행진을 하며 원각사가 다시 문을 열었음을 어르신들에게 알렸다.

원각복지회장 원경 스님은 예불 후 인사말을 통해 "보리 스님이 남긴 22년의 원력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모든 것이 스님의 원력과 노보살님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다. 앞으로도 자비의 원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각사 무료 급식이 다시 시작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원경 스님에게 원각사 탑골 무료급식을 제의했던 이는 다름 아닌 심곡사 신도이자 원각복지회 후원회장인 강위동 거사. 5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해왔던 그는 지난 1월 급식폐쇄 소식을 접하고 고민을 거듭하다 평소 적을 두고 다니던 심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게 이를 논의했다.

이대로 22년 자비 원력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원경 스님은 탑골공원에 직접 '현장답사'를 나갔고 어떻게 해서든 원력을 이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어르신들을 사회가 보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강위동 원각복지회 후원회장은 "3월 2일 마지막 급식을 진행했던 원각사 무료 급식소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만류하고 설득했다. 결국 건물 임대에 대한 계약을 다시 맺었다"면서 "자비의 원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오, 본격적인 급식의 시작. 오늘의 식단은 나물비빔밥에 두부조림, 미역국이다. 거기에 별식으로 떡과 바나나가 함께 제공됐다. 고봉으로 밥을 올린 어르신들은 맛있게 비벼 먹고 양손에 별식을 두둑이 챙겼다. 재개 첫날에만 188명의 어르신들이 다녀갔다.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이 4월 1일부터 재개됐다. 보리 스님의 지병으로 문을 닫게 된 원각사의 자비원력은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이 이어 받았다. 사진은 원경 스님이 배식 봉사에 나선 모습.

급식 재개 첫날 188명 방문해

안정 운영위한 봉사 · 후원 절실

"노년 소외계층 외면할 수 없어"

원경 스님 · 강위동 씨 의기투합

원각사 무료급식 원력 이어나가

김세중(83) 씨는 "사찰음식을 상당히 좋아한다. 좋은 시절에는 일부로 찾아가서 먹었다"면서 "오랜만에 절밥을 먹었더니 기분이 좋다. 건강해지는 느낌이다"라고 반겼다.

원각사의 터줏대감 자원봉사자들도 즐겁기는 마찬가지. 보리 스님과 함께 급식 봉사를 시작한 강영순(75) 씨는 그간의 봉사 경력을 살려 질서 유지에 여념이 없었다. 좁은 급식 장소를 고려해 순서를 지키며 입장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 씨는 "몸은 고되지만 즐겁다. 다시 봉사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신원창(80) 씨는 여전히 번호표 발급 및 회수,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재개 첫날에도 가장 먼저 법당에 나와 국거리를 만들고 반찬 준비를 하고 쌀을 씻어 놓았다. 신 씨는 "누군가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내 인생 마지막 최고의 보람이었다"면서 "다시 급식이 재개돼 즐겁고 기쁘다"고 말했다.

종로 원각사의 무료급식이 다시 이어지기는 했지만 산적한 숙제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월 1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 사부대중의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원각사 무료급식은 30여 봉사팀이 매일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지만, 연로한 봉사팀이 일부 회향해 현재 15팀만 남아 있어 자원봉사자 수급도 필요하다.

원경 스님은 "원각사 무료급식을 찾는 노인 중 절반 가량은 하루에 한끼도 해결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이런 분들에게 하루 한 끼의 무료급식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도구이다. 원각사의 무료급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온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 문의: (02)762-4044**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포교사단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조계종 포교원, 4월 1일 '지역포교와 포교사단' 연찬회

"포교사단 정책방향은 포교원과 교구본사, 사찰, 포교사단 중앙 단위에서 최적화된 활동 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윤영희 조계종 포교원 포교차장은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역포교와 포교사단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연 제61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영희 차장은 '지역포교와 포교사단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포교사단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불교가 모색을 시작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역량을 모아간다면 미래불교는 가능성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며 포교사단 활동 활성화를 모색했다.

이날 윤 차장은 △사찰이 지역 공간 플랫폼으로서 기능 △지역의 불교총량을 종합하고 전략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 교구본사의 기능 △포교사(단)은 포교원의 종책방향을 실현하는 포교기구로서 역할 수행 △포교사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구조 개선에 착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역포교와 포교사단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제61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었다.

윤 차장은 "사찰의 유휴토지와 건물이 지역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설계하고 사찰이 갖고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그 안에 담는다면 지역사찰은 새로운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스님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는 지역의 물적 · 인적자원의 총량을 추산하고 연대 틀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교구본사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차장은 포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포교원은 지역포교의 큰 틀을 바라보며 각각의 포교주체가 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조율사로서 지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소중한 인적자원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포교사단과 함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포교사단의 미래상과 포교사단의 품위' 주제 발제에서 "포교사단 현황은 2014년을 기준으로 남성 2192명, 여성 2232명으로 남녀 구성비는 거의 비슷하다"며 "포교사단은 거사들을 불교계로 끌어들여 활동하게 하는 새로운 장이자 장치로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호균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교육위원은 '포교활성화를 위한 교구와 사찰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가진 포교사들을 육성해 현장의 포교활동에 동참토록 함으로써 스님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포교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행복바라미 축전 준비 'START'

날마다좋은날 30일 홍보대사 위촉행사 개최

5월 1일 광화문서 알림식

올림픽 국가대표 등 스포츠 스타들이 전통문화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3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5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올해 5월 25일)을 기해 열리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자비문화 확산을 위한 대규모 거리모금과 다양한 공연 · 전시가 어우러지는 문화축제다.

올해는 5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알림식을 시작으로 전국 140곳에 모금소를 설치하고, 10일까지 광화문광장 · 부산 광복로 · 대구 동성로 등 전국 10곳에서 지역문화제를 펼칠 예정이다. 모금 기금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2013 · 2014년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보름간 전국 120여 개 모금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망 사각지대에 있는 468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사)날마다 좋은날은 3월 30일 '2015 행복바라미 문화축전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행정자치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등의 후원을 받는 등 공익사업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날마다좋은날은 이날 캠페인 진행을 위해 부부 볼링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인 조영선(광주체육회)과 손연희(용인시청)을 새롭게 위촉하고 위촉패를 수여했다. 날마다좋은날 홍보대사로는 손연재, 양학선, 조해리, 심석희, 공상정, 신아람, 김지연, 최현주, 이용대, 김현우, 정다래, 노민상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도명 선사 20주기 다례재

3월 28일 고성 화암사서…1백여명 참석
법어집 〈봄은 가도 꽃은…〉 봉정식도 봉행



담연당(湛然堂) 도명선사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재와 법어집인〈봄은 가도 꽃은 남아 있네〉봉안법회가 3월 28일 강원도 고성 화암사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명문도회 대표 화암사 주지 동선 스님은 "은사이신 도명 대선사께 법을 듣고 배울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문인 제자들은 매우 소중한 법연(法緣)의 기회를 얻었었다"며 "은사 스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가르침은 고구정녕해 항상 우리 후학들의 수행 생활에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명 선사에 도반이었던 영은암 회주 정휴 스님도 법문을 통해 "효의 정신이 점점 없어져 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맏상좌인 동선 스님의 스승을 향한 효행은 우리 후학 스님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치하하며 "도명 스님은 월정사 주지 시절 친분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라면 두루 사찰의 주요 요직에 앉히는 등 사람에 대해 차별과 분별심을 두지 않았다며 이런 도명 선사의 향훈을 우리들도 본받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前 신흥사 주지 마근 스님을 비롯해 1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고성 화암사=김주일 기자**

성관음사 법화경사경 복장 봉안



법화종 성관음사(주지 일우)는 3월 29일 경내 33관음신전에서 제3차 법화경 사경복장봉안식과 주지 일우 스님의 신간 〈법화신행 믿음〉 출판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남한산성 장경사 주지 진광 스님 임명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장경사 새 주지에 진광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집무실에서 최근 경우 스님의 선운사 주지 선출로 공석이 된 장경사 주지에 진광 스님을 임명했다. 진광 스님은 동명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사미계)하였으며, 선운사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다. **신중일 기자**

"불자님의 따뜻한 손길 기다립니다"

자선 바자회 여는 가수 장미화
4월 14일~15일 서초구청앞서



가수 장미화 씨〈사진〉가 4월 14일~15일 서초구청앞에서 바자회를 연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바자회는 매년 장미화 씨와 지인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장미화 씨는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이라는 NGO단체를 결성해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장 씨는 "오랫동안 바지회를 열다보니 후원 업체도 많이 생기고 지인들과 물건 등을 기증해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자 마음을 내니 오히려 도와주는 분들도 많아 즐겁습니다."

장 씨는 유명의류업체 지원과 본인의 의류 및 연예인들의 물품 등을 기증받아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다양한 보시행을 실천해왔다.

"지난해에는 수익금으로 진도에 남아 가족을 기다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생필품 지원을 했어요. 이밖에도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어요."

올해도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동참을 한다. 가수 김혜은, 현숙, 김상배, 인티엘르 팝페라 4인조, 신비, 신자유, 편성엽, 박종식, 배우 하리수 등이 참석해 물품도 판매하고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장 씨는 "그동안 부족한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디너쇼도 개최하는 등 한 해 마다 자선 행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죠. 이번 바자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물품도 팔아주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불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혜숙 기자**

"눈높이 맞춘 포교활동 펼칠 터"

부산교수불자연합회 신임회장
정태권 교수



부산교수불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한국해양대 정태권 교수〈사진〉가 임명됐다. 정 교수는 앞으로 '대학생 불교 활성화' 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다졌다.

"과거에 비해 대불련 활동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다행히 前회장님의 노력으로 현재는 학생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죠.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는 대학생 불자 포교를 위해 '정기 법회 활성화' 와 '눈높이에 맞춘 포교활동' '불자 지도교수 관심 이끌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의 불자 교수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아리 지도교수가 없어진 것도 대학생 불교학생회의 침체 원인이기도 하죠. 물론 최첨단의 기계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요즘 대학생들의 관심을 불교로 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에 지친 학생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휴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학생들도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 교수는 학생들에게 맞는 포교 활동 제공해 줄 계획이다. "저는 대학시절 기독교 심취해 있다가 우연히 〈불교와 자연과학〉이라는 책을 보고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 이 불교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쉽게 불교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짐을 전했다.

한편, 부산교수불자연합회는 불교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불교문화 선도, 대학생 불교학생회 활성화 관련 사업,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선운사 운영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개관



법만 스님이 개관식날 육아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고창 선운사가 운영하는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식 개관했다. 선운사(주지 법만)와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4월 2일 고창읍내 월곡뉴타운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관식을 봉행했다.

개관식에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선운사 복지재단 상임이사 범여 스님, 고창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고창군의회 의장, 김명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100여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법만 스님은 "이번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을 계기로 선운사는 명실상부하게 지역 복지를 책임지게 됐다"며 "기존의 어린이집과 고창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영유아부터 어르신들에 이르는 고창군민들의 복지를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운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서 One - Stop 육아서비스를 지원하며, 불교계에서 최초로 위탁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2014년 6월에 건립을 시작해 12월에 준공하였으며, 건축연면적 794㎡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노덕현 기자**

5사단 신병교육대대 신축 법당 기공



정우 스님을 비롯한 군포교 관계자들이 법당 기공의 삽을 뜨고 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3월 27일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 신축 법당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공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 우스님과 부교구장 승원 스님, 주호영 · 김영우 국회의원, 주창환 5사단장, 송희섭 6포병여단장, 예비역 장군 불자들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이 법당이 입영한 장병들의 마음에 평화와 용기를 주는 의지처가 될 것"이라며 "5사단 열쇠용사들이 군생활을 시작하는 이곳에서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5사단 전장병을 대표해서 주창환 5사단장은 "신축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경기 북부 최전방 지역으로 가는 모든 병사들이 이곳에서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 참 불자가 되며 늘 싸워서 이기는 상승 5사단 열쇠 부대의 기개를 가슴에 새기며 나라를 수호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4월 2일 영천 은해사에서 2015년 군승 하안거를 회향했다. 이번 안거에는 200여 군승이 동참했다. 정우 스님은 군승들에게 "포교 현장에서 한명의 스님으로, 군 업무에서는 장교로서 임무가 막중하다"며 정진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통도사, 출가열반재일 프로그램 진행



통도사(주지 원산)는 3월 27일~4월 3일 출가열반재일 프로그램 '우리도 부처님 같이' 를 진행했다. 특히, 3월 27일 입재식에서는 석가모니 정근,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의 법문, 금강경 독송 및 108참배 정진이 진행됐다.

주지 원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경계 없는 허공처럼,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이 중생제도를 위해 출가한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심(52)씨는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니 수행이 더욱 깊어지는 듯하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한다"며 소감을 말했다. **하성미 기자**

창원수산자비선원 제2회 불교인 단합대회



(사)창원수산자비선원(원장 법상)은 3월 28일 창원 KBS홀에서 '제2회 불교인을 위한 단합대회 및 11회 경로위안잔치'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산 스님, 월인 스님 등 120여명의 스님들과 박성호 국회의원 및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해 치매, 중풍 등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법상 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 불교가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전국의 큰스님들께서 체육관 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우리 불자들께 부처님의 법을 전달하고 불자들에 힘을 실어주어 불교가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해인총림 소림선원 하안거 방부모집 공고

해인총림 소림선원에서는 새롭게 방장으로 추대된 벽산당 원각 대선사를 모시고 을미년(2015년) 하안거를 정진할 수좌스님들의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다 음

◆ 방부 신청기간 : 2015년 4월 19일 ~ 4월 20일
(음, 3월 1일 ~ 3월 2일)

◆ 신 청 방 법 : 전화 055)934-3120 (선원 서기실)

지난 동안거 2015년 2월 방부들인 분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방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9(2015)년 4월 3일

법보종찰 해인총림 선원장 효담

'The 열린 불교 아카데미' 개강

당대의 학승으로 〈금강경오가해〉〈대승기신론〉〈치문〉〈중론〉〈명추회요〉〈법보장경〉 등 다양한 경전을 엮어낸 선교를 겸수한 원순스님을 모시고 원각경을 공부하는 소중한 법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순스님이 여는 원각의 세계에서 편파적인 감정과 고집스러운 의지, 어리석은 구름을 일으킨 범부 중생의 길을 떠난 우리의 본마음, 불보살님의 본마음을 알아가는 자학학지 학행원만自學學地 學行圓滿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 개 강 : 2015년 4월 20일 월요일
- 기 간 : 2015년 4월 20일 ~ 2015년 8월 20일 (4개월 과정)
- 시 간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2시간 강의)
- 장 소 :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7(부전1동 401-9) 4층
- 강의비 : 5만원 교재비 : 1만원
- 문 의 : 묘광선원 070-8133-9917, 051-244-0263, 010-3564-3725 / 열린 불교 아카데미

법사 | 원순스님(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 해인사 · 송광사 ·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중)



이날 축구대회에는 삼광사, 사회복지법인불국토, 대불청 부산지구, 축구사랑(미타선원 · 원오사 · 감인선원 · 불국정사 스님과 신도연합) 등 4개팀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응원단들은 북을 치며 힘껏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등 대회 열기를 뜨겁게 했다.



이날 경기는 승속을 초월한 화합의 장이었다. 축구사랑 소속 스님이 공을 힘차게 차고 있다.

축구로 출가·열반 되새겨… 부산 신행단체 화합마당

부산불교연합회, 출가 · 열반재일 기념 제1회 친선축구대회

부산 지역 주요 사찰 및 단체 4개팀 참가

심산 스님 "스포츠 통해 화합의 장 되길"

팀별 참가비, 성도재일 방생 프로그램 지원

따뜻한 바람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햇살은 따뜻하고 차가웠던 겨울의 매서움은 사라졌다. 봄이 온 것이다.

3월 27일(음력 2월 8일)은 부처님 출가일로 부처님의 구도여행 첫 시작일이다. 힘들고 고된 시간을 이겨낸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출가일은 따뜻한 봄바람 소식과도 같다. 4월 3일(음력 2월 15일)은 열반재일이다. 정진에 대한 당부를 남긴 부처님의 열반은 모든 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구도의 길을 완벽하게 마무리 한 참다운 승리의 날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출가 · 열반재일 주간을 맞아 3월 29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1회 부산불교연합회장배 출가 · 열반재일 기념 친선축구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축구대회에는 삼광사, 사회복지법인불국토,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를 비롯해 미타선원 · 원오사 · 감인선원 · 불국정사 스님과 신도들이 연합으로 소속돼 있는 축구사랑(단장 심산)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삼광사 대불청부산지구 등 4개 팀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축구사랑 팀은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이 주축이 돼 지난해 3월 창단한 단체로, 시합을 앞두고 매일 오전 · 오후 108배를 통해 다리의 근력을 키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행사장에서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도반들과의 인사와 안부가 오고갔다. 따뜻한 봄볕에 피부가 탈까봐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며 활짝 웃는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행복이 가득하다. 운동복을 입은 스님들은 경기에 앞서 몸을 풀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응원단들은 북을 치며 힘껏 목소리를 높여 대회 열기를 뜨겁게 했다. 다른 팀도 응원에 질세라 사람을 모아 목소리를 높였다. 공의 방향에 따라 탄식과 함성이 교차했다.

격려차 행사장을 잠시 들린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부산 범어사 주지)은 "친목과 화합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했다. 모처럼 날씨도 화창해 더욱 뜻깊다.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며 언제나 정진을 해야겠지만 동적인 움직임 통해 수행의 깊이도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은 "매년 팀 배가 운동을 통해 다음에는 더 많은 팀들이 참가하길 바란다. 또한 이런 경기들을 통해 젊은 불자들이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었음 한다"며 "각 신행단체들이 어우러짐과 동시에 연등 축제로 이어져 여법하게 회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친선축구대회는 동적인 활동을 통해 수행의 본질을 이끄는 행사인 만큼 스님들의 격려가 끊이질 않았다.

조직위원장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즐거울 때 사람들은 뭘 듯이 기쁘다고 한다. 뛰면 또한 그렇다. 기뻐진다.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유로운 것이다. 순수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팀의 시합 외에도 BBS불교부산방송과 연합팀의 경기 및 여성불자들의 승부차기 등도 진행돼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경기는 삼광사가 우승했다. 삼광사 최주덕 부신도회장과 심산 스님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류상영(57)씨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불교포교라는 본질을 이끌어내고 스님과 재가자가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라 뜻깊었다"며 "공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하는 것도 자신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참가팀의 시합 외에도 BBS불교부산방송과 연합팀의 경기 및 여성불자들의 승부차기 등도 진행돼 즐거움을 더했다.

각 팀에서 승부차기로 경기에 참여한 불자들은 출전 전 연습을 모여서 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승부차기의 우승은 '축구사랑' 팀이 차지했다. 축구 경기에 참가했던 여성팀들은 "응원만 하면서 앉아 있기 무료했는데 참가해 보고 나니 정말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남성 불자들이 대거 동참해 새로운 포교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운동을 통해 남성 불자들의 흥미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또한 참가 남성 불자들은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스님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더욱 친근히 다가갈 기회를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불국토 소속 이광식(30)씨는 "평소 스님은 어렵게 느껴지고 다가가기가 불편한 점이 적잖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어 좋았고 스님들께서 잘 챙겨 주시니 가깝게 느껴지고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 스님들을 찾아뵙고 고민도 나누는 등 교류하고 싶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삼광사 하승우(55)씨는 "평소에는 연륜있는 여성불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자녀들과 금강불교대학동문들이 모여, 젊은 활기가 넘쳐서 보기가 좋았다.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 젊은 불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모임에 나오지 않았던 도반의 안부를 묻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도 됐다. 불국토 직원들은 다른 기관 소속의 안부도 확인하며 불교모임 참가를 독려했다.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기수들의 얼굴을 익히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또한 봄을 맞아 가족 전체가 나들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친목도 도모했다.

사회복지관 협회 소속 최병진(35)씨는 "불국토에서 일을 했는데 오늘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족들과 나들이 겸 인사도 하고 싶어 찾아왔다. 스님, 도반들 직원 동료들도 다시 만나 좋은 시간이었다. 날씨도 좋아서 가족들과 나들이도 나와서 더욱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축구친선 경기의 결과는 1위 삼광사, 2위 불국토, 3위 축구사랑 4위 대불청 부산지구에 돌아갔다.

1위를 차지한 삼광사 최주덕 부신도회장은 "처음으로 열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해 더욱 의미가 깊다. 우리 팀 이름이 '드래곤' 이다. 용이 신출귀몰 변화가 무상한데 축구팀이 그 기상을 닮아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다"며 "내년에 또 우승할 것이다"며 각오를 다짐했다. 우승과 준우상에는 트로피가 수여됐으며 참가한 전원팀에게는 격려금 30만원씩 전달됐다.

사무총장 심산 스님은 "내년에는 많은 팀들이 참가하도록 응원팀도 구성하고 점점 더 키워 발전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참가한 4개팀의 참가비는 매년 부산불교연합회가 성도재일을 기념하며 주최하는 신개념 에코 방생 프로그램 '철새먹이주기운동'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하성미 기자

보련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영석고, 순수 교직원 기금으로 독서실 마련

논문연구동아리 소속 학생 11명 9편 논문 펴내기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교장 정충래)는 최근 동국관 4층에 아담한 독서실을 만들어 문을 열었다.

교직원들이 기금을 마련해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을 건립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교장 정충래)는 최근 동국관 4층에 아담한 독서실을 만들어 문을 열었다. 30석 규모의 독서실은 '가온누리'라는 순우리말 이름이 붙었다. '세상의 중심이 돼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최신식 설비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웬만한 사설 독서실 수준을 능가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주로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있다.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위해
'가온누리' 독서실 설립
9개월간 지도교사 도움으로
대학 수준 버금가는 논문 펴내

이 독서실은 급식 조리원까지 동참한 순수 교직원들의 기금으로 만들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원래 교직원 기금은 매년 장학금 수여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으나 올해는 기금 일부를 독서실 설치에 기부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다 학교에 부족한 독서실을 만들어 학습환경을 제공하자는 전 교직원들의 뜻을 모은 것이다.

정충래 교장은 "가온누리라는 이름처럼 이곳 배움터에서 자신의 꿈을 갈고 닦아 세상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석고등학교 학생들이 한해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로 대학 학위논문에 버금가는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논문연구동아리 소속 3학년생 11명이 9편의 논문을 펴낸 것이다.

논문의 주제도 다양하고 수준도 상당히 높다.

'스마트 그리드 주요 분야와 국내외 적용 사례에 대한 고찰', '항공기준사고의 사고 유형 및 원인에 대한 분석', '일본의 차기 상륙함 이즈모급의 도입으로 인한 동아시아의 정세변화', '한국 지식 재산권 관리의 문제점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삼성전자 대 애플사건을 중심으로)' 등 대학원생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박민영 지도교사가 지난 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논문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학생들에게 주제 잡기부터 자료검색, 연구, 논문작성까지 하나하나 가르쳤다.

학생들은 의정부과학도서관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전공서적을 뒤졌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컴퓨터를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봐야 했다.

이렇게 연구계획서가 나오고 선행연구 논문을 토대로 주제를 잡고 논문을 차례로 써나가기 시작했다. 토론을 통해 원고 수정을 거듭하며 논문을 완성해 갔다.

방학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여름방학 기간 설문조사, 문헌연구, 교수프로그램 작성 등 연구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논문은 실제 대학원생 논문과 같은 규격과 양식으로 완성됐고 발표회에서 교사,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고교생이 한 놀라운 연구결과물'이란 호평을 얻었다.

정충래 교장은 "논문을 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전공을 심층적으로 연구해보고 교육과정에 더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학습효과로 본인의 잠재력을 확인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장애인 인식개선·편의위해 사업 펼칠 것"

장애인전법단,
4월 1일 주요 사업계획 발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계종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불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간다.

장애인전법단은 4월 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공연사업을 비롯해 시각장애인 음성도서 발간 및 배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찰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모색을 시도한다.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우선 4월 20일 35주년 장애인의 달을 맞이해 붓다콘서트를 열어 장애인식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법단은 4월 16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좋은벗 풍경소리, BBS TV와 함께 '붓다콘서트'를 연다. 승가원 장애아동 댄스팀, 연화원 시각장애인 기타연주팀, 원심회 수화공연팀 등이 참여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공연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전법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도 발간한다. 음성으로 녹음한 〈부모은중경〉과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음성도서를 MP3파일, TAPE로 제작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한다. 도륜 스님은 "현재까지 청각장애인들의 수화동영상 교리집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현행원품 점자책을 발간해 배포했다"며 "음성도서는 일관성있게 꾸준히 녹음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조금 걸린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은 4월 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4월 16일 붓다콘서트 개최
시각장애인 음성도서 발간·배포
장애인 접근성 위한 지침서 발간
"사찰들 장애인 위해 힘써달라"

전법단은 사찰별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서 발간 작업도 실시한다. 도륜 스님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사찰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사찰에 함께 동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휠체어를 타고 법당 출입을 가능케 하는 등 10여가지 장애유형에 맞춘 지침서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장애인전법단은 2013년 캄보디아, 2014년 대만에 이어 오는 10월 중 불교국가인 라오스로 해외불교문화탐방을 기획·실시한다.

도륜 스님은 "일반인에 비해 해외불교문화탐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불자들을 모시고 해외불교문화탐방을 통해 불심을 다지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장애인전법단은 오는 4~5월중 양주 육지장사에서 경기지역 장애인불자 100여명을 초청해 '장애인 불자 템플스테이'를 열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륜 스님을 비롯해 승가원장 동준 스님, 광림사 연화원 주지 해성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등이 참석했다.

송묵 스님은 "우리나라 장애인은 3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불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형제,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데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며 "열악한 장애인 포교환경에서 장애인전법단 및 포교사들이 눈물겨운 포교를 하고 있다. 장애인 포교를 위해서 재정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대웅전 양옆으로 난 쪽문에 있는 보를 30㎝에서 25㎝로만 낮춰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다. 앞으로는 불교계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사찰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륜 스님도 "각 지역사찰에서 장애인단체들이 법회를 열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동국대 국제선센터 4월 강좌 개강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영어와 간화선 법회

4월 봄을 맞아 동국대 국제선센터가 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강좌를 준비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원장 수불)는 매주 토요일 영어법회와 간화선 법회를 개최한다.

4월 영어법회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불교에 대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며, 간화선 법회는 '마음공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4월 영어법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일 원보 스님의 '사무량심 수행' △11일 선운사 사찰 기행 △18일 서울대 스미스교수의 '베다와 우파니샤드-인도 종교 철학의 근원' △25일 린 에머슨의 '우주와 마음'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4시에 열리는 간화선법회는 △4일 황수경 교수의 '간화선과 마음치유-내 마음은 금부처' △11일 선운사 답사 △18일 박규리 교수의 '마조록' △25일 김호귀 교수의 선과 문답이 진행된다.



황수경 교수가 토요 간화선 법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선센터는 선원장 수불 스님의 특강도 개최한다. 수불 스님은 4월 21일 오후 5시 국제선센터 법당에서 '진정한 행복'을 주제로 법문한다.

이밖에 국제선센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6시 30분까지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목요참선을 열고 있다. (02)2260-3891

이나은 기자

세첸코리아, 사캬 티진 초청법회

5월 8~10일 대중법문·수행 프로그램 마련

세첸코리아(대표 용수)는 사캬파의 법왕인 사캬 티진〈사진〉을 초청해 법회를 연다.

세첸코리아는 5월 8일 오후 6시 동국대 대강당에서 대중법문 '자비로운 여정'을 시작으로, 5월 9~10일에는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관세음보살 밀교 수행 전수와 관정'을 주제로 직접 수행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사캬파의 법왕인 사캬 티진 존자는 티베트 불교 사캬종의 41대 종정으로 달라이라마 존자 다음으로 티베트 불교의 큰 스승이다.

1945년에 태어난 스님은 5세 때부터 대승과 금강승 불교의 다양한 가르침을 배웠고, 14세 어린 나이에 사캬종 종정이 됐다. 이후 15세가 되던 1959년 티베트 정치적 상황으로 인도로 망명해 인도 데라둔에 사캬 사원을 세웠으며, 인도와 네팔의 사원과 강원 무문관을 비롯 전 세계에 많은 신행단체를 일으켜 세웠다.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은 "'밀교 수행자의 왕'으로 알려진 사캬 티진 스님은 깊은 깨우침과 한없는 자비심으로 티베트 4대 종파 스님들과 불자들로부터 존경 받고 계신 분"이라며 "5월 9~10일 열리는 행사에서 사캬 티진 존자님은 티베트의 마하씨다(대성취자) 탕퉁겔뽀께서 관세음보살을 직접 친견하고 받아 만든 사다나 수행을 전수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http://shechenkorea.org)

이나은 기자

제1기 불교의식(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교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보경사 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과정 (3개월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해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중급과정1년 (범음,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법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사물	북, 태징,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5월 7일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3매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번지
보경사 종무소(숙식제공가능) ☎ 054)262-1117
◆ 강주스님 : 일관

대한불교 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4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관조와 성찰의 詩語로 다시 살아갈 힘 얻습니다”

불자 장애인 문학모임 ‘보리수 아래’ 창립 10주년

불교계 유일의 장애인 문학모임인 보리수 아래(회장 최명숙)가 10주년을 맞았다.

보리수 아래 최명숙 회장은 “보리수 아래 10주년을 기념해 불교를 사랑하는 중증 장애인 불자들이 하나하나 써내려간 시를 모아 〈단 하나의 이유까지-보리수 아래 10년을 여는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집 〈단 하나의 이유까지〉에는 보리수 아래 회원이자 장애를 가진 권오웅 · 김동원 · 김준엽 · 성인제 · 이경남 · 이순애 · 이인구 · 정상석 · 정훈소 · 최명숙 · 홍현승 등 11명의 시인들이 가슴으로 써내려간 시 67편이 담겨 있다.

시인들이 갖고 있는 사연도 다양하다. 근육이 마비되는 근이양증을 앓고 있는 권오웅씨는 힘겨울 때마다 글을 쓴다. 막대를 입에 물고 키보드 자판을 치며 시를 쓰는 김준엽(뇌성마비) 씨는 시를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정상석(뇌성마비) 씨는 바닥에 누운 채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힘겹게 시를 쓴다.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품은 시인들이 장애를 딛고 절절하게 써내려간 아름다운 시구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울린다.

“말을 아껴 시로 생각하고/흩어진 발음으로 노래합니다/주변의 말이 넘쳐나고 있을 때/조용히 시어를 찾아봅니다/단절이 아닌 함축의 미 찾아/상상의 길을 떠납니다/감성이 봉오리로 맺힐 때/기쁨이 밀려옵니다/항상 그 자리 있는 말에게/생명 눈길을 줄 때 그들은/나의 꿈과 사랑으로 깨어/아름다운 시 이야기 합니다/’ (이순애 시 ‘시로 하는 이야기’)

최명숙 회장은 “장애인 재활이라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걷는 등 재활치료로만 생각한다”며 “하지만 보리수 아래 회원들은 개인의 감성을 글로 표현하고 곡으로 만들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보리수 아래’는 2005년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과 최명숙 회장의 인연으로 만들어졌다. 매월 1회 청량사를 방문해 1500~3000배 정진을 하던 최 회장은 당시 영주장애인복지관장으로 부임한 지현 스님의 격려에 장애인 법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원력을 더해 보리수 아래 창립을 결심했다. 준비기간에만 4년이 걸렸고, 2005년 모임을 결성한 후에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기반으로, 매달 한차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있다.

매달 한차례 오프라인 모임 가져
10주년 기념 시집… 11명 시인 67편
5월 7일 불교문화기념관서 시낭송





보리수 아래는 현재 해남 일지암 법인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이 지도법사로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연1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과 문학작품집 발간, 음반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왼쪽). 보리수 아래 최명숙 회장(사진 오른쪽)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포교에 대한 고민은 문학과 문화를 통한 포교로 이어졌고,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은 시를 쓰고 공유하며 그 첫발을 디뎠다.

보리수 아래는 장애인 포교에 동기 부여를 넣어주고 방향을 찾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 노래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공연에는 장애인 불자들이 가사를 쓴 노래발표, 시낭송, 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루로 끝나는 공연에 아쉬움이 컸던 최 회장은 이듬해부터 공연에서 선보일 시낭송과 시에 곡을 붙인 노래, 찬불가를 모아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 3집까지 나온 상태로, 보리수 아래는 2011년에 발매된 세 번째 앨범 ‘비상, 그 날개 위에’를 2000매 제작해 보리수 아래 회원들과 후원자들을 비롯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게 무료 보시했다. 또한 공동시집 〈봄길 위의 동행〉 〈보리수 아래 그를 만나다〉를 출간했다.

최 회장은 “공연은 하루 듣고 끝이지만, 앨범을 항상 가까이 두고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렇게 만들어진 앨범은 거동이 힘들어 공연장에 오지 못한 장애인 회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됐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리수 아래는 현재 해남 일지암 법인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이 지도법사로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연1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과 문학작품집 발간, 음반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명숙 회장은 부처님오신날 및 보리수 아래 10주년을 기념한 공연인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보리수아래 단 하나의 이유까지’를 준비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오는 5월 7일 오후 7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노래 작사 및 음악연주와 시낭송을 하는 장애불자 10명, 오케스트라 단원 및 초대시인을 비롯한 수화통역자 등 20명이 참여한다.

최 회장은 “장애불자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 더불어 가사를 쓴 노래 발표, 마임, 무용 등의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다”며 “장애불자들이 참된 신행생활을 하고 바른 포교활동을 하도록 함은 물론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모임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보리수 아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펴주신 봉화 청량사 지현 스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지도법사 법인 스님, 후원과 자원봉사 등으로 동행해 준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cafe.naver.com/borisu0708)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몽골 도시빈민촌 주민역량강화 사업 착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몽골 현지단체 CHRD와 업무협약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빈민촌에 주민역량강화 사업 착수를 위해 몽골 현지협력단체인 CHRD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 26일 몽골 드림센터에 강터거스(Gantogos Gantumur) 프로젝트 매니저를 파견해 업무협약을 맺고, 몽골 성긴하이르구 게르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교육 및 저축그룹 조직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몽골 현지단체인 ‘CHRD(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와 협력해 울란바토르시 빈민촌에서 주민저축그룹 구축을 통한 주민 자조그룹 조직과 우부르항가이도(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약 9시간 거리)에서의 마을 공동체 센터 건립을 지원해왔다. 또한 마을 주민들 간 네트워크 기회와 역량을 높이고 마을 저축그룹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해 지역사회 자치역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바양주르흐구 게츠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축그룹 조직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성긴하이르구에 인포메이션 센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후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몽골의 울란바토르시 게르 24동은 전형적인 빈민촌으로 더 이상 유목생활을 할 수 없는 시골의 유목민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면서 울란바토르시 외곽을 둘러싸고 형성된 게르촌이다. 몽골 정부의 지역사회개발이 한없이 늦춰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아동과 노인이 많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특별한 사회복지 혜택이 없고, 대부분은 식당노동이나 일일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하루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7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게르 24동에 드림센터를 개관하고 도시빈민촌의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 대상의 방과후 공부방, 도서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 26일 몽골 드림센터에 강터거스(Gantogos Gantumur) 프로젝트 매니저를 파견해 업무협약을 맺고, 몽골 성긴하이르구 게르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교육 및 저축그룹 조직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저축그룹이 안정화되고 활성화된다면 아동과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CHRD는 몽골 태생 현지 NGO로써 1998년에 설립되어 지역 주민의 자치적인 힘으로 지역공동체 조직과 지역사회 개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빈곤가정, 장애인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 저축그룹 조직사업, 네트워크 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몽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빈민촌에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운영사업과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한 저축그룹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 혜택과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한국다문화센터, 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

5월 15일까지 다문화자녀 포함 참가팀 모집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이현정)는 6월 1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제6회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는 다문화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일반 자녀와 함께 어울리도록 돕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 열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합창대회는 50%이상 다문화자녀가 포함 된 중창단, 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다. 센터는 5월 15일까지 대회 참가팀을 모은 뒤 예비심사를 거쳐 행사 당일 본 대회를 치르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대상(상금 300만원)을 비롯하여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지도자상 등의 상장과 상금이 부여된다. 합창대회 참가를 원하는 팀은 (사)한국다문화센터(02-737-0467~8)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다문화센터 관계자는 “전국최초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인 레인보우합창단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초청공연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지난 해 열린 한국다문화센터 제5회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

인간의 길흉화복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혼들의 영향력 확인 천도법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내가영혼을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법. 환자와 가족이 확인

1 영가장애를 상담자리에서 영가가 누구인지 확인체험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가능
(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 확인)
3 인체오라장 (생명전기장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빙의 확인 치유과정 확인)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질환의 구분
(질병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5 보라색과 파란빛, 황금빛으로 영가들이 천도되는
것을 확인
6 암, 당뇨, 고혈압,중풍,치매,우울증, 불면증,공황장애,
트라우마, 빙의, 무속병, 환청, 환시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질환의 원인규법 (유전병 치유, 특이성 질환)
7 영가들의 수준확인
⇨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질병 호소
⇨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
⇨ 고급영가 – 내면의 깨달음에 대한 갈망
8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도 진도가 없는분
스님, 불자분, 포교원
9 기도명상,만트라진언,영언수련을 통한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삶의 가치확립, 영혼의 윤회 과정을
확실히 앎

검색 유튜브강의 자각선원 | 네이버카페 자각선원

자각선원 (인체전기파동의학) ☎ 043)296-5258.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원봉로 93

천하대도 자성과 마음을 열어 천부활력 만법을 담아 수행마장
귀신 · 잡신 · 빙의신 · 병마등 지부에 명부를 천부에 올려 건강
성불도통하는 령과육 · 혼이 하나로 되는 명부공사 천안통대법회

천부활력이란 내안에 주인공인 마음자리 생명의 본향을 알리는 운명과 수명을 관리하는 삼라만상 종교를 초월 관리하는 명부공사로 대도는 진법과 스승없이는 세울 수 없는 하늘땅 사람에게 감춰진 천부, 지부, 인부, 예단경, 금강진법사구계인 수,육,보,영,진종도, 민족업, 봉천명, 비법은 말과 글, 문자와 참선수행 종교를 초월 역대선지식님들도 풀지 못한 진법인 도, 고, 마성인 귀신 장난에 수행자나 스님 및 도인들도 철퇴맞아 병에걸려 수행자의 문전만 남기고 갈길을 가지 못하고 귀신장난인 령과 혼 그리고 령육이 하나로 되는 경신일 자오시에 빛으로 자신을 구하고 병겁을 넘어 비구, 비구니, 보살들도 종교를 초월하여 도통하는 정법안장 마음에 문을 여는 경신일 자오시에 천지개벽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안에 삼신과 오장육부의 대지진으로 자신을 이겨야 자성불의 빛을 보는 천지공사 개벽으로 도인, 신선, 선녀가 되는 의통 능력의 초 신통력을 얻는 천하제일의 도법인 불생불멸하는 무량광자로 일류스승 되는 가장 빠른 수행으로 신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해인도법의 잣대로 만유를 제도하여 마음의 두뇌를 여는 진법으로 지구촌 가장 빠른 수행자, 스님, 성직자, 도인들에 성불 도통하는 법 하늘, 땅, 사람, 자연, 귀신, 병마를 제도하는 법을얻는 신통조화 천만복만 개안통신 영육합일 도통하면 자신만이 부리고 자손에게 내려가지 않는 활연개오 수명연장 대도통법인 것이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 제 일 :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저녁 9시 (필기도구 준비)
■ 해 제 일 :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저녁 9시 무박 2일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10만원,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 상담전화 : 032)502-6625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의 3층 용천사 (부평 재래시장 입구)

유불선 천지공사 불선도 십경신 도통회 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종정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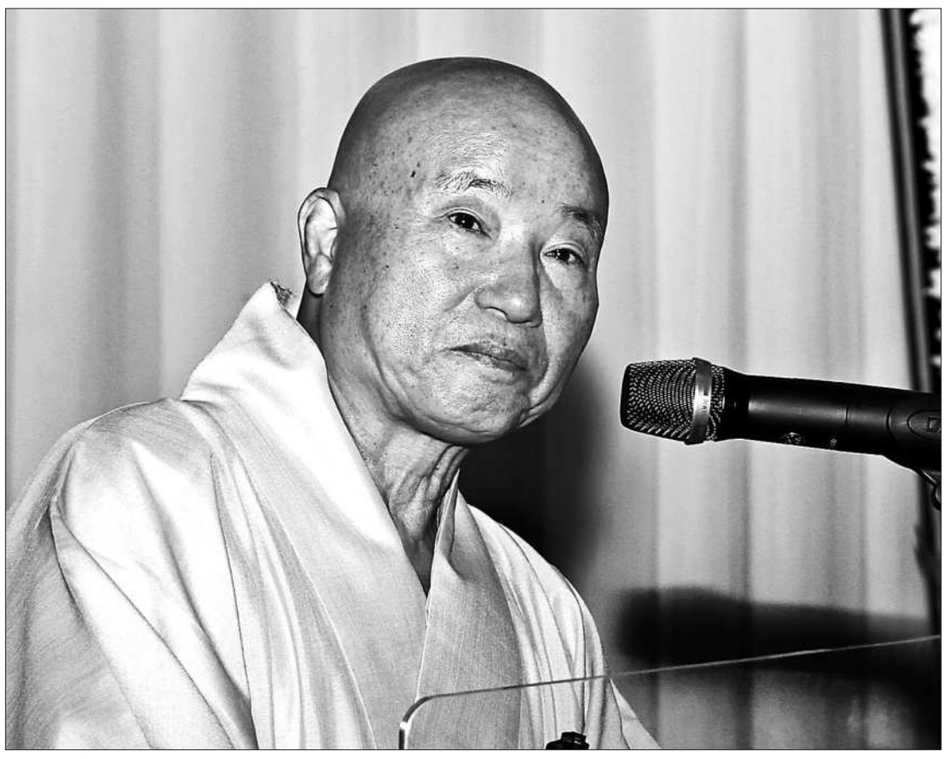
“중생이 자비심 일으키면 그곳이 복 밭”

조계사 일요법회 (주제 : 보시바라밀)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보시의 참된 행(行)은 보시바라밀이다. 베풂에 있어서 보답을 바라지 않고 기대하는 바가 없는 것이 보시바라밀의 실천이다. 만약 요행을 바란다면 보살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오 보시에 수많은 욕심이 따라 번뇌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법산 스님은 3월 15일 조계사 일요법회에서 〈열반경〉에서 이르는 보시바라밀에 대해 설법했다. 인간은 찰나의 순간에도 수백 수천의 번뇌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항상 마음속에 날카로운 지혜의 칼을 품고 흐트러짐 없이 살아야 하며 그로써 지혜 광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정리=박아름 수습기자



법산 스님은 … 1985년 6월 대만 중국문화대학에서 ‘보조선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1986년부터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25년간 스님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한국정토학회장, 정각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 2월 정년퇴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문답으로 풀어보는 불교입문〉 등이 있다.

번뇌란 잡고 있으면 병이 된다

“봄이오니 불탄 자리에 푸르게 잎이 피어나고/ 연기 나는 촌락에 황혼이 짙어오네./ 누가 아리오, 나귀 탄 중관자를./ 인간 세상에 놀면서 금봉에서 시험하는 것을.”

이 시는 조선시대의 중관 해안 스님의 시입니다. 스님께서 산에 올라 황혼이 짙은 마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관찰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귀 탄 중관자라는 말은 스님 본인을 지칭한 것입니다. 당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은 한 찰나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당나귀와 당나귀를 탄 사람은 넘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나귀가 오른발을 떼면 오른쪽으로 기울고 왼쪽을 떼면 왼쪽으로 기울고 나귀를 탄 자가 그 당나귀와 한 생각이 되어야만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행하는 중관자인 스님께서 마치 당나귀를 타고 가는 이 마음처럼 한 시도 흐트러짐 없이 항상 전전긍긍하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금봉에서 시험한다는 말은 칼끝에서 자신을 두고 늘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끝에서 항상 예리한 마음을 유지하며 자신을 방관하지 않고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고 혀로 맛을 보는 중에 항상 생각을 한데 모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야만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말도 할 말 안할 말 가리며 해야지 높은 음을 낼 자리에 낮은 음을 내어선 안 되고 낮은 음을 낼 자리에 높은 음을 내어선 안 됩니다. 내가 할 말이 어떤 말인지에 따라 외부에 무수하게 많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조심하며 상대방에게 조금도 자극이 되지 않도록 얘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과 소통을 잘하고 사회에 적응을 잘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시비가 생깁니다. 시비가 생기면 자신에게 손해이지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체 모든 생명에 조금도 충격이 가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순간순간 생각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스님들의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법문은 중생들의 마음에 꽂히어 번뇌와 망상을 도려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중관 해안 스님께서 가는 칼과 같이 항상 마음에 지혜의 칼을 두고 마치 당나귀를 타고 정진하듯 마음에 있는 번뇌와 망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사실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바로 도려낼 수 있는 지혜의 칼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번뇌란 잡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지내면 나의 화가 되고 해가 됩니다. 욕을 듣거든 한쪽 귀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중생들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정진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제가 절에 온지 5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외치며 목탁을 치고 간절하게 염원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관음정근 마지막에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옴 아로늑계사바하’ 라고 합니다. 지장정근에서도 ‘지장보살 멸업장진언’ 이라고 하지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업장을 소멸하겠다는 말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소멸하면 그 자리에 지혜의 광명이 꽉 들어찰 것입니다.

지혜 광명을 얻게 되면 어떤 현상을 보고 척 하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쓴 맛 단맛을 단번에 느끼듯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순간 당장 다른 마장이 끼어들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 광명은 마장이 끼어들 틈도 없이 발현이 되지요. 거울은 사람이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잘된 것은 잘됐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비춰주는 것이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갈고 닦은 아주 예리한 칼날에서 나오는 지혜의 초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는 모든 수행 정진은 바로 지혜로운 생각을 갖자는 발심에서 시작됩니다.

쌀은 불려서 찌면 밥이 되고 빻아서 치대면 떡이 됩니다. 떡 중에서도 무엇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절편이 되기도 하고 인절미가 되기도 하며 시루떡이 되기도 하지요. 쌀은 하나지만 쌀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물이 커피가 되기도 하고 홍차가 되기도 합니다. 중생의 본래 마음은 이러한 쌀과 물과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업이 어떤 방앗간을 거쳐 나왔는 가에 따라 마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모습은

> **“당나귀를 탄 사람은 찰나도 방심 못해**
> **날카로운 칼 끝에 예리한 마음 유지해야**
> **생각에 따라서 업의 모습은 달라져**
> **걱정과 근심 소멸하면 지혜 광명 얻어**
>
> **자비심 기르면 무한한 선행 가능**
> **진실한 생각이 곧 자비심이요 여래불”**

자신의 마음 모습이나 외부적인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업의 모습이 달라지니 현재 일념에서 잘 판단하여 업장 소멸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과 참회는 있을지언정 후회는 하면 안 됩니다. 돌이켜 스스로를 반성하며 앞으로 행동에 귀감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남 탓하고 원망해봐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찾고 다스려야 합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 자기 마음의 등불과 지혜를 스스로 밝혀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뒤떨어진 인간이 되어 복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남에게 천대받고 무슨 일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하는 사람은 어떤 생명이든 모두가 마음의 번뇌를 소멸시키고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벗어나고 삼계를 이루어 정토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 주위에 있으면 그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입니다.

자비심 기르면 한량없는 선행 행할 수 있어

열반경에서 이르길 “보살이 보시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러므로 보시를 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받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누굴 도와줬다고 해서 상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을 내면 안 됩니다. 가진 게 많다는 것은 상을 낼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돈이 많은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조금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을 무식하다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내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똑같이 맑고 밝고 아름다운 자비의 광명 지혜가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보시해야 합니다.

금강경 마지막 구절에 보면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여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있는 그대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견지가 분명하여 남이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즉 보시를 했다고 하여 교만하거나 은혜 갚기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주고 싶은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중생을 교화함에 있어서도 사람에 차별이 있어서 안 됩니다. 어떤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물을 대함에 있어 차별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거나 선지식이거나 선지식이 아니거나 따져서는 안 됩니다. 〈지장십륜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십바라밀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열 가지 악한 일을 하지말고 열 가지 착한 일을 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토대로 상대방이 혹시 잘못됐다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에 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보살은 보시를 함에 있어서 만약 계행이나 그 결과를 따진다면 끝내 보시를 이루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차별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으로 보시할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것입니다.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 바라밀다를 갖출 수 없고 보시 바라밀다를 갖추지 못하면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시가 제일입니다. 베풀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보시를 할 때에는 평등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항상 중생을 자식같이 여기라고 하셨지요. 병든 중생을 보면 부모가 병든 자식을 대하듯 가엾게 여겨 보살펴주고, 즐거워하는 중생을 보면 병든 자식이 나은 듯 기뻐하고, 보시하는 자식을 보면 자식이 다 커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듯 즐거워해야 합니다.

보살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보시 한다면 다음의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보시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하는 것이니 이 인연으로 중생들이 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얻어 지이다. 바라건대 중생들이 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삼고 애욕의 음식을 찾지 말아지이다. 모든 중생들이 지혜를 완성하여 근심 없이 착한 일을 성취하여지이다. 모든 중생들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 허공과 같이 근심 없는 몸을 얻어지이다. 바라건대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일으켜 복 밭이 되어 지이다.”

이 같은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보살과 여래 부처님은 자비심이 근본이 되는 것이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없는 선행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가 무엇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냐 묻거든 자비심이 그 근본이라 대답합니다. 열반경에서 이르길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곧 여래 부처님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교경〉에서도 욕심이 적으면 행복한 것이라 했습니다. 욕심을 구하는 사람은 계산과 이익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그런 근심이 적다했습니다. 욕심이 적다는 말은 과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익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장사를 해도 이윤을 남길 만큼만 남기면 욕심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남기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지요. 욕심이 적은 사람은 아첨으로서 남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으며 ‘색성향미촉법’에 쉽사리 이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곧 열반을 얻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 욕심이 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꽃향기가 바로 내 마음의 향기라는 것을 되새기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24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24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공고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부분

시 상 내 용		인원	상 금
학술상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뛰어난 학술연구저서(역주 포함)를 출간하신 분 심사대상 : 최근 2년이내 출간 된 학술연구저서	2명	각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 (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심사대상 : 최근 2년이내 실적물		

2. 시 상 일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3. 후보자 제출서류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 1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 1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 …… 1부

4. 접수처 및 접수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3, 10동 401호(서초동) 재단사무국(우:137-877)
② 접수마감 : 2015년 6월 30일(화) 까지
③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E-mail접수 : runner333kr@naver.com

5. 수상자 발표

2015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521-9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간화선 속에 심리치료 효과 들어있다"

인도철학회 춘계학술대회… 이필원 교수 분석 발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평가받는 간화선의 심리치료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이필원 동국대 파라미타칼리지 교수는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인도철학의 명상심리' 학술세미나에서 '간화선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간화선으로 필두되는 선심리치료의 영역을 고찰했다.

이 교수는 먼저 간화선 관련 논문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00년 이전 간화선 논문은 연평균 1편이 채 되지 않지만 2003년부터 큰폭으로 증가해 2005년 이후에는 매년 15.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선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응용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표된 간화선 관련 논문은 198편에 달한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중 치료효과나 체험에 대한 분석적인 논문은 6편에 불과하다"며 "192편은 특정인물의 선사상을 규명하거나 선문헌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심리학적 방법을 통한 심리치료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은 3편에 불과하다"며 "간화선이 지닌 심리치료적 효과성에 대한 논문은 국외에서도 드물어 1979년 MBSR프로그램 개발 이해 불교명상의 심리치료 효과는 남방 위빠사나 수행 일변도로 연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를 간화선이 갖고 있는 내적 한계에서 찾았다. 이 교수는 "간화선은 화두를 명확히 타파한 스승이 없이는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2000년 이전 간화선 논문 년 1편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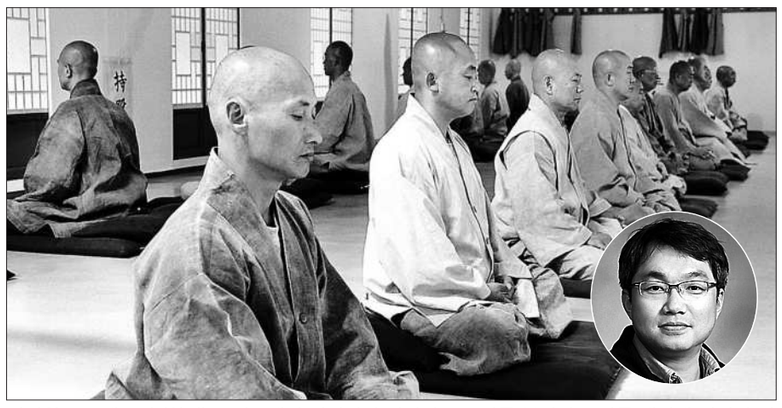
2005년 이후 매년 평균 15.3편 발표돼

지금까지 발표된 간화선 논문 총198편

"스승과 제자가 일대일로 화두를 풀고 점검해 주어야 하기에 대중화 되기에 제약이 따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간화선이 지닌 심리치료 효과는 탁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선행 논문을 검토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간화선을 통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짜증과 분노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보는 것이 도출됐다"며 "간화선의 화두가 분별을 끊어주는 기능이 있고, 분노나 슬픔과 같은 감정으로부터 생각을 자각해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필원 동국대 교수(원안)는 발표에서 간화선의 심리치료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불건강함"이라며 "심리학의 관점에서 간화선을 잘 살핀다면 현대인들에게 불교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인도철학회(회장 정승석)가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소장 안성두)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는 △문진건 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심리학과 교수의 '트리구나(Triguna) 설의 심리학적 적용문제' △박기열 동국대 박사의 '락(樂) 따위의 심리현상에 대한 불교인식론의 논증', 김재권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유식학적 기반으로 본 명상심리 고찰'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가 '불교대치명상의 심리치료에 대한 고찰' △심준보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의 '쉬바파 일원론의 명상수행 체계 연구' △안필섭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이 '요가경의 수행체계로서 대치명상의 범위와 효용성' 등이 각각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 배타성, 권력지향서 비롯"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화쟁아카데미서 지적

"개신교는 근대화 과정서 배타주의로 우경화 파트너가 됐으며 군사정권 하에 미국으로부터 특혜 받는 종교로 인식됐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 연구실장〉

"가톨릭은 스스로의 천사화에 빠지고 있다."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화쟁문화아카데미(대표 조성택)가 3월 28일 종로 사간동에서 개최한 종교포럼 '종교를 걱정하는 불자와 그리스도인의 대화'에서는 개신교의 배타주의를 통한 각 종교인들의 성찰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 연구실장은 '개신교의 배타주의와 타자의 악마화' 발표에서 "개신교가 근대한국의 역사 속에서 타자를 배척하고 악마가 누구인지를 지목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비판했다.

김진호 실장은 "유럽에서는 제국주의의 몰락과 함께 기독교의 배타주의도 반성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한국의 개신교는 도리어 배타주의의 폭력성이 가장 잔혹하게 발현됐다"며 "개신교는 한국전쟁 후 미국이 주도하는 우경화의 정치적 파트너로 활약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개신교의 교세는 놀랄 만큼 확장됐고 군사정권 아래 개신교는 정부보다 더 강한 존재인 미국으로부터도 특별한 수혜를 받는 종교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개신교가 여전히 사회 속에서 배타성에 대한 대상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개신교의 배타성은 시대에 따라 불교나 무속신앙에 대한 증오로,

개신교 배타주의 관련 성찰 잇달아

"불교 대응은 냉소와 수동적 반응 뿐"

혹은 성소수자나 무슬림에 대한 증오 등으로 발현되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더욱 퇴행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실장은 끝으로 "예수와 바울은 배제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체제와 싸웠으나, 현대의 정통파 기독교는 예수와 바울이 아닌 그들이 싸웠던 체제를 닮아가고 있다. 오늘날 한국개신교를 걱정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3월 28일 열린 화쟁 아카데미에서 조성택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논평에서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은 "개신교가 타자를 악마화한다면 가톨릭은 자신을 천사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리를 가진 종교의 교인이 왜 악마를 만들어내는지 묻고 싶다"며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격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성택 화쟁문화아카데미 대표는 "배타주의의 핵심이 증오라면, 증오의 이면에는 열정적인 사랑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는 근대 한국에서 부정적 영향만큼이나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며 "이에 반해 불교가 보여준 것은 냉소와 수동적인 반응 밖에 보여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정체성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성택 대표는 "불교는 배타주의를 전면으로 드러낸 적이 없지만 역사 속에서 주류종교로서 기능하지 못한 탓이 클 것"이라며 "권력과 관계한다면 불교도 배타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권위와 권력은 다른 의미로 불교 내부적으로 종교적 권위가 떨어지고 많은 승단 내의 문제들을 세속법에 기대어 처리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며 "세속법으로서 종교적인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역으로 종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화쟁아카데미는 4월 25일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의 '가톨릭의 권위주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070)8872-2023 노덕현 기자

포항 보경사 금당인 적광전 보물 지정

조선 숙종 때 중건…정교한 사자상 조각 등 가치 높아

문화재청은 경북 포항시 보경사의 금당인 적광전(寂光殿)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68호로 지정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적광전〈오른쪽 사진〉은 조선 숙종 3년(1677)에 중창한 것으로 추정되며,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多包系 · 기둥 상부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양식) 맞배지붕 건물이다. 신방목(信防木 · 문기둥 밑에 놓이는 부재)은 보통 둥글게 만들고 태극문양 등을 새기는데 적광전 신방목엔 사자상이 조각돼 있다.

문화재청은 "초석 등은 전형적인 통일신라기 건축 기법을 보여준다"며 "신방목은 국내에선 유례가 드물고 조각도 정교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에선 잘 보이지 않는 측면 공포가 있고, 다포계 건물에서 흔히 보이는 우물 정(井)자 모양 천장인 우물반자를 설치하지 않고 서까래를 그대로 드러낸 연배천장으로 처리한 점도 특징이다. 보경사는 신라 진평왕 25년(602) 진(陳)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지명 법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덕현 기자

"외국 박물관 소장 우리 문화재 한 눈에"

국립중앙박물관, 7개국 24개 박물관 1만점 바로 확인 서비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3월 30일부터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프랑스 국립기메아시아박물관 등 7개국 24개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재 온라인 공개 DB 연계 페이지를 박물관 누리집(http://www.museum.go.kr)에 마련,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페이지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전시' 메뉴 내 '외국 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에서 접속할 수 있다.

이 메뉴에 접속하면 각 박물관이 온라인으로 공개한 1만 여 점의 우리 문화재를 검색 과정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문화재의 전시 · 활용 현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웹진인 뮤진(MUZINE)에 소개된 현지 큐레이터들의 인터뷰 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연결했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출간한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 전자 파일(PDF)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에 있는 한국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외국 박물관이 소장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문경 봉암사 등 흰개미 조사 착수

문화재청 5개년 계획 마지막 단계…충청·경북 9개 사찰 및 63개소

여름철 본격적인 흰개미 활동을 앞두고 문화재청이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예방 및 사전조치에 들어간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협약기관인 '삼성 탐지견센터'와 공동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목조 문화재 흰개미 피해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2014년까지 258개소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올해 63개소를 끝으로 중요 목조 문화재 총 321개소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이번에 흰개미 조사 대상은 문경 봉암사를 비롯해 김천 직지사, 예천 용문사, 부여 무량사, 홍성 고산사, 경산 환성사, 영주 성열사, 청도 대비사 등 9개 사찰을 포함한 63개 목조문화재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흰개미 탐지는 흰개미 탐지견이 서식지를 탐지하면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팀이 내시경 카메라 등 검측 장비로 흰개미 서식 여부와 서식 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덕현 기자

青雲天氣轉換秘法(청운천기전환비법)

한국풍수지리사상 처음으로 조상 묘(墓)의 수맥파를 이장(移葬)없이 생기(生氣)의 명당(明堂)으로 전환시키는 청운천기전환비법(靑雲天氣轉換秘法) 탄생(誕生)!

조상의 묘(墓)로부터 음기(陰氣)의 수맥파가 자손의 혈맥(血脈)으로 흘러 냉기(冷氣,저체온)를 유발시켜 각종 암, 우울증, 정신분열, 빙의, 성인병등 난치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현대의학에서는 가족력이나 유전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집안에도 음기(陰氣)인 유해파를 생기(生氣)로 완전히 전환(轉換)시켜야 보다 빠른 치유와 사업성취가 가능(可能)하다는 것이 소승(小僧)의 오랜 시험(試驗)으로 입증(立證)되고 있습니다.

선친이나 자매, 형제 중에서 같은 암(癌)이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나 사업부진, 가정불화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필히 조상의 묘(墓)나 본인이 직접 수맥파 검사를 받으셔서 (현장 방문없이 전화상담으로도 확인가능) 조상묘(7대까지)의 백골(白骨)에서 자손의 혈맥(血脈)으로 흐르는 수맥파를 직접 확인하여 유해파로 인한 음기(陰氣)의 조상의 묘(墓)를 이장(移葬)없이 현장에서 즉시 생기(生氣)의 명당(明堂)으로 모시고, 가족건강과 가정평화를 이루시고 조상(祖上)께 효도(孝道) 하십시오!

건물, 가정의 수맥파도 현장에서 100% 차단!

만약 당신이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잔다면
당신은 이미 병(病)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번지 / 전화 031-595-8767

善財寺 靑雲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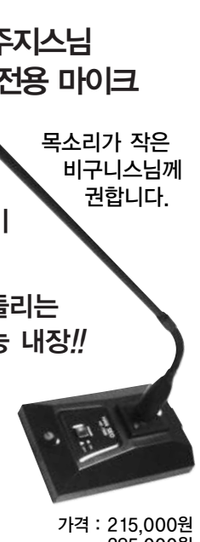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송광사 빛가람혁신도시서 도심포교 전개

760평 종교부지 매입 완료… 1250명 불일행자 모집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나주에 새롭게 들어설 빛가람혁신도시에 송광사가 포교도량을 마련하고 신도시 포교에 나선다.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는 최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 있는 종교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종교부지 매입은 새롭게 건설하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새로운 포교공간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에서 30여분 거리인 나주시 금천면 일대 220만평에 인구 5만여 명이 상주하는 전원도시로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집적화된 교육시설 등을 갖춘 자족형 도시다. 이곳에는 이미 이전된 한전 본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의 공공기관 임직원 6,600여명이 기거한다.

혁신도시에는 4개의 종교부지가 있으며 이미 천주교, 기독교에서 종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전체 17,943세대(24평~32평 16,003세대 / 40평 초과 1,940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2015년까지 4,252세대가 입주를 완료한다.

송광사가 매입한 종교부지는 매화제라는 저수지 옆 전체 760평 규모로, 인근에 우정사업정보센터와 근린생활주거지, 매성초 · 중 · 고교가 자리해 있다. 특히 매화제 옆에 1,7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기에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지역민을 위한 중요한 포교당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300억 예산 소요 예정
땅 1평 사기 운동 전개

송광사의 종교부지 매입은 지난해 겨울, 혁신도시 개발담당자들이 송광사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나주 혁신도시 토지를 분양 중이었고, 종교부지 4곳 가운데 기독교, 천주교각 각각 한 곳씩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

기관 담당자들이 광주전남지역 사찰을 방문해 종교부지를 홍보하던 중이었다. 송광사는 이후 대중스님들의 논의와 임회 승인을 얻어 계약을 진행했다.

종교부지 계약체결과 함께 송광사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조계총림 포교도량 건립 불사' 를 시작했다. 이번 포교당 건립불사에는 총 300여 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송광사는 재정확보를 위해 '땅 한 평사기, 1250인 불일행사'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천 송광사가 포교당 불사를 통해 도심포교에 나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조감도

'1250인 불일행사' 는 부처님 제세 시 1250여 비구가 뜻을 함께 해 불법을 이은 것에서 기원한다.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빛가람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영산강 르네상스를 선도할 미래형 도시"라며, "명품 신도시에 맞는 포교도량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빛가람 혁신도시에 사찰을 건립하는 불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광사 측은 "보시한 한 평의 땅은 불국토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땅 한평 사기 운동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출가열반절 특별정진기도



출가열반 주간을 맞아 완주 송광사가 특별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3월 27일부터 4월3일까지 8일간을 '출가열반절 특별정진기간' 으로 정하고 지장전에서 중론독송 법회를 진행했다.

3월 27일 입재식에 이어 정진에 참여한 대중들은 용수보살의 〈근본중송〉을 독송했다. 이어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전 해인사 승가대학장)의 근본중송 강의가 진행됐다. 정진 회향일인 4월 3일에는 부처님의 생애가 함축된 영상물 시청 등이 진행됐다.

한편, 완주 송광사는 법진 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대승기신론을 교육하는 불교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로다회, 아름다운 茶 나눔 봉사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 백로다회 차문화봉사단은 3월 26일 고창군 아름다운마을에서 차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백로다회 차문화봉사단(단장 김봉애) 1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이번 봉사에서는 다도의 기본 예절교육이 진행됐다.

아름다운마을 이금자 원장은 "아름다운마을 가족들에게 인성적으로나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문화봉사단 백로다회는 아름다운마을 봉사활동 이외에도 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다도예절교육, 고창청보리밭축제, 모양성축제, 동리대상 헌다례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가족, 한국 전통문화를 만나다



(사)착한벗들(대표 회일)은 3월 28일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정읍 송참봉 조선동네, 우도농학전수관 등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조선시대 전통혼례체험, 풍물공연 감상, 풍물악기 배워보기 등이 진행됐다.

답사기행에 참여한 김미화(중국) 씨는 "한국에 이주한지 10여년 동안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없다시피했다"며 "한국전통문화 체험이 아이들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벗들은 이번 전통문화답사기행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감상이 담긴 '답사기행문' 을 책자로 펴낼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학생을 위한 사찰음식 강좌 인기

대학생들을 위한 사찰음식 강좌가 개최됐다. 광주 법림사(주지 무진)는 3월 26일 전남대 공과대학 강의식에서 '무재칠시(無財七施) 사찰음식 체험' 강좌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봉축 공모행사 일환으로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혜공)의 후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친숙함과 건강 먹거리를 대학생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체험강좌다.

강좌는 △4월 9일, 토마토화채 · 죽순정과 – 지홍스님 △4월 16일, 연잎밥 · 곤드레밥 – 천수봉 강사 △4월 30일, 연근 · 무 시루떡 – 정현진 강사 △5월 7일, 모주 · 식혜 · 조청 – 고원후 강사 △5월 14일, 연근수수부꾸미 · 연근 도토리 호떡 – 이금일, 류태종 강사 등이 진행된다. 7번에 걸쳐 진행된 강좌는 5월 23일 광주지역 연합으로 진행되는 봉축행사 기간에 시연회로 막을 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1회 소요산 자재암 108문화제



소요거사로 불린 원효 스님의 설화가 전해지는 소요산 자재암〈사진 위〉 일대에서 108문화제가 열린다.

동두천시 문화원은 4월 18일 소요산 자재암 108계단에서 108문화제를 개최한다. 4월 18일은 1월 1일부터 108일이 되는 날이다.

108문화제는 108계단을 오르며 새해 모든 번뇌를 극복하고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행사다. 행사에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장영미 시의장 및 시 관계자들과 자재암 주지 혜만 스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08계단 끝인 원효바위에서는 108참회문을 낭독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올 해 처음 개최되는 108문화제를 지역 대표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경기의 소금강인 소요산을 홍보하고 자재암을 찾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신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동두천의 대표 관광지인 소요산을 신앙과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35사단 군종병, 완주 송광사서 템플스테이


3월 25~28일 열린 완주 송광사 템플스테이에서 군종병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육군 35사단 호국 충국사(주지법사 성원 김대성)는 3월 25~28일 3박4일의 일정으로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에서 군종병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35사단 예하부대 군종병 19명이 동참한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예불, 발우공양, 연꽃 등 만들기, 반야심경 1자1배 사경, 나만의 108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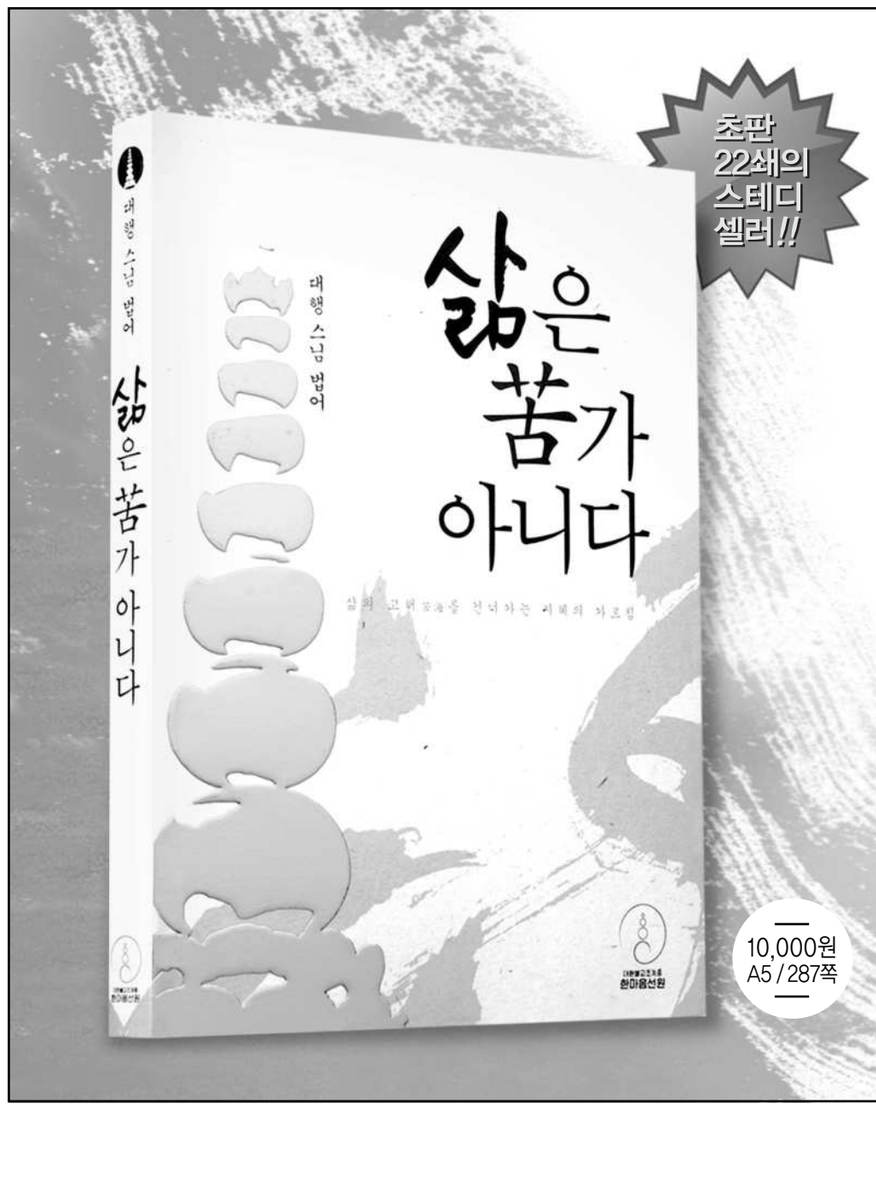
군포교 현장에서 군종병은 법사가 없는 법당을 관리하는 핵심 포교사다. 이날 템플스테이에서는 포교사로서의 군종병의 사명과 역할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은 "유일하게 새로운 불자, 남성불자, 젊은 불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군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성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35사단 성원 김대성 법사는 "현장 포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종병들이 사찰문화를 접하고 동료 병사들에게 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 송광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35사단 호국 충국사에서 정기법회와 수계법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실 6탄약창과 육군 부사관학교 법당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苦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십시일반 정성 모아 수좌스님 정진 후원

전국선원수좌후원회 11년간 후원 활동

11년간 소리 소문 없이 선원수좌들을 도와온 단체가 있다. 바로 전국선원수좌후원회(회장 허태암)가 그 주인공이다. 전국선원수좌후원회는 2004년 전국 수좌 스님들을 지원하고 재가자 포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단체다. 3월 30일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전국선원수좌후원회 사무실을 찾았다.

전국선원수좌후원회 허태암 회장과 회원들은 4월 1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신규회원 모집 방안과 후원 선원 선정 등 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허 회장은 "선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우리 불교의 근간입니다. 참 모습이죠. 스님들의 공부를 돕고 후원하는 공덕을 저희만 가져가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전국선원수좌후원회는 250여 정기회원과 후원자들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안거중인 스님들께 전달해왔다.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국 100여개 선원에 전달한 총금액은 9000여 만원이 넘는다. 특히, 4년 전부터는 전라도 지역 선원에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전해왔다.



지난 11년 동안 후원금 전달식을 따로 개최하지 않은 전국선원수좌후원회는 2011년 딱 한번 봉암사를 방문해 법문을 들은 것이 전부다. 사진은 사찰 참배 당시, 봉암사 스님에게 사찰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

100여 선원에 9000여 만원 후원
스님들 정진 배려 일체 행사 생략
17일 정기총회 갖고 회원모집 박차

허 회장은 "부산 경남과 달리 여타 단체들의 후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모든 결의는 이사회에서 모여 철저히 논의 한 후 시행하며 후원금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설명한다.

현재 전국선원수좌후원회는 회원 1구좌당 5000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작은 금액이라도 십시일반 모아 수좌 스님들을 돕고자 합니다. 물론 큰 보시금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죠. 하지만 스님들의 공부를 돕는 큰 공덕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목표는 시장 상인도 택시 운전사도 또 이웃의 다른 누군가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원자들이 정진하는 스님들을 통해 불교의 참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후원의 취지를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기 후원자들에게 포교문서용 유인물을 보내 신심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산사순례 및 정기 산행 등도 개최하고 신입 회원들을 불교대학 경전 공부로 이어주기도 하며 요양원 정기 봉사 활동도 이어왔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선원수좌후원회지만 기본 원칙이 있다. 바로 수좌스님들을 위해서는 일체의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11년간 단 한 번의 전달식도 없었고 사진도 남기지 않았다.

허 회장은 "스님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조용히 찾아가 후원금만 전달하거나 묵언 수행에 동참하며 10분 정도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 전부죠. 이마저도 방해가 될까 은행 계좌이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딱 한번 봉암사 스님께 법문을 청해 들은 것이 행사라면 행사라고 해야 할까요. 열리기 힘든 산문인데 정말 운이 좋았고 뜻 깊은 시간이었죠."

(051)867-9922 하성미 기자

'범어사 성보' 시민들 만나러 세상 밖으로

3월 31일 범어사-부산시립박물관 협약식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과 부산시립박물관(관장 박방용)이 3월 31일 부산박물관 회의실에서 2015년 특별기획전 '천년고찰, 범어사' 공동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범어사 성보 박물관과 부산 박물관은 특별기획전 '천년고찰, 범어사'를 7월 20일~9월 13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는 제1부 '불국토 범어사를 거닐다' 제2부 '공덕과 장엄을 만나다', 제3부 '역사 속 범어사에서 길(道)을 찾다' 등 3개 테마로 구성된다.

각 테마는 범어사의 창건과 중창, 범어사의 불상 · 불화 · 전적(典籍), 임진왜란과 근 · 현대 범어사의 사회적 역할 등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삼국유사(보물 419-3호)' '불조삼경(보물 1224-2호)' '주범망경(보물 894-2호)' '사천왕도(부산시 유형문화재 51호)' 등 중요 유물 108점이 공개된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이정은 학예연구실장은 "전시와 더불어 범어사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고찰하는 강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박물관과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7월 20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하는 '2015년 특별기획전 '천년고찰, 금정산 범어사'의 공동 개최를 위한 전시 협약을 3월 31일 체결했다.

부산불교교육대 동문 모임 '화엄승가회' 발족

부산불교교육대학 동문 출신 스님들의 모임 '화엄 승가회(회장 자인)'가 3월 27일 부산 수영화목뷔페에서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화엄 승가회장 자인 스님, 수석부회장 자비암 자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명이 모였다.

부산불교교육대 동문 중 출가 한 스님은 60여명에 이른다. 화엄승가회는 그 중 30여 스님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전국 불교대학 중 최초로 구성된 동문 승가 모임이다. 화엄승가회는 앞으로 동문지원, 대불련 인재 불사, 각 사암별 포교활동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나 갈 계획이다.

이날 창립법회는 회칙 승인, 임원 소개, 회장 인사 부산불교교육대학 장학금 전달, 대학교불교동아리 지원금 전달, 화엄승가회 청규선서 등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화엄 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을 지원해 동문을 이끌고 부산대불련에 지원금을 매달 전달해 후원하는 등 인재불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매달 화엄 승가회 소속 사찰을 방문하고 사찰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포교를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시대적 아픔을 돌아보고 위로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 참사 1주기 위령제'를 4월 13일 팽목항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수행 정진 법회, 초청 법문, 국내외 문화교류를 위한 친선 교류도 마련한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교육대학 동문 출신 스님들로 구성된 '화엄 승가회'가 3월 27일 출범했다.

지수 대종사 11주기 추모비 제막식

3월 28일 직지사 중암서

김천 직지사 중암(주지 도진)은 3월 28일일 '관응당 지수 대종사 11주기'를 맞아 추모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문도어른 덕혜 스님, 중암 주지 도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관 스님, 정각회 부회장 주호영 의원, 한국난정필회 박정규 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지난해 부도탑 제막과 오늘 제막비 조성까지 이재영, 박정규 장인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부도와 비석의 제작, 조성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명대 세계선센터 인성프로그램 실시

동명대(총장 설동근) 동명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가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4월 11일 · 25일과, 5월 9일 · 23일 총 4일간 아동복지시설 해바라기그룹홈(사하구 당리동, 시설장 조규옥) 어린이 7명을 초청해 시행한다. 각 프로그램은 오전10시~오후 2시까지 차문화와 명상, MBSR, 다도의 기본예절로 전통문화와 생활규범을 체험한다. 강사는 이영희(차문화와 명상), 조인숙(MBSR) 교수가 맡는다.

재학생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마음챙김 명상(조인숙 교수), 차문화와 명상(이영희 강사), 몸짓 명상(윤나영 강사), 오감 명상(김안나 강사)등이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세계선센터(동명관 4층)에서 진행되며 기간은 3월 30일~ 6월 4일 홈페이지(http://up.tu.ac.kr)에서 신청가능하다. 010-3949-2400 하성미 기자

조동종 천안함 참사 5주기 추모식

3월 29일 평택 해웅사 대웅전서

(사)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천안함 참사 5주기를 맞아 3월 29일 평택 해군2함대 해웅사 대웅전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동종 부종정 덕룡 법공 스님, 총무원장 덕우 대은 스님, 종회의장 행봉 해륜 스님, 감찰원장 행성 덕성 스님, 문화원장 보경 스님, 2함대 사령부 해웅사 법사 법종 스님,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부종정 덕룡 법공 스님은 추모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故 한주호 준위를 비롯한 천안함 46명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덕우 대은 스님은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아미타부처님이 계신 극락정토로 천도하기 위해 장엄한 법석을 조동종 불자님들과 한마음으로 마련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청운 경남지사장



(사)대한불교조동종은 3월 29일 천안함 참사 5주기를 맞아 추모재를 진행했다.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2015 연등 특별공급 (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세로거치형 현수막
▶종이등표
▶종이주름등
▶봉축 리본
▶지하철현수막
▶어깨띠
▶법보시 염주
▶비닐만월등(연꽃/일반)
▶봉축현수막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고급 칼라연등 : 진분홍, 연분홍, 보라, 다홍, 오렌지 8cm
▶설화등 : 다홍, 연분홍, 진분홍, 오렌지, 보라 8cm
▶가야 궁단등 : 연분홍, 오렌지, 진분홍, 다홍, 보라 8cm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꽃망울 톡톡 터트린 매화들 야단법석 도량

봄꽃이 아름다운 사찰

② 양산 천태사



매화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 전령사다. 천태사 경내는 매화를 비롯해 벚꽃, 동백 등 온통 화엄법계를 이루고 있다.



고즈넉한 천태사 대웅전과 경내모습



16m크기의 초대형 마애아미타대불이 웅장하다.

원효대사 창건, 경봉 스님 등 당대 고승 주석

16m 크기 초대형 마애석불 감탄사 '연발'

병풍처럼 펼쳐진 암벽아래 위치, 웅연폭포 일품

천수천안 관음보살 굴 불사 한창, 5월 완공법회

해마다 3월말이면 매서운 추위를 이겨낸 매화나무가 곱게 꽃망울을 시샘하듯 앞다퉈 터뜨린다. 매화는 춘화중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 전령사다. 겨우내 모진 삭풍과 한설(寒雪)을 견디며 꽃망울을 부풀린 매화나무는 봄기운이 퍼지는 3월 초부터 하나 둘씩 꽃부리를 펼친다. 사람들은 꽃샘바람 속에서 피어난 매화의 절개와 그윽한 향을 느껴야 비로소 상춘을 실감한다. 이를 사진에 담기 위해 몰려드는 사진가들과 상춘객도 적지 않다.

매화의 명소는 전국에 꽤 있다. 그중 낙동강변 한 작은 마을은 이맘때쯤 눈부신 화엄법계로 탈바꿈한다. 흔히 '원동 매화마을'이라 불리는 경남 양산시 원동면 원리가 그곳이다. 뒤로는 토곡산(855m)에 등을 대고, 앞으로는 낙동강 도도한 물길을 굽어본다.

이 마을 주변의 산비탈과 강 언덕, 논두렁과 밭둑, 민가와 기찻길 옆은 매화가 만개할 때면 흰 눈이 내린 듯 온통 새하얗다. 낙동강 바람이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 때마다 때아닌 눈이 흩날리곤 한다.

원동면 원리 일대 매화밭은 70여 년 전인 일제강점기에 처음 조성됐다. 날씨가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양지가 대부분이라 매화나무를 재배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한다. 원리에 속한 여러 자연부락 중에서도 원동, 관사, 삼정지 마을에 매화밭이 많다. 특히 바로 옆에 낙동강 물길과 KTX 열차가 질주하는 경부선 철길을 끼고 있는 삼정지마을의 순매원 풍광이 가장 인상적이다. 순매원 뒤쪽의 1022번 지방도변에서는 매화밭, 경부선 철도, 낙동강 물길이 하나로 어우러진 진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오랜 옛날의 원동은 신라와 가락국의 국경에 자리했다. 당시 육로와 뱃길을 감독, 관리하는 작원관원(鵲院關院)이 자리잡고 있어 '원이 자리한 마을(洞)'이라는 뜻의 '원동'으로 불리게 됐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한양-충주-문경새재-청도 등을 거쳐 부산동래까지 이어지는 영남대로 길목에 자리잡은 교통의 요지였다. 최근 옛 모습으로 복원된 작원관 건물은 원래 관리들의 숙소 겸 검문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다. 낙동강변의 작원나루를 오가는 사람과 화물에 대한 검문도 여기서 했다. 유사시에는 낙동강을 거슬러오는 왜군을 방어하는 요새로도 활용됐다고 한다.

밀양시 삼랑진읍과 양산시 원동면에 걸친 천태산(630.9m)은 천태호를 품고 있으며, 이 곳에 천년고찰이 계곡을 끼고 둥지를 틀고 있다. 바로 천태사이다. 이 사찰은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경보 · 대휘 · 경봉 스님 등 당대 고승들이 주석했던 유서깊은 곳이다. 특히 천태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때 밀양부사 박진이 이 일대에서 왜적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퇴각한 슬픈 역사가 전해진다.

고갯길 중간 병풍처럼 펼쳐진 암벽 아래에 위치한 천태사는 고풍스런 멋은 그리 느껴지지 않지만, 주변 암봉과 여러 건물이 조화를 이뤄 풍광이 수려하다.

또한 절집 위쪽 암벽서 40m 높이로 떨어지는 웅연폭포의 물줄기는 가슴을 뻥 뚫리게 할 만큼 시원스럽다. 천태사 경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무량수궁에 있는 16m 크기의 대형 마애불인 아미타대불이다. 자연 암벽인 20m에 새겨진 천태사의 대표적 성보다.

그 옆에 협시보살로 왼쪽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오른쪽에는 지장 보살상이 있다. 특히 무량수궁 왼편 바로 아래에는 '소원 석굴'이 있는데, 중창주인 주지 진우 스님이 천일 기도(하루 16시간 기도) 정진중 현몽 중에 발견한 자연불이라고 한다. 3월 30일 기자가 방문했을때는 무량수궁 오른편 아래에 천수천안 관음보살 굴을 만들기 위한 불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한달 뒤에 완공 기념법회를 연다고 한다. 무량수궁도 2009년 6월 28일 점안법회를 했으며, 2004년에 시작해 5년에 걸쳐 완공됐다. 그 앞에 가지런히 줄지어 펼쳐진 영탑도 장엄함을 연출한다.

무량수궁 불사에 대해 주지 진우 스님은 "먹고 즐기는데만 관심이 높은 중생들을 위해 방편적인 방안으로 마련했다. 불교는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하지만 상품화 할 줄을 모른다. 무량수궁도 불자들에게는 기도처로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불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벽을 파서 조성된 전각은 존자 독성각으로 독성존자, 나반 존자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양산 천태사=하성미 기자

주변 가볼만한 곳

▲양산 관사마을

관사마을은 원동역을 조금 지나 토곡산(해발 855m) 끝자락에 터를 잡고 낙동강을 굽어본다. 포인트는 관사마을 강변에 자리 잡은 '순매원'. 토곡산 자락 끄트머리를 휘돌아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과 S자형 기찻길, 순백의 매화나무가 한 몸처럼 어우러진 풍광은 이 땅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절경이다. 낙동강과 마을 사이를 비집고 들어선 기찻길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경전선.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통해 '우리나라 기찻길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았다. 이곳을 오가는 열차는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화물열차 등 하루 245편. 이중 원동역에는 무궁화호만 이 19회 정차할 뿐, 나머지는 강바람과 꽃향기를 흘날리며 그대로 내달린다.

▲원동 매화마을 설중매

3만3058㎡(1만평)에 조성된 농장은 100년생 매화나무 50여 그루를 비롯해 총 800여 그루가 순백의 꽃을 피워 외지인을 불러 모은다. 토종매실을 유기농으로 재배한 후 전통 옹기에서 숙성시켜 만든 각종 매실제품은 그 맛이 일품이다. 게다가 음력 설날을 전후해 방문하면 제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꽃을 피우는 이곳 유일의 '오리지널 설중매'도 볼 수 있다.

▲순매원

원동마을 삼정지에 자리 잡은 순매원은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매실농장이다. 삼정지란 과거 세 그루의 정자나무와 세 곳의 인가가 있다고 해서 얻은 이름. 순매원서 매화의 진가를 경험하려면 매화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어야 한다. 백매화, 홍매화가 무릉의 화원인 양 아름답다. 매화 송이를 곁에 두니 매혹적이다. 그 속에서 바람에 날리는 꽃비를 맞아야 매화 숲의 참 진가를 경험하게 된다. 구석구석 화려한 향기가 퍼진다. 꽃구름처럼 황홀한 자태도, 가슴 깊이 스며드는 향이 더해지니 비로소 빛이 난다. 강바람이 실어다 준 매화 향이 코끝에 와 닿으니 고혹적인 향기에 온몸이 아찔해진다. 빨리 걷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순매원에 가면 낙동강의 유장한 물길과 하얀매화, 그 사이를 질주하는 기차의 역동적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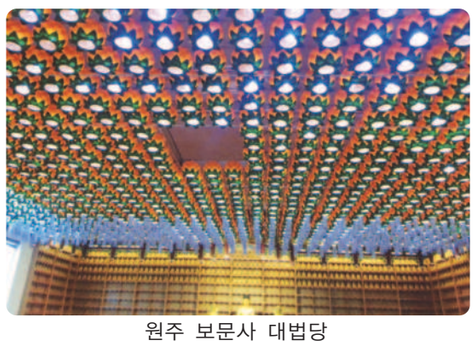
한 걸음 옮겨 사진을 찍고 또 한 걸음 옮기면 매화가 유혹하는 탓이다. 순매원에서는 매화 아래 앉아 국수 한 그릇, 막걸리 한 사발에 파전 한 조각을 음미하며 봄날의 정취를 즐겨야 한다. 특히 갖은 고명과 함께 양푼에 말아 내는 잔치국수를 먹는 것은 순매원의 필수 코스다. 맛보다는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다.

▲오봉산 임경대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그녀(전지현 분)가 "견우야 미안해. 나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 하고 외치던 장소가 순매원 가까이에 있다. 순매원에서 물금읍으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오봉산 임경대가 그곳이다. 오봉산 제1봉의 7부 능선에 위치해 낙동강과 그 건너편의 산, 들과 어울려 수려한 산천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 포인트다. 신라시대에 고운 최치원이 낙동강 물에 비친 산 모습을 보고 마치 거울 같다며 시를 읊은 것에서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20년의 경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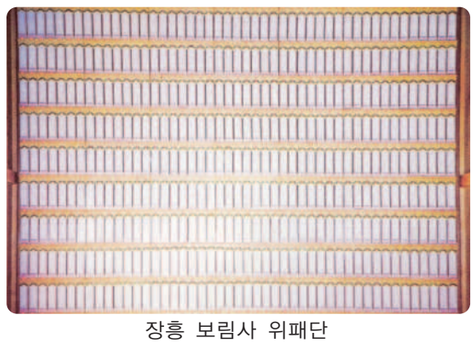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다섯 층은 동서남북 중앙의 평온 상징



〈사진1〉 5층석탑 초가유형인 탑리 5층모전석탑

탑의 진화

㉝ 오층탑

우리나라에서 국보로 지정된 31기의 불탑 중, 5층탑의 수는 무려 7개나 된다. 부여 정림사지5층석탑, 월성 나원리5층석탑, 의성 탑리5층석탑, 영양 봉감5층석탑, 월성 장하리 서5층석탑, 익산 왕궁리5층석탑, 그리고 팔상전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법주사5층목탑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에 불탑신앙이 수용된 이래 전 시대에 걸쳐 5층의 불탑이 조성된 연유는 과연 무엇일까? 문헌상의 확실한 기록을 찾을 수 없기에, 현재는 몇 가지 연관성을 유추하여 추측만 할 따름이다. 그 중 5층 불탑의 조성은 오방사상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방이란 동서남북의 사방에 중앙을 합한 것이므로 온 세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5층탑이란 5방위를 의미하여, 부처님이 온 세계에 항상 상주하고 계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호국사찰인 경주 사천왕사에 오방신의 벽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호국사상과 밀교사상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여에 있는 정림사5층탑은 이미 지난 연재에 다루었으므로 본 연재에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조성연대가 가장 이르다고 볼 수 있는 탑리 오층석탑〈사진1〉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

경북 의성군 금성면의 탑리에 위치하며 1962년에 국보 제77호로 지정되었다. 탑이 유명하여 탑리라 불리는 마을 언덕 한 가운데에 세워진 이 탑은, 전체적으로 벽돌을 쌓아 만든 전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전탑의 형식 뿐 아니라 목탑의 형식까지 하나의 탑에 모두 담겨있는데, 조화롭게 어우러진 여러 형식은 이처럼 독특한 모습의 석탑을 만들어냈다.

9.6m 크기의 이 탑은 전탑을 모방해 만들어졌다 해서 모전석탑(模塼石塔)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모전석탑의 시조인 경주 분황사탑과 같은 조성기법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붕의 경사면과 처마 밑이 모두 층급형을 이루고 있는 모양은 전탑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경주 분황사탑이 어두운 색을 띠는 안산암을 벽돌 크기로 잘라 쌓은 것과 달리, 탑리의 오층탑은 안산암보다 밝고 단단한 화강암을 좀 더 크고 층지게 잘라 쌓았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이 뿐 아니라 분황사탑 1층 몸돌에는 4개의 감실이 있는 반면 탑리 오층탑에서는 남쪽 면에 작은 감실 하나만 있다. 이것은 단순한 양식의 차이가 아니라, 중국의 전형적 전탑의 모습을 모방하는 데서 벗어나 7세기 이후 신라 석탑의 독자적 형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탑의 기단부에서는 삼국통일 시기에 형성되었던 초기 석탑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기단이 1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여러 개의 돌이 지대석과 기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탑리 오층탑이 이후 8세기에 성행하는 석탑 양식의 시초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신라의 석탑은 지난 호에서도 살펴보았던 감은사지석탑과 고선사지석탑 등으로 발전하여 조성된다. 이후 석탑의 기단은 단층이 아닌 2층으로 늘어나고, 탑의 층수도 줄어들며 좀 더 간결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지는 변화를 보인다.

조성 시기가 7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탑리의 오층석탑은 이처럼 전탑, 목탑, 석탑의 요소를 두루 갖추며 절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또 이러한 형식의 조화와 결합은 새로운 신라 석탑의 탄생으로 이어졌기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충남 부여의 무량사에 있는 오층탑〈사진2〉은 정확한 건립시기를 알 수 없으나 탑에 나타난 여러 양식을 조합해봤을 때,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높이 7.5m의 이 탑은 의성의 탑리 오층탑보다 규모는 조금 더 작은 편이지만, 여러 양식이 혼합되어 쓰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는 부여에 위치한 무량사의 오층탑이 지리적인 특성 상 백제탑의 영향을 받았고, 신라로부터 시대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백제탑의 우아함과 신라탑의 장중함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이 탑은 신라에 이어 고려 초기에 조성되었던 오층석탑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초기유형 모저석탑으로 출발
7세기 이후 신라석탑 독자형식
석탑 기단 3층으로 늘어나
석 · 목탑 양식에 밀교영향도

1963년에 보물 제185호로 지정된 이 탑은 부여의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매우 닮아있는 모습이다. 하층 기단은 땅에 묻혀 있어 확인할 수 없지만, 이중기단 위에 세워진 기둥 4개와 탑의 각 면 돌들은 모두 다른 돌로 이루어져있다. 탑의 몸돌을 받치는 역할의 갑석은 모두 8장인데, 상층기단 갑석의 받침인 부연을 조각해놓기도 하였다. 네 모서리에 기둥이 세워진 몸돌은 지붕돌에 비해 높이가 낮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비례가 잘 맞아 안정감이 느껴진다. 탑의 탑신부에서는 옥개석이 얇고 넓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인데, 이처럼 넓은 옥개석은 탑에 매우 웅장한 느낌을 준다. 또 지붕의 처마 끝은 살짝 들려있어, 지나치지 않은 경쾌함으로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더한다. 이와 같이 갑석과 옥개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탑의 부재들이 모두 다른 돌로 이루어진 점 등은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양식을 따른 것이다.

또 갑석 밑과 탑신의 옥개석 처마 밑엔 물이 탑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절수구(切水溝)가 만들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돌의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탑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탑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기능적인 면까지 고려하여 만든 이 절수구는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까지의 석탑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1971년엔 탑을 해체하고 수리 및 보수 하던 중, 초층 탑신에서 금동제아미타여래좌상, 지장보살상, 관세음보살상 등 삼존상(三尊像)이 출토되었다. 3층 탑신에서는 금동보살상이 출토되었고, 5층 탑신에서는 사리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충남 공주 마곡사5층석탑〈사진3〉은 마곡사의 대광보전(大光寶殿)앞에 있어 다보탑이라 불리기도 한다. 건립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륜부의 장식을 통해 고려 후기라 추정된다. 이중기단 위에 돌을 높게 쌓고 모서리기둥과 받침기둥은 각기 다른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새겨져 있는 모습이다. 이는 기둥을 모두 개별적으로 만들어 세웠던 탑리의 오층탑과 무량사 오층탑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또한 기단이 높은데다 지붕돌의 너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탑이 얇고 길어 보여, 안정감을 주던 여타 오층탑과는 다르게 웅장한 느낌보다는 가녀린 느낌이 강하다. 하지만 8.7m에 달하는 탑의 높이는 굳세고 강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탑신부에서는 2층 탑신의 4면에 사방불(四方佛)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 옥개석과 탑신은 모두 1장씩 쌓아올렸다. 또 5층의 옥개석에는 풍탁 2개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지붕돌 처마의 곡선이 끝부분에서 확실한 반전을 보이며 들려진 모습은, 고려 석탑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상륜부의 풍마동〈사진4〉이다. 청동 금속제의 이 풍마동(風磨銅)은 라마교의 불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마교는 티베트에서 발생한 밀교의 한 계통으로, 원나라는 당시 라마교를 왕실불교로 받아들이고 국교로 삼았다. 원나라에서 융성하였던 라마교는, 원의 압력을 강하게 받았던 고려 후기의 불교문화에도 분명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원의 영향을 받아 마곡사 5층불탑의 탑상부로 쓰인 이 풍마동은 라마교의 불탑을 축소해 놓은 형태이다. 풍마동은 라마보탑보다 더욱 섬세하게 만들어졌고, 탑의 꼭대기에 놓여 장식적 효과가 크다. 하지만 그 크기가 탑신부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탑의 전체적인 비례에 맞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탑의 높이는 8.7m인데, 풍마동의 높이만 1.8m에 달한다. 풍마동의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당시 고려에 미친 원나라와 라마교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충북 보은의 속리산 안에 위치한 법주사는 신라 6세기, 진흥왕 때 창건되었다. 법주사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탑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이전의 목탑 중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목탑인 팔상전이 있다. 국보 제55호로 지정된 이 목탑은, 그 안에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단계로 나누어 그 모습을 그린 도솔래의상, 비람강생상, 가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녹야전법상, 쌍림열반상 등의 팔상도가 봉안되어 있다. 5층으로 이루어진 목탑이지만 탑의 벽 사방에 각 면당 2개씩, 총 8개의 변상도(變相圖)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팔상전이라 불린다. 하지만 이 팔상전은 정유재란 때 불이 나 타서 없어지고 말았는데, 선조 38년, 1605년부터 재건 공사를 시작하여 21년만인 1626년에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때문에 신라 때 처음 세워졌던 5층목탑의 흔적은 돌로 만들어진 기단부에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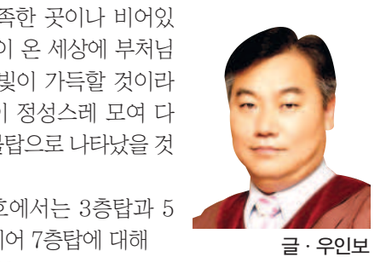
법주사의 팔상전이 목탑으로 지어진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법주사 창건 당시 절터가 배 모양을 닮았는데, 탑을 돌로 조성한다면 무거운 돌로 배를 짓누르는 것과도 같은 형상이라 비교적 가벼운 나무로 탑을 세웠다고 한다.

팔상전의 높이는 총 22.7m로, 정사각형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과 탑의 꼭대기엔 철제로 만들어진 상륜부가 놓여 있는 모습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석탑의 옥개석에 해당되는 기와지붕인데, 기둥 위에서 지붕의 처마를 받치는 역할을 하는 공포가 층마다 양식이 달라 다른 목조건물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또 팔상전은 건물 내부가 3층까지 뚫려있는 통층식(通層式)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 안은 불상과 팔상도를 모시는 공간, 사리를 모시는 공간, 참배를 하기 위한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팔상전 안쪽 가운데에는 심초석이 있는데, 이 심초석 위에 기둥을 세워 상륜부까지 연결되도록 하였다. 1968년 해체 및 수리 때에는 이 심초석에서 사리와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팔상전이 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1층 탑신의 사방에 출입구와 계단이 나 있기 때문에 탑의 어느 방향에서든 출입이 가능하고, 내부의 팔상도를 바라보며 참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신라와 백제, 석탑과 목탑, 나아가 밀교의 영향까지, 여러 양식과 문화가 혼합된 5층탑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조성된 5층탑의 모습은 매우 다양했지만, 탑에 담긴 마음과 정신은 모두 하나를 향한 것이라 생각해 본다. 부족한 곳이나 비어있는 곳 없이 온 세상에 부처님의 밝은 빛이 가득할 것이라는 믿음이 정성스레 모여 다섯층의 불탑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3층탑과 5층탑에 이어 7층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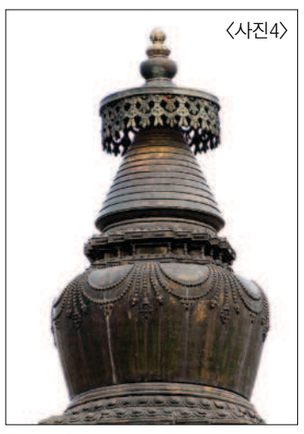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사진2〉

무량사 5층석탑

〈사진3〉

마곡사 5층석탑

〈사진4〉

마곡사 5층석탑의 풍마동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몸과 마음이 빛을 일으켜 환히 사무치다

원통문에 든 25성자 '수능엄경'에서 만나다

〈4〉 7대원통(七大圓通)-1



그림 · 최주현

오추슬마 '촉감관찰 번뇌소멸'

지지보살 '차별없는 지혜구족'

월광동자 '무생법인 보리원만'

유리광법왕자 '바람의 힘 관찰삼매'

오추슬마

저는 언제나 먼저 옛 일을 생각해 보옵니다. 오랜 겁 전에 저의 성품은 몹시 음욕을 탐내었사옵니다. 그때 세상에 나오신 공왕 부처님께서 '음욕이 많은 사람은 맹렬한 불덩어리' 라고 설하시면서, 저에게 '온갖 뼈와 사지의 차고 더운 기운들을 두루 관찰하라' 고 가르치셨사옵니다.

가르침을 따라 행하였더니, 신비한 광명이 안으로 엉겨서 음욕을 탐하는 마음이 변하여 지혜의 불이 되었사옵니다. 이로부터 모든 부처님께서는 저를 화두(火頭)라고 부르셨사옵니다. 저는 화광삼매의 힘으로 아라한을 성취하고, 마음에 큰 소원을 세워서 모든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마다 역사(力士)로 변하여 직접 마군의 원한을 항복시켰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달한 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몸과 마음의 따뜻한 촉감을 자세히 관찰하여, 걸림 없이 유통시켜 온갖 번뇌를 다 소멸하고, 보배로운 큰 불꽃을 일으켜서 더없이 높은 깨달음에 오르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烏芻瑟摩 (於如來前) (合掌)頂禮佛(之雙)足 而白佛言 我常

先憶 久遠劫前 性多貪欲 有佛出世名曰空王 說多 K入 成猛

火聚 敎我遍觀 百骸四肢 諸冷[ø]暖氣 神光內凝 化多 K心

成智慧火 從是諸佛 皆呼召我 名爲火頭 我以火光 三昧力故

成阿羅漢 心發大願 諸佛成道 我爲力士 親伏魔怨 佛問圓通

我以諦觀 身心暖觸 無礙流通 諸漏旣銷 生大寶焰 登無上覺

斯爲第一

지지 보살

지지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持地菩薩 卽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지난 먼 옛날의 일을 생각해 보니, 보광여래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비구였사옵니다. 저는 항상 일체 중요한 길과 나루의 입구가 밭과 땅이 좁고 험하여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레와 말들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것을 보고, 그 곳을 골고루 메우기도 하고, 다리를 세우기도 하고, 모래와 흙을 지어 나르기도 하였사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하기를 한량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실 때까지 계속하였사온데, 때로는 어떤 중생이 사람과 수레가 붐비는 곳에서 짐 나르기를 원하면, 제가 먼저 짊어지고 가서 목적지에 물건을 내려놓고 바로 떠나서 값을 받지 않았사옵니다.

비사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흉년이 들어 굶주림이 심했는데, 저는 짐꾼이 되어 멀고 가까운 곳을 묻지 않고 오직 한 푼만 받고 날았사옵니다. 간혹 수레를 끄는 소가 구렁에 빠졌을 때에는 저의 신비한 힘으로 바퀴를 밀어 올려 고통을 없애주기도 하였사옵니다. 그때 국왕이 공양을 마련하여 부처님을 청했는데, 저는 부처님께서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땅을 평탄하게 골라놓고 기다렸사옵니다.

비사부 부처님께서 지나시는 길에 저의 이마를 만지시며 '마땅히 마음의 땅을 잘 고른다면 세상의 땅은 일체 다 골라지리라' 라 말씀하셨사오며, 저는 곧 마음이 활짝 열렸사옵니다. 따라서 몸의 미세한 먼지와 세계의 미세한 먼지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미세한 먼지와 자성은 서로 부딪치지 않으며, 병기까지도 저촉되는 일이 없음을 알고, 저는 법의 성품에서 무생법인을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하였사옵니다.

지금은 마음을 돌려 보살자리에 들어가서, 여러 여래께서 설하신 묘연화 부처님 지견의 경지를 듣고 제가 먼저 증명하여 상수가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몸과 세계의 두 미세한 먼지는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본 여래장이며, 허망하게 티끌이 일어났음을 자세히 관찰하여, 티끌을 소멸하고 지혜를 원만하게 갖춰서 더없이 높은 도를 이루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念往昔 普光如來 出現於世 我爲比丘 常於一切 要路津

[淨]口 田[山]地險隘 有不如法 妨損車馬 我皆平ßg或作橋梁

或負沙土 如是勤苦 經無量佛 出現於世 或有衆生 於闤]處

要人擎物 我先爲擎 至其所詣 放物卽行 不取其直 毘舍浮佛

現在世時 世[歲]多饑荒 我爲負人 無問遠近 唯取一錢 或有

車牛 被於陷[泥]溺 我有神力 拔其推輪 拔其苦惱 時國大王

筵[延]佛設齋 我於爾時 平地待佛 毘舍如來 摩頂謂我 當平

心地 則世界地 一切皆平 我卽心開 見身微塵 與造世界 所有

微塵 等無差別 微塵自性 不相觸摩 乃至刀兵 亦無所觸 我於

法性 悟無生忍 成阿羅漢 ⌀ 心今入 菩薩位中 聞諸如來 宣妙

蓮華 佛知見地 我先證明 而爲上首 佛問圓通 我以諦觀 身界

二塵 等無差別 本如來藏 虛妄發塵 塵銷智圓 成無上道 斯爲

第一

월광 동자

월광 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月光童子 卽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지난 옛 갠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겁의 일을 생각해 보니, 그때 수천水天이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모든 보살들에게 '물의 정기를 수습하여 삼마지에 들어가서 몸 안에 있는 물의 성품이 불과 흙 등 다른 성품과 서로 부딪치지 않음을 관찰하라' 고 가르치셨사옵니다.

처음 콧물과 침으로부터 진액(津液), 정액(精液)과 피와 대변과 소변에 이르기까지, 몸속을 빙빙 도는 물의 종류는 다르나 그 근본 성품은 한 가지임을 관찰하였사옵니다. 이치를 끝까지 추궁하면, 몸속의 물과 세계 밖 부당왕찰의 온갖 향수해와 함께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사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이 관(觀)을 성취했을 때는 단지 물만 보는 경계일 뿐, 아직 몸이 없는 경지에는 들지 못하였사옵니다. 당시에는 비구로서 방안에 편안히 앉아 선정에 들었사옵니다. 저의 제자가 창문을 통해서 방 안을 보다가, 오직 방 안에 가득 찬 맑은 물만 보이고,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어리고 무지한 동자는 기와조각 하나를 물속에 던져 찰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힐끔 돌아보고 가버렸사옵니다. 저는 선정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몹시 아팠는데, 사리불이 몰래 해치는 귀신(違害鬼)을 만난 경우와 같았사옵니다.

저는 홀로 생각해보았사옵니다. '이제 나는 아라한도를 얻고 나서 오래 전부터 병과 인연이 없었는데, 오늘은 웬 일로 별안간 심장이 아픈 것일까? 장차 도에서 물러나 잃어버릴 징조가 아닌가?' 그때 동자가 급히 저에게 달려오더니 앞서 행한 일을 말하였사옵니다. 저는 동자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네가 다시 물이 보이면 반드시 문을 열고 물속에 들어가서 기와조각을 제거해야 한다.' 동자는 가르침을 받들어서 저가 선정에 들자, 다시 또 물을 보고 그 속에 뚜렷이 남은 기와조각을 발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사옵니다. 뒤에 제가 선정에서 나오니 몸이 아프기 전과 같았사옵니다.

그 뒤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모시다가, 산해자재통왕 여래 때에 비로소 몸이 없는 경지를 얻으니, 시방세계의 온갖 향수해와 함께 성품이 진공과 합하여 둘도 없고 차별도 없었사오며, 지금은 여래께서 내려주신 동진(童眞)이란 이름으로 보살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물의 성품이 한 맛으로 흐르고 통하여 무생법인을 얻고 보리를 원만하게 갖추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憶往昔 恒河沙劫 有佛出世名爲水天 敎諸菩薩 修習水精

入三摩地 觀於身中 水性奪初 從涕唾 如是窮盡 津液精血

大小便利 身中漩[旋]澓 水性一同 見水身中 與世界外 浮幢

王刹 諸香水海 等無差別 我於是時 初成此觀 但見其水 未得

無身 當爲比丘 室中安禪 我有弟子 窺?觀室 唯見旣水 遍在

屋中 了無所見 童稚無知 取一瓦礫 投於水內[中] 激水作聲

顧ㅑy而去 我出定後 頓覺心痛 如舍利弗 遭違害鬼 我自思惟

今我已得 阿羅漢道 久離病緣 云何今日 忽生心痛 將無退失

爾時童子 捷來我前 說如上事 我則告言 汝更見水 可卽開門

入此水中 除去瓦礫 童子奉敎 後入定時 還復見水 瓦礫宛然

開門除出 我後出定 身質如初 逢無量佛 如是至於 山海自在

通王如來 方得亡身 與十方界 諸香水海 性合ßk空 無二無別

今於如來 得童ßk名 預菩薩會 佛問圓通 我以水性 一味流通

得無生忍 圓滿菩提 斯爲第一

유리광 법왕자

유리광 법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琉璃光法王子 æ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지난 옛 갠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겁의 일을 생각해 보니, 그때 무량성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보살들에게 본각은 원래 묘명함을 열어 보이시면서 '이 세계와 중생의 몸은 다 허망한 반연으로 바람의 힘이 굴리는 경계임을 관찰하라' 고 하셨사옵니다.

저는 그때 공간의 존재를 관찰하고, 시간의 흐름을 관찰하고, 신체의 움직이고 멈춤을 관찰하고, 생각의 변화를 관찰해 보니, 이러한 가지가지 움직임은 천차만별이나 그 능동적 본체는 둘도 아니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사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온갖 움직이는 성질은 와도 온 곳이 없고 가도 간 곳이 없음을 깨달았사오며, 먼지처럼 많은 시방의 중생들은 하나같이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았사옵니다. 이와 같이 삼천대천 세계까지도, 한 세계 안에 들어 있는 중생들마다 마치 한 그릇에 담겨 어지럽게 우는 수많은 모기들이 지극히 보잘 것 없는 곳에서 어지럽게 날뛰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과 같았사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생법인을 얻으니, 마음이 활짝 열려서 동방의 부동불국을 보고, 법왕자가 되어 시방의 부처님을 섬기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빛을 일으켜서 걸림 없이 환하게 사무쳤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의지함이 없는 바람의 힘을 관찰하여 보리심을 깨닫고 삼마지에 들어가서 시방세계의 부처님과 합하여 하나의 묘한 마음을 전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憶往昔 經恒沙劫 有佛出世 名無量聲 開示菩薩 本覺妙明

觀此世界 及衆生身 皆是妄緣 風力所轉 我於爾時 觀界安立

觀世動時 觀身動止[像] 觀心動念 諸動無二 等無差別 我時

了覺 此群動性 來無所從 去無所至 十方微塵 ßg到衆生 同一

虛妄 如是乃至 三千大千 一世界內 所有衆生 如一器中 貯百

蚊ø [O 亂鳴 於分寸中 鼓發狂鬧 逢佛未幾 得無生忍 爾時

心開 乃見東方 不動佛國 爲法王子 事十方佛 身心發光 洞徹

無礙 佛問圓通 我以觀察 風力無依 悟菩提心 入三摩地 合十

方佛 傳一妙心 斯爲第一

이 글은 최근 이수덕 박사가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로 편역한 '수능엄경' 에서 발췌했다.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 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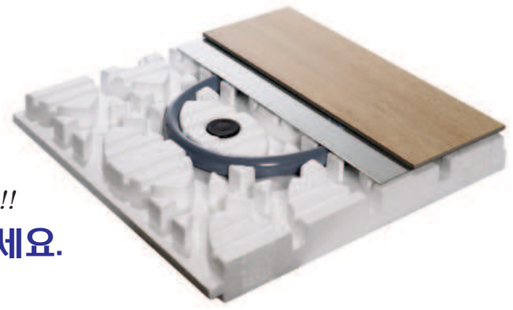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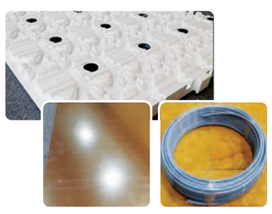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4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서산 : 010-7301-5854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북광주 : 010-3641-0605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부처님은 왜 비유를 통해 설법하셨을까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3. 비유에 대해서 ㊤


해인사 장경판전의 팔만대장경의 모습. 불경은 부처님 설법을 기록한 것이다. 부처님 설법에는 고도의 비유가 담겨있다.

헝겊의 비유라는 경에 관해

종교인은 자주 비유에 의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복음서(福音書)의 한 구절은 '예수, 모두 이런 것들을 비유로써 군중들에게 말씀한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다' 라고 쓰고 있다. 그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는 매우 자주 비유로써 이야기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붓다도 또한 자주 비유로써 이야기한 사람이었다.

비유는 이 스승에게 있어서도 또한 그 설법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 스승의 중요한 설법의 몇 개는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 〈전유경(箭喩經, 독화살을 비유한 경〉 〈포유경(布喩經, 헝겊을 비유한 경)〉 〈파차구다화유경(婆蹉衢多火喩經, 밧쟈를 위해서 설교한 불을 비유한 경)〉 등은 이러한 설법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 중 하나인 〈포유경〉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그때 부처님은 슈라바아스티(사위성)의 제타(Jeta)의 정원(庭園)에 계셨다. 어느 날 세존은 비구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더럽고 때 묻은 헝겊이 있다고 하자. 염색공(染色工)이 이것을 혹은 남색(藍色)으로 혹은 황색(黃色)으로 혹은 홍색(紅色)으로 혹은 천색(?色)으로 염색하려고 이것을 염색 물통에 담가두었다고 하자. 그 때 이 헝겊은 색깔이 선명하게 물들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그러할까. 그것은 헝겊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그대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는 좋지 못한 결과를 예기(豫期)하여야 하리라. 또 비구들이여, 여기에 때 묻지 않은 깨끗한 헝겊이 있어서, 이것을 염색공이 남(藍)으로 황(黃)으로 홍(紅)으로 혹은 천(?)으로 염색하려고 염색 물통에 넣었다면 어떠할까. 그때 이 헝겊은 빛깔도 선명하게 염색되리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그것은 헝겊이 깨끗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그대들의 마음이 깨끗하면 좋은 결과를 예기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스승은 또다시 무엇이 마음의 더러움인가를 말씀하고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 버리는 방법을 말씀하였으며 또 더러움이 없는 마음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였다.

모든 것은 불탄다 라는 비유

또 〈연소(燃燒)〉라는 제목의 경전, '경전(耕田)' 이라는 제목의 경전 혹은 '성읍(城邑)' 이라고 불리는 경전 등은 작은 경전이긴 하지만 석존의 설법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며, 그 구성도 또한 비유를 가지고 그 뼈대를 삼은 것들이다. 그 중의 하나 '연소' 라는 제목의 경전은 유럽의 불교학자들이 가끔 예수의 '산상(山上)의 수훈(垂訓)' 에 비교하여 '산상(山上)의 설법' 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그때 석존은 천 사람의 비구들과 함께 가야산에 있었다. 거기에서 석존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였다.

"비구들이여, 일체(一切)는 불타고 있느니라. 비구들이여, 일체가 불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비구들이여, 눈이 불타며,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불타고 있다. 귀는 불타며, 코는 불타며, 혀는 불타며, 몸은 불타며, 뜻(의(意)도 또한 불타며, 그 접촉하는 것, 모두 불타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무엇에 의해서 불타는 것일까. 그것은 탐욕의 불에 의해서 타며, 진에(瞋?)의 불에 의해서 타며, 우치(愚癡)의 불에 의해서 타며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불꽃으로 타며 수고뇌민(愁苦惱悶)의 불꽃이 되어 타고 있느니라."

그리고 붓다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은 모름지기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설법은 이 스승의 전도(傳道)의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비유는 여러 번 반복되었으며, 오랫동안 전승(傳承)되어 〈법화경〉의 '삼계화택(三界火宅)' 의 비유 등을 낳기에 까지 이르렀다.

손톱위의 흙에 비유하여

또다시 이 스승은 그 설법의 모든 곳에 교묘한 비유를 쓰면서 그 설명하는 것의 이해와 인상(印象)에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은 자주 한줌의 흙을 쥐고 손톱 위에 얹으면서 법을 설명하였다.

"비구여, 다만 이런 정도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항상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비구여, 만일 이 손톱 위의 흙만큼한 것이라도 항상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가르침에 의해서 고(苦)를 멸(滅)할 수는 없으리라."

제자들은 이 스승에 의해서 모든 것의 무상(無常)함을 배웠고, 이치(理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해가 모든 사유(思惟)와 실천의 기반이 되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해는 다시 더 깊어져야 하며 그 인상은 다시 더 힘을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자주 이러한 비유를 씀으로써 설법을 되풀이 하였다.

파초(芭蕉)의 비유

또한 이 스승은 자주 파초의 비유를 들어서 법을 이야기하였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견고(堅固)한 재목(材木)을 얻기 위해서 큰 파초나무에 가는 것과 같도다. 그는 날카로운 도끼로써 그 뿌리를 끊고 그 가지를 자르며 그 껍질을 벗긴다. 그러나 그는 원하는 부재(膚材)조차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견제(堅材)를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이 스승에 의해서 일체(一切)가 무상하며 무아(無我)함을 알게 되었다. 무아의 이치(理致)도 또한 쉽게 내 몸에 붙는 것은 아니다. 그 무아의 이치를 붓다는 여기에서 더 강하게 그들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설명한 것이다.

나뭇잎의 비유

또 예를 들면 이 스승은 고삼비의 신서림(申恕林)에 있었을 때 나뭇잎을 몇 잎 손에 쥐면서 이렇게 말한 일도 있었다.

"비구들이여, 지금 내 손에 있는 나뭇잎과 이 숲의 나뭇잎과는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대덕(大德)이시여, 세존의 손에 있는 나뭇잎은 적으며 저 숲의 나뭇잎은 많습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처럼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많으며 설명한 것은 적다. 그러면 어찌하여 나는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을까. 또 무엇을 나는 설명하였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스승은 저 '사제설법(四諦設法)' 이야말로 내 설법의 근본이며 이것에 의해서 노력할 것과 이것에 의해서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악행의 보응은 어찌되나

문 위에서 밝힌 것은 적선(積善)의 인과(因果)만 밝혔고, 악의 보응은 밝힘이 있지 않으니, 계속해서 그것을 밝혀 후대의 몽매한 선비를 깨우친다면 교리(敎理)에 있어서 더욱 자세하게 갖춤이 되지 않겠는가.

답 분명하다 질문함이여, 내가 말하고자 했으나 그 단서를 구하지 못했더니, 지금 그대가 책발하니 내 마음을 헤아렸다.

무릇 착함은 덕을 쌓음 보다 훌륭함이 없고, 악함은 가만히 해침보다 흉악함이 없다. '가만히 해침' 이란 것은 무안인가. 귀신과 물여우를 말함이다. 귀신과 물여우가 사람을 해침은 그윽하고 은미한데 있어 사람이 환하게 알지 못하는데,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가만히 해침' 이라 말한다.

대체로 사랑이나 호랑이의 포학함은 함정을 시설하여 대비할 수 있으며, 독사나 전갈의 참담함은 지팡이나 회초리로써 제어할 수 있다. 칼이나 도끼가 비록 날카로워 갑옷과 투구로써 방비할 수 있으며, 짐새의 독이 비록 흉악해도 근신(勤愼)함으로써 피할 수 있지만 '가만히 해침' 의 피해는 도망할 만한 위치가 없으니 네 가지의 흉악하고 포악함 보다 심하다하지 않겠는가.

이익을 도모하면 어진 마음이 사라지니 이런 사람은 王法의 엄한 형벌을 받는다

시랑이나 호랑이의 피해는 산림(山林)에 있지만 '가만히 해침' 의 피해는 놀며 잔치하는 데서 나오며, 독사나 전갈의 피해는 초택(草澤)에 있지만 '가만히 해침' 의 피해는 말하고 웃는 데서 일어나며, 칼이나 도끼의 피해는 그 몸에 그치지만 '가만히 해침' 의 피해는 가족에게 미치며, 짐새의 피해는 완전히 그 몸에만 있지만 '가만히 해침' 의 피해는 그 체(體)를 해치니, 사자(四者)의 재앙보다 심하다 하지 않겠는가.

고금(古今)의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 '가만히 해치는 자' 에게 피해를 당한 자 이루다 셀 수도 없으며, 그리고 천하 후세가 함께 그를 슬퍼한다. 해치는 자는 그를 요행으로 여기고, 모함한 자는 그를 괴롭히고, 괴롭히는 자는 그 삶을 잔해 한다.

요행을 구하는 자는 그 세력을 치성하며, 이미 그 세력을 치성하고 나서는 동동연(憧憧然)히 '가만히 해침' 을 이기는 방법으로 여기고 휴식할 줄 모른다.

슬프다. 이는 진실로 '너에게서 나왔다가 너에게로 되돌아간다' 함을 알지 못하는 자이니, 그 훗날의 근심이 어떠하겠는가.

또 독사나 호랑이의 피해는 사람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여 오히려 그를 공격하지 못함을 한으로 여기는데, '가만히 해침' 의 사람됨은 도리어 독사나 호랑이와 같지 않다면 하늘이 벌을 시행함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는가.

삼대(三代)로부터 이후 진 · 한 이래로 가만히 해치는 신하가 어느 세대이든 없지를 않아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하며, 그 집안을 망하여 독해(毒害)가 후세에 흘렀다.

그리하여 후세에 들은 자들이 분연히 그 악함을 꾸짖고 그가 망함을 기뻐하지 않음이 없어서 한번 죽음으로는 보상이 충분히 않다 하였으니, 진실로 천하 만세에 벌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만 하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의 생각이 공적(公的)인 것을 가리고, 이익을 도모하는 마음이 의(義)를 어지럽혀 경쟁(競爭)과 투기(妬忌)가 교대로 심술(心術)을 어지럽혀 어질지 못한 마음이 이르지 않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살아서는 왕법(王法)의 엄한 형벌에 빠져 그 집안을 망하고 그 가족을 멸하며, 죽어서는 다생(多生)의 주륙(誅戮)을 받아 모든 악취(惡趣)를 경력(經歷)하면서 초독(楚毒)을 받는다.

밭에는 곡식이 있는데 강아지풀이 그것을 해치며, 채소밭에는 채소가 있는데 거친 잡초가 막아 버렸다면 농포(農圃)가 전원(田園)을 다스리는데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을 간택하겠는가. 그 채소와 곡식은 기르고 그 해치고 막아버리는 것을 제거함은 농포의 직분이다.

더구나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천하를 아름답게 하여 처소를 따라 다스리지 않음이 없음은 전원(田園)의 채소와 곡식이 있는 것과 같으며, '가만히 해침' 이 천하를 해롭게 하여 처소를 따라 어지럽히지 않음이 없음은 전원에 거친 풀 · 강아지풀이 있는 것과 같다.

위에서 말한 시장에서 처형되며, 축생이 되어 우레에 진동하여 죽으며, 음부(陰府)에서 괴로움을 당함이 진실로 부득이 함이라 하겠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혜심 진각국사 탄신 제837주년 기념

제2회 학술대회 및 탄신 다례제

귀의 삼보하옵시고,

본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는 불향(佛鄕)인 우리 고향 화순(和順)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선문명송' 의 저자인 혜심 진각국사님의 탄신 제837주년을 맞이하여, **제2회 학술대회 및 제 9회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큰스님의 고귀한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간에 함께하시어 좋은 인연공덕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문화 명품 화순의 무궁한 번영과 화합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11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남산 화순군민회관

◆ 주 최 : (사)진각국사 선양회

◆ 후 원 : 화순군, 화순군의회, 혜원정사 납골 추모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법정 스님 입적때도 안쉬었죠”…

맑고향기롭게 밑반찬 지원 봉사자들





3월 27일 길상사 조리장에서 만든 장조림 반찬을 담고 있는 봉사자들

맑고향기롭게의 밑반찬 봉사활동은 … 1998년 외환위기에서부터 시작했다. 노숙자 쉼터와 무료급식소를 마련한 이후 가정에 남겨진 소년소녀가장과 독거어르신 돕기로 확장됐다. 서울 본부의 반찬봉사팀은 서울 성북구 뿐만 아니라 강서구 등 전역에 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는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다. 일주문 옆 주차장에 자리한 작은 조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였다. 법정 스님의 입적 5주기와 맑고향기롭게 창립 21주년을 맞은 3월,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스님의 무소유와 나눔정신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들은 손을 바삐 놀리며 음식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도움을 기다리는 결식가정을 생각하면 잠시나마 쉴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반찬 메뉴는 장조림과 마늘쫑볶음, 결식가정 450가구에 밑반찬으로 제공될 음식들이었다.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세요. 교회다니시는 분들도 있구요. 목요일과 금요일이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홀로 계신 어르신 가정을 비롯해 소년소녀 가장 가정 등을 찾아 반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예진 맑고향기롭게 세상사업 간사는 반찬봉사팀에 대해 소개했다. 맑고향기롭게의 결식 이웃을 위한 ‘밑반찬 조리 및 전달’ 봉사 활동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됐다. 당시 법정 스님과 회원들은 실업자가 된 노숙자들을 위해 쉼터와 무료 급식소를 마련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가장의 실업으로 인해 남겨진 아이들과 노부모들의 결식 문제였다.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찬봉사를 결심했다. 처음에 60여 가구였던 밑반찬 지원은 점점 수요가 늘어나며 현재 450여 가구를 넘었다.

이 간사는 최근에는 독거어르신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예진 간사는 “고령화로 인해 홀로 계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분들은 먹거리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일주일 분량이 아닌데도 일주일치 반찬으로 놓고 먹는다고 하실 때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라고 말했다.

‘맑고 향기롭게’의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이 10년 넘게 꾸준히 자비보시행을 이어왔다. 특히 밑반찬 지원 자원봉사자들은 4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부들로 구성돼있다. 법정 스님도 생전에 밑반찬 자원봉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 항상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직접 농사지은 감자나 옥수수를 들고 조리장을 방문하거나 자신의 저서에 자원봉사자가 보낸 편지를 소개할 정도였다.

이날 유난히 바삐 몸을 움직이고 있던 최두리 모둠장은 “법정 스님 생전에는 길상사보다 우리 ‘맑고 향기롭게’ 밑반찬 조리장을 더 아끼셨다는 말이 있다”

어려운 이웃 끼니 거르지 않는 사랑

IMF 노숙인 급식서 시작해

60가구서 현재 450가구로

독거어르신 가정으로 봉사확대

봉사자 대부분 10년 넘은 베테랑

무종교인 · 이웃종교인 많아

2009년부터 목요일도 봉사 시행

고 했다. 최 모둠장은 “어른 스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려 한다”며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바쁜 손을 잠시도 쉬게 하지 않았다.

최 모둠장은 “대부분 꾸준히 활동하신 분들이고 주부들이라 솜씨가 베테랑급”이라며 “다들 살림에는 일가견이 있어서인지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웃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장조림 반찬을 조리하던 다른 봉사자는 “바쁜 일이 생기면 못 오기도 하고 가끔 늦기도 하지만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다”며 “우리 같은 주부들이 부담 갖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며 웃었다.

맑고향기롭게의 밑반찬 자원봉사에서는 종교의 벽도 넘어섰다.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길상사를 찾았다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다른 종교인이나 인근 주민도 적지 않다.

13년 넘게 밑반찬 봉사를 해 온 김자현 씨는 “법정 스님의 글을 접하고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 길상사를 찾았다. 길상사에서 맑고향기롭게를 알게 됐고 밑반찬 봉사를 하게 됐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봉사자 분들 중에는 불자가 아닌 분들도 많은데 종교를 떠나 함께 어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반찬봉사 현장에는 멀리 성남시, 용인 등지에서 온 봉사자들이 많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조리일정에 맞추기 위해 7시에 집에서 나선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이틀씩 아침마다 나서다 보니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눔의 기쁨을 알고 함께 좋아합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같이 나서고 있어요.”

장조림 반찬에 들어갈 삶은 계란의 껍질을 열심히 벗기는 한 보살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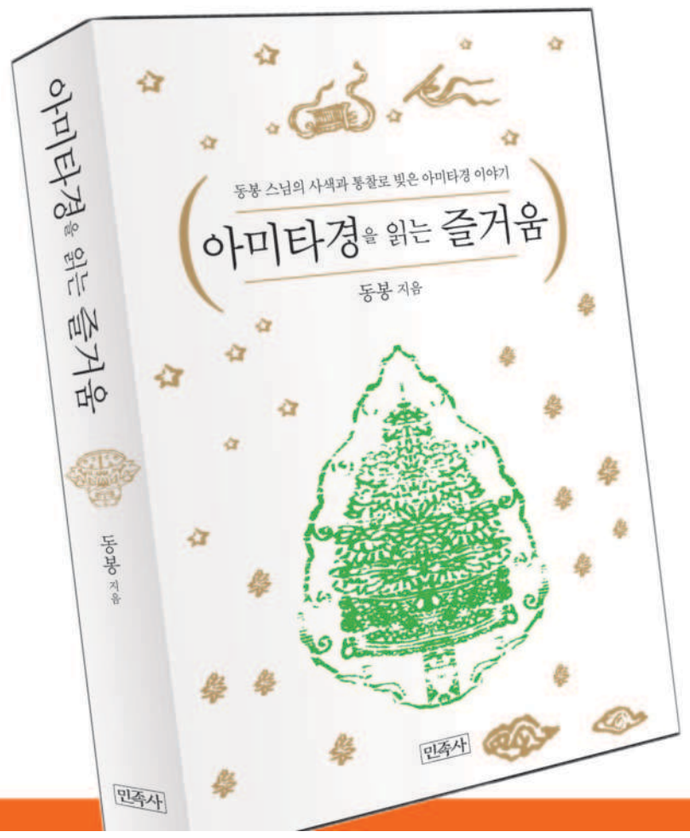
홍현아 반찬봉사 팀장은 특별한 강요는 없지만 일손이 부족해 조리장 운영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한명, 두명씩 자원봉사자들이 늘어 지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맑고향기롭게 밑반찬 봉사는 2009년부터는 목요일에도 진행하고 있다. 홍 팀장은 “우리의 밑반찬 봉사도 하다가 쉬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건 오히려 스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 활발

맑고향기롭게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동봉 스님의 사색과 통찰로 빚은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 지음 | 신국판 580쪽 | 23,000원

과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아미타경 해설,
동봉 스님의 치열한 삶과 수행 이야기가 담긴 수필처럼 아름다운 경전 해설서

MBC 스페셜 ‘동봉, 킬리만자로에 가다’를 통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을 구호하는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한 동봉 스님의 57번째 저서. 아미타경이 21세기 지구인의 공통 화두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경전이라고 강조하는 스님은 그 과학적 근거를 이 책에서 유려한 필치로 펼쳐 놓았다.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을 읽는 즐거움 시리즈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지음 | 376쪽 | 값 15,000원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지음 | 312쪽 | 값 15,000원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일감 지음 | 근간

BTN 특강 동봉 스님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60분간), 4월 2일 첫 강의
장소 불교 TV 남부순환로 2265(방배동1027-4)
전화 02-3270-3355

동봉 스님 저자 강연 사인회
일시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부산 영광도서
전화 051-816-9500

민족사 전화 02.732.2403~4

이웃위한 15년 반찬봉사



3월 27일 광주에 개원한 무소유 까페


2014년 열린 맑고향기롭게 20주년 법회


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의 공양나눔 봉사 모습



2014년 진행된 KTX봉사팀의 김장 도움



맑고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 전달식

통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법정 스님이 1993년 우리 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워보자는 뜻으로 종교와 종파를 떠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주창했다.

1994년 3월 26일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발족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 등지에서 뜻 있는 이들의 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자발적인 모임이기에 자비보시행은 밑반찬 봉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동물사랑캠페인과 새집 달기, 동물 모이주기, 자연보호활동 등 생태환경운동을 비롯해 독거어르신 말벗봉사, 지체장애아 목욕봉사 치매어르신 도우미, 길상화 장학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이러한 사업을 세상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기쁨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매월 1회 독거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르신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외로움을 달래고 청소년들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를 얻고 있다.

2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김규은 학생은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고 후기를 남겼다.

"어르신께서는 말할 사람이 없어 텔레비전을 보며 대화를 하신다고 하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어르신께 필요한 것은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나 의료지원등등 형식적인 것들이겠지만, 가장 필요하고 원하시는 것은 외로움을 달랠수있는 우리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다는 어르신의 말씀에 비록 한달에 한번이지만 진심을 다해 할머니께 내 마음을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모임 중 이 같은 활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곳은 광주지부다. 1997년 결성된 광주지부는 광주지부는 광주지방법원 인근에 '공양나눔의 집'을 마련해 매일 노인과 결식계층을 위한 1000원 밥상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양나눔의 집에서는 매일 1식 3찬이 제공되며 이를 먹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1000원을 기부한다.

이금지 광주지부 운영위원장은 "백반 값은 법정 스님이 생전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도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넘치는 사랑 목욕봉사 등에 이어져

청소년-독거어르신 결연 진행

지체장애인 목욕봉사 등 활발

"윗 세대 이해하는 계기돼" 후기

전국 각지서 법정 스님 가르침 실천

광주 '공양나눔' '무소유 까페'

부산 5000여 회원 활동, 국내 최다

각계 각층에서 조용한 활동 특징

이들은 16년간 매일 새벽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해 4인 1조로 총 20여 명이 도시락을 마련해 각 복지관의 소외계층에게 전달한다. 광주지부에는 현재 매월 4000kg의 쌀과 반찬이 260여명의 회원과 단체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소유 까페를 개소하기도 했다. 이 까페서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법정 스님의 책을 조용히 볼 수 있다. 까페 수익금은 공양나눔의 집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된다.

부산 지부의 경우 총 5천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어 최대 규모다. 현재까지 어려운 이웃 돕기와 자연 보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 1천20여 명에게 매달 10만~20만 원의 생활보조금과 함께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 1천4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있다. 지난 1998년부터 해마다 여름방학 기간동안 중고등학생 1천 명을 모집해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부산청소년자원봉사상을 제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활발한 활동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말한다. 자원봉사자 김용덕 씨는 "얼마 전 돌아가신 지원대상 어르신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갑니다' 고 말을 남기셨을때 감동을 받았다"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좀 더 우리사회를 밝게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했다.

법정 스님의 5주기를 맞은 맑고향기롭게 봉사회원들은 언론이 그저 '무소유'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맑고향기롭게 회원 이유호 씨는 "불교적 깨달음의 사회적 실천 모델이 맑고향기롭게다"며 "깨달음이 사회적 메아리가 되어서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법정 스님의 진짜 정신"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종교인으로서 사회현실에 대해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해, 산속에만 있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참여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이들은 묵묵히 행하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립스틱 보시'의 교훈

예전 여수 향일암에서 소임을 살 때 주지 스님은 항상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주머니에 돈이 천원이 있으면 800원은 도반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쓰세요. 나머지 200원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수행자가 돈을 모으고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으면 스님 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와 마장이 오고, 도반과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인색 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떠난다는 요지의 말씀이었다.

원각사에 와서도 나는 가진 게 있으면 신도들에게 회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각사의 사격이 정상화되기까지 신도회장과 임원, 신행단체 봉사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출가 사찰 파계사 스님들을 모시고 2박 3일 일본 대마도에 가게 됐다. 가기 전날 신도회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여비까지 마련해 줬다. 너무 신도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고, 또 미안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마도에 무사히 도착했고, 자유시간이 생기자 나는 곧바로 일본의 대형마트에 들러 쇼핑을 시작했다. 신도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다. 선물은 이미 마음 속으로 정해놨었다. 바로 '립스틱'이다. 내가 신도들을 위한 선물로 립스틱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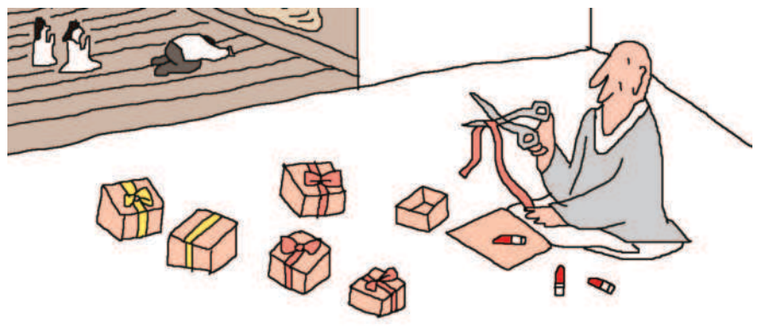
하루는 법회가 끝나고 친한 신도 분들에게 농담으로 물었다. "보살님은 립스틱 색깔이 빨간색 하나 밖에 없으세요?"

그러자 "네, 스님. 색깔이 빨간색 하나 밖에 없어요. 스님이 사주시게요?"라고 신도들이 답했다. 그 대답에 "사드리겠다"는 약속했다. 반쯤은 농담이었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막상 마트에 도착하니 마음이 떨렸다. 동행한 스님들이 구입하는 물품을 보고 뭐라고 할지 두려워 먼저 보내고 쇼핑을 시작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립스틱을 구입 해 보는 날이었다. 세속의 남성들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미션이다. 그냥 진열대에 놓인 많은 립스틱을 보고 모두 다 사버렸다. 동행한 스님들 몰래 걸망 속에 립스틱을 숨겨 놓았다. 2박 3일 대마도 일정을 보내고 원각사에 돌아와 립스틱을 하나하나 예쁘게 포장을 했다. 신도들이 받고 즐거워할 모습이 그려졌다.

신도들이 사찰에 오는 날, 한분 한분 몰래 불러 선물로 드렸다. 그리고 신신당부했다. 다른 신도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굳이 불필요한 말 전함과 오해가 있어서는 안됐기 때문이다. 실제 누구도 나에게 립스틱 선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신도는 없었다. 다만 몇몇 신도들이 나에게 고마움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해줬다.

"남편한테도 한평생 살면서 립스틱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주지 스님한테 립스틱 선물을 받아서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기분 최고입니다."


그림 ·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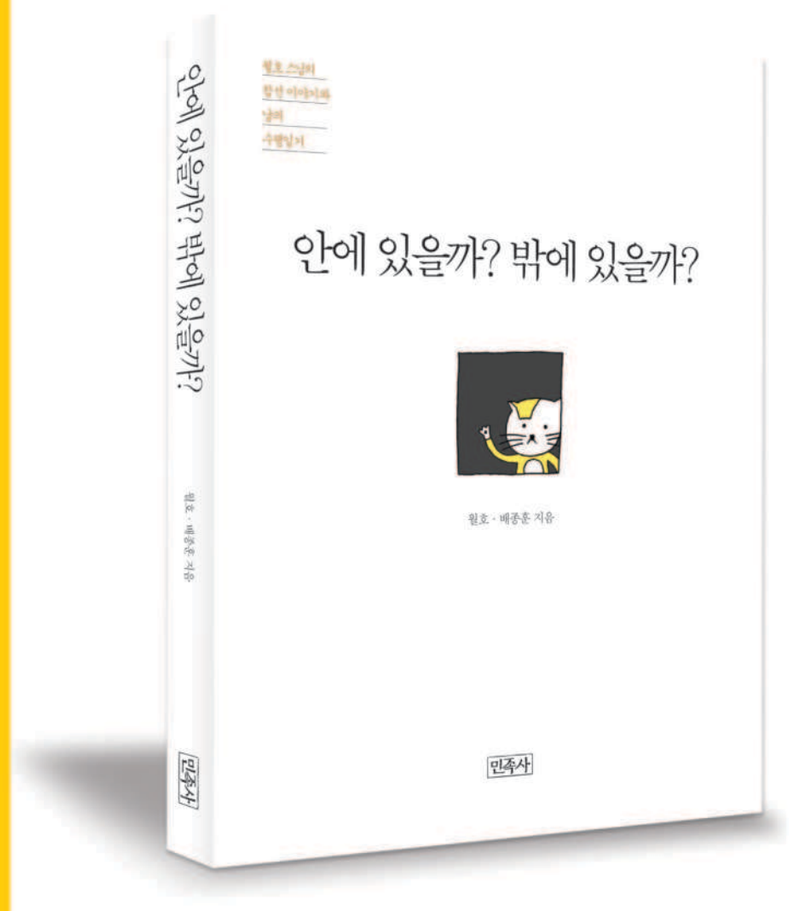
립스틱 선물 받은 신도들은 사찰에 올 때마다 내가 선물한 립스틱만 바르고 오신다고 한다. 내심 뿌듯했다. 신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스님들의 눈치 보며 대마도에서 구입한 립스틱 선물은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불교에서 보시(布施)는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도 삼륜청정(三輪淸淨)한 보시가 참다운 보시라고 한다. 삼륜청정은 시자(施者, 보시를 하는 사람), 수자(受者 보시를 받는 사람), 시물(施物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한 것을 말한다. "나의 '립스틱 보시'는 삼륜청정의 대표 사례가 아니겠나"하고 자문해본다.

요즘 들어 법회에 많은 신도들이 가득 찬다. 좋은 현상이다. 기존 신도들이 새로운 신도를 데리고 원각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조그마한 베품이 곧 공덕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요즘이다.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월호 스님이 잔잔하게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하는 참선 이야기와
하루하루 일상속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냥의 수행일기'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월호 · 배종훈 지음 | 변형신국판 올칼라 280쪽 | 16,500원

참선은 의미가 있다. 카툰은 재미가 있다.
그래서 참선과 카툰이 만난 것이다!

모든 사물을 정신과 물질의 두 가지로만 나누어 관찰하는 서구식 사고로는 참선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플라톤의 고양이는 천국에 원본이 있다. 현실의 고양이는 사본에 불과하다. 하지만 참선의 고양이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항상 귀중한 원본이다. 고양이를 살려낼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대에게 달려 있다. - 월호



민족사 전화 (02)732-2404

中 젊은이들, 티베트 불교에 주목

CNN, "유학파 젊은이들 불교에 깊은 관심"

중국의 젊은이들이 불교를 주목하고 있다.

CNN은 3월 29일 "미주 ·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중국인들과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사회 첫 발을 내딛은 젊은 중국인들이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펑강 양(Fenggang Yang, 퍼듀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 "젊은 중국인들이 왜 불교로 쏠리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도했다.

중국불교는 1세기 중엽 한나라 때 티베트를 경유해 중국에 전래된 이래 중국의 기나긴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문화혁명 기간에는 사장될 위기도 맞았다.

당시 중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찰들이 파괴됐고, 스님들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벌됐다. 중국불교가 이런 어두운 역사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1976년에서야 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당시 '자유화 정책'을 펼쳤는데, 중국불교계는 이때부터 한국 · 일본 등 주변 국가의 불교계와 적극 교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근래에 유망한 젊은 중국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양 교수는 "퍼듀대학을 비롯한 미국 내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불교 동아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퍼듀대학의 불교 동아리는 티베트 스님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명상 캠프를 찾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중국 유학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젊은 중국인들이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중국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티베트 스님을 모시고 가정법회를 열고 있는 중국인들.

중국 안팎서 출 · 재가자 선택
불교자선단체 청년 회원 5년새 2배↑
"기복불교 벗어나려면 노력 뒤따라야"

퍼듀대학 산하 '종교와 중국사회(Religion and Chinese Society) 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양 교수에 따르면, 중국 기독교 역시 최근 10년간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사찰과는 달리 교회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가 친불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젊은 중국인들이 주목하는 불교는 어떤 불교인가? 전통의 선불교인가 아니면 다른 불교인가?

이에 대해 CNN은 양 교수의 말을 인용, "젊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불교는 선불교보다는 티베트불교"라며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 젊은 중국인 대부분 유수 대학이나 기업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망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칭화(Tsinghua)대학의 과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글로벌 기업에 취업한 로버트 자오(Robert Zhao · 25)는 현재 출가를 고심하고 있다. 그가 불교에 입문한 것은 5년 전 티베트를 여행하고서였다. '미신'이라고 배웠고 불신했던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이 티베트를 여행하는 동안 사라져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무척 혼란스러웠다"는 자오는 "티베트 현지에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불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지금은 일상 전체를 버려야 하는 '출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오는 현재 금주 · 금연 · 채식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가족과 '출가'를 의논하기 위해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CNN은 "중국에는 자오처럼 사회를 등지고 출가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명상 캠프를 찾거나 '자원봉사'로 자비를 실천하는 데 만족하는 젊은 중국인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4백여 명의 불자들이 베이징 외곽에 있는 롱쿠안(Longquan) 사원에서 마련된 불교 자선단체 '렌 아이(Ren Ai)' 재단의 연례 모임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례 모임에 참석한 즈홍 잉(Zhong Ying · 32)은 "렌 아이 재단의 회원 중에서 20~35세의 젊은 계층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젊은이들의 수가 거의 두 배(약 200여 명)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영국 유학 중에 불교로 개종하고 현재 북경 '렌 아이'의 열성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겡 후이어(Geng Huier · 26) 역시 "불교는 현재의 삶은 물론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까지도 치유하는 종교이자, 타인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하는 종교"라며 "이는 책을 읽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사회 곳곳에서 불교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 CNN은 "아직까지 중국인들은 풍수, 기복 등과 같은 비불교적인 이유로 친불교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양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방문해 법회를 봉행하고 경전을 읽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소림사 호주로 불교문화 사업 확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복합 문화단지 부지계약


중국 소림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숄헤이븐시와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복합 문화단지 조감도.

중국 소림무술의 본산으로 불리는 허난(河南)성 쑹산(嵩山) 소림사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소림사는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숄헤이븐시와 복합문화단지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

소림사는 이번 계약에 416만2000호주달러(약 36억원)를 지불했다. 소림사는 이 부지에 사찰과 호텔, 골프장이 포함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림무술을 수련할 수 있는 유료 게임을 출시한 소림사가 이제 해외에서 돈벌이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소림사는 지난 2006년 총 비용 3억 8600만호주달러(약 3330억원)에 이르는 복합문화단지를 꾸민다는 계획을 세우고 뉴사우스웨일즈 정부와 접촉했다. 당초 소림촌을 지어 소림무술을 널리 알리기로 했으나 이후 계획을 바꿔 주택과 별장, 골프장 등 위락시설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수행에 전념해야 하는 사찰이 본업보다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호주 당국이 소림사의 자금 조달 계획 등에 의문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영학석사(MBA) 출신으로 소림사를 기업화한 소림사 방장인 스융신(釋永信) 승려도 사업 취소를 검토할 정도였다. 그러나 호주 당국이 여행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복합문화단지 조성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 내외의 불교신자와 네티즌들은 신성한 참선 도량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5세기 창건된 소림사는 원래 참선을 행하는 유서 깊은 선종(禪宗) 사찰로, 중국 선종의 시조인 달마 대사가 6세기 초 9년간 이곳에서 면벽 수행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태국 불교계, 정부와 대립각 세워

국가개혁위 "불교계, 개혁해야" VS 태국승가위 "불교계, 신임해야"

태국 불교계가 정부 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India Gazette〉지는 "태국의 불교학자연합(Association of Scholars for Buddhism)이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개혁위원회(National Reform Council)가 태국승가위원회(Thai Sangha Council)를 신임해줄 것을 요구' 하고 나섰다"며 "이를 위해 오는 7일 방콕 로얄 광장에서 7개 불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도법회'를 봉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India Gazette〉지에 따르면, 태국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은 태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국가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왓 프라 담마까야' 사찰 횡령 사건을 기점으로 태국 불교계를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India Gazette〉지는 "당시 국가개혁위원회는 '태국승가위원회'가 '왓 프라 담마까야' 사찰 주지인 프라 탐마차요(Phra Dhammachayo) 스님의 의혹 내용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자 크게 반발했다"며 "현재 국가개혁위원회는 태국승가위원회 위원들과 '왓 프라 담마까야' 사원의 자산을 조사할 뜻을 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SB 사티엔 위폰마하(Sathien Wipornmaha) 의장은 "7일 오후 2시 로얄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기도법회에서 불교학자연합은 태국에서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은 태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국가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왓 프라 담마까야' 사찰 횡령 사건을 기점으로 태국 불교계를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폰마하 의장에 따르면, 7일 기도법회에는 태국불교보호센터(Buddhism Protection Centre of Thailand), 팔리어 · 불법전공학생회(Pali and Dhamma Graduates Association), 불교공헌자협회(Association of Distinguished Contributors to Buddhism), 불교진흥센터(Centre for Promotion of Buddhism) 팔리어학자협회(Level 9 Pali Scholars' Association), 유럽불교네트워크(Network of Buddhists in Europe) 등이 참여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셸 오바마, 일본 불교문화 체험
美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는 지난 3월 말 캄보디아 · 일본 등 유명 사찰들을 찾아 명상, 다도, 불교전통춤 등 불교문화 체험을 즐겼다. 전 세계 빈곤층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렛 걸스 런(Let Girls Learn)'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며 이루어진 사찰순례다. 미셸 오바마는 "불교는 사람들에게 도덕과 지혜를 가르치고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해준다"고 말했다.

박아름 수습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나르센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나르센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KW-BS200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제수 운반 / 고소 연등 설치 /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서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 급 과 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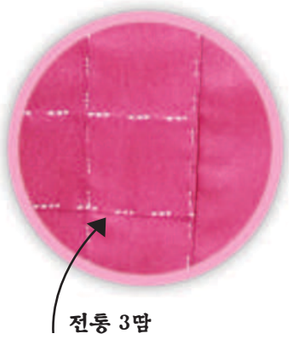
서울 · 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명품승복(가사전문)

※ 광고 홍보기간 동안 할인해드립니다.


전통 3땀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 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홍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몽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박만복(활안수지상) 합장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❶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❷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❸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특 허 증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 (제일시장 내)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45,000원~~ (희담석 합장주, 염주)
⇨ 35,000원
· 크기 : 직경 12mm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메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활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강 의 일 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강 의 내 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접 수 인 원 : 선착순 8명 이내.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❶ 강 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❷ 교 재 :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❸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❹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❺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❻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 낱개 5,000원 • 2개 SET 9,000원 • 3SET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전통에서 창작까지 불교 무용 한자리에

구슬주머니 주최·조계종 후원, 제 1회 불교무용대전 개최



승무, 불교작법, 통도사 학춤 등은 불교 정신을 담은 전통춤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통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 예술을 격려하고, 불교 예술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제 1회 불교무용대전이 개최된다.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대표 이철진 · 사진)가 주최하고 한국춤예술센터가 주관하며 조계종 문화부가 후원하는 불교무용대전이 개최돼 눈길을 끈다.

한국춤예술센터 이철진 대표는 "기독교 재단의 대학에서 선교무용은 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을만큼 발달된 장르다. 또한 일본의 한 무용콩쿨대회에서는 선교무용을 한 분야로 내세울 정도로 발달돼 있다. 승무는 한국 무용의 백미라고 할만큼 한국무용을 이루는 근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용계에서 불교 무용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이웃종교 무용가들의 활약이 크다. 이번 불교무용대전을 통해 불교무용을 정착시키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한다.

이번 무용대전은 전통춤과 창작춤을 아우르는 무대로 불교 무용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불교의식을 기반으로하는 창작춤은 지금까지 꽤 알려져 왔다.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선무, 김기인 선생의 '스스로 춤', 홍신자 씨의 춤 등은 불교 정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격려하고 장려하며 나아가 포교로까지 연결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이번 불교 무용대전은 각계에 흩어져 있던 불교 무용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 무용대전은 불교 소재의 창작 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아마추어 무용가 발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창작춤에 관심을 갖고 안무를 구상한다고 해도 이를 무대에 올릴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무용대전을 계기로 신인발굴은 물론 각 사찰 등에서 불교 무용을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승무, 불교 작법 등 전통춤은 물론
불법승 소재로 하는 창작무까지
불교예술 한 단계 도약의 계기 마련
6월 19일부터 성균소극장서 공연







전통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 예술을 격려하고, 불교 예술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제 1회 불교무용대전이 개최된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통도사 학춤, 마묵 무용단의 창작 춤, 승무

사진=현대불교신문DB

이에 제 1회 불교무용대전은 4월 30일까지 공모접수에 들어간다. 승무 및 사찰학춤 등 전통춤은 물론 불교와 관련된 불법승 삼보를 소재 및 삼보를 비방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창작 춤을 대상으로 한다. 5월 중순 참가팀을 선정해 6월 19일~7월 12일, 매주 금 · 토 · 일요일,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한 달간 선정작을 공연한다. 또한 공모작품은 전문 심사를 거쳐 대상(조계종 총무원장 상)과 작품상(사단법인 한국춤예술센터장 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조계종단을 통해 불교예술로 추천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02)747-503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빨주노초파남보'로 긍정 메시지 전해요

불자가수 남수란 새 앨범 발매
'어르신 음성공양' 보시행 실천도



'빨주노초파남보' 앨범 표지

"이 세상에 올 때는 그 누구라도 똑같은 모습인데 살다 살다 보니 빨주노초파남보 인생이더라/ 얼만큼 배웠냐고 묻지 마세요, 얼만큼 가졌냐고 묻지 말아요. 쉬어가는 인생길에 오늘은 비가 와도 내일은 아름다운 무지개가 뜰거야/ 웃으면서 살아야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빨주노초파남보 우리네 인생/ 빨주노초파남보 우리네 인생"

불자가수 남수란 씨가 '빨주노초파남보'(작사 남수란 · 작곡 최진우)메들리음반을 출시했다. 남 씨가 직접 작사한 이 곡은 각자 다른 색깔로 살아가지만 어떤 모습이든 긍정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태어날 때는 누구나 빈 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제 각각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요. 각자의 업이 다르니까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인생이 즐거워져요. 좀 더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불자라는 사실이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니까요."

남 씨는 1993년 집 근처에 있는 화계사를 다니다 숭산 스님과 차담을 하게 된다. 그때 스님에게서 '홍련화'라는 불명을 받았다고. "당시 스님께서는 음성포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불자가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셨죠. 지금도 어르신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음성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숭산 스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죠."



불자가수 남수란 씨가 '빨주노초파남보'(작사 남수란 · 작곡 최진우)메들리음반을 출시했다.

그는 1997년 정규음반 1집 바람소리를 신곡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1집으로 찬불 음반으로 냈어요. 이후 대중가요를 부르기도 했지만 제가 음반을 낼 때마다 찬불가 '산사의 아침'과 '오작교' 등은 항상 넣고 있어요. 제가 불자가수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부처님 만난 것을 생애 최고의 행운이라 생각하는 그는 오늘도 '빨주노초파남보'를 노래하며 불심의 기운을 담은 긍정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의식과 무의식 사이 균형 화폭 속으로

스페이스선+ 레이시킴 개인전 4월 23일까지



스페이스선+는 불교적 禪을 기반으로하는 레이시킴의 작품을 4월 23일까지 전시한다.

"禪은 마음의 흐름을 따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몸짓은 혼란 그 자체와는 당연히 구별 됩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적절한 합의를 페인팅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레이시킴이 스페이스선+가 선정한 올해의 촉망받는 신진작가로 선정됐다. 이에 스페이스선+는 레이시킴의 개인전을 4월 23일까지 연다.

미국, 덴마크 등에서 수학하며 작품세계를 발전시켜 온 레이시킴의 작품 내면에는 불교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그녀의 예술적 화두는 숭산 스님의 '모른다'이다. 그는 지식이 아닌 무의식과 의식의 균형에서 발생하는 직관적인 '행'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반추하고 본질에 다가가려는 붓질로 이루어진 작품들을 화폭 속으로 옮겨오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붉고 푸른 캔버스 위에는 선들이 앞, 뒤를 알 수 없는 채로 화면 가득 겹쳐있다. 사방에서 중앙으로 뛰어들고 있는 선들은 거침없는 한 획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속력을 다해 달려오면서 여지없이 부딪치거나 아슬아슬 서로를 가로지른다.

이는 그녀가 작품에 담은 무의식과 의식의 균형을 찾아가는 순간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한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100년 前 쌍계사 법당 지화 재현

정명 스님 지화장엄전 4월 14~18일

'정명 스님 지화장엄전'이 4월 14일~4월 18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불교지화장엄전승회가 주최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조계종 문화부, 조계사가 후원하는 전시에서는 지화 전승의 맥을 잇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수륙재, 영산재 등 불교의 의례에 장엄되는 지화와 법당공양 지화, 근대 사진자료와 감로탱화 속의 지화, 일상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화 등 총 50 종류가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할 점은 1916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고적도보〉에 쌍계사 법당 불전 공양물의 사진자료를 토대로 작품이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정명 스님(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찰 스님들이 생화로 의례를 장엄하고 불전에 공양을 올린다. 하지만 옛 고찰에서는 지화를 불전에 올리고 장엄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1916년 〈조선고적도보〉 자료 토대
불교의례 장엄 지화 50여 종 선봬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시의 취지를 전한다.

치자, 괴화, 소목, 쪽 등의 천연염재로 물 들인 한지로 빚어낸 모란, 연꽃, 국화, 작약, 만행화, 진달래, 개나리, 배꽃 등 여러 종류의 꽃이 전시된다. 정혜숙 기자



정명 스님의 지화장엄전 작품 사진

2559년
석가탄신기념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향당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能仁 戒香 계향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특별 한정판으로 생산되며
주문에 의해서 사찰에만 공급합니다.
■ 가격 : 15,000원 (초파일 이후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되거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nihwa.com
02)3663-6777



능인향당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동행, 아프리카 학교건립 선서화전

4월 20일~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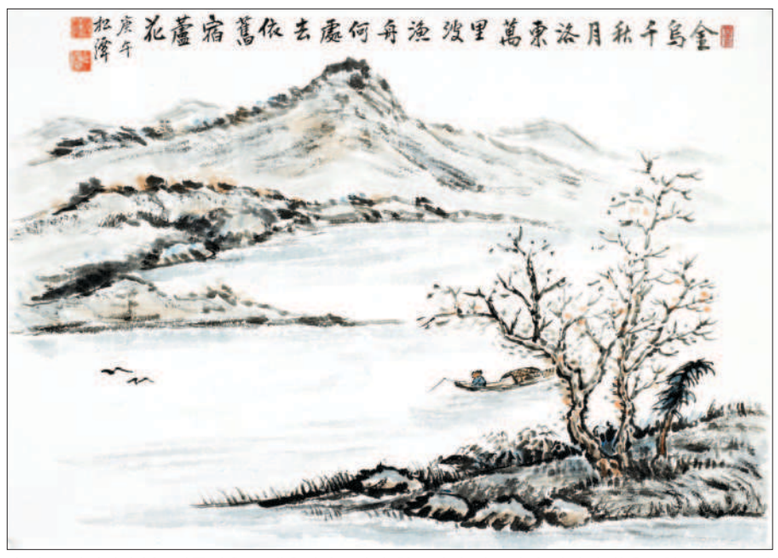
스님들의 소장 작품들이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다.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 이하 동행)이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마련 선서화전'을 4월 20일~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나무갤러리에서 연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학교 건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진제 스님(조계종 종정), 경봉 스님, 송담 스님, 수안 스님 등의 선서화 총 500여 점이 전시된다. 동행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소장 미술품 300여 점을 비롯해 선원 수좌회에서 기증한 30여 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작품 등 교계 각계에서 미술품을 기증 받아 여는 전시회"라고 설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승들과 유명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98년 종회의장 시절 췌장암에 걸렸던 설정 스님(수덕사 방장)은 "죽어도 선방에서 죽겠다"고 다짐하며 소임을 내려놓고 수행에 전념해왔다. 스님의 이런 수행의 경지를 보여주는 '무심'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소멸된 일심의 상태를 말해준다.

10년 묵언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은 송담 스님의 '산수'는 '금오산에는 천년에 달이 요./ 낙동강에는 만리에 파도가 일어났는데/ 고기배는 어느 곳으로 갔는고~/ 옛을 의지하여 갈대꼴에서 자는구나!'라는 시구를 담았다.

이밖에도 조계종 단일계단 수계산림 증사이자 원로회의 의원인 보성 스님의 '만선동귀', 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이자 불화장 제118호인 故석정 스님의 '달마도'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의제 허백련, 심향 박승무, 운보 김기창, 남농 허건, 아산 조방원 등 유명 화백의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송담 스님의 '산수'. 아름다운 동행은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마련 선서화전'을 4월 20일~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나무갤러리에서 연다.

스님들 소장 미술품 500여 점 보시
송담 스님, 운보 김기창 작품 등


경봉 스님의 달마도

2016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는 현재 1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며 총 3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동행은 "2년전 선원수좌회에서 선서화전을 통해 5억원을 동행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기부한 바 있다. 동행에서 주최하는 첫 전시로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개막식은 4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실시되며 이날 KB국민은행 기금 전달식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02)737-9595 **정혜숙 기자**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만해 스님의 만해 관련 시를 작품으로 옮겼다.

새봄은 매화에게 첫 키스를 준다

만해기념관 '신춘 매화 그림전' 5월 31일까지

"쌓인 눈 찬바람에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것이 매화라면, 거친 세상 괴로운 지경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이 용자니라. 꽃으로서 매화가 된다면 서리와 눈을 원망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으로서 용자가 된다면 행운의 기회를 기다릴 것이 없느니라. 무서운 겨울의 뒤에 바야흐로 오는 새봄은 향기로운 매화에게 첫 키스를 주느니라"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특별히 매화(梅花)를 좋아해 1932년 새해 아침에 남긴 글이다.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이 5월 31일까지 만해기념관 기획전시실서 '신춘 매화(梅花) 그림전'을 연다.

만해기념관은 "만해 스님은 눈 서리치는 혹독한 시절 그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지조와 절조, 품격을 유지하면서 민족적 자존을 지켰다. 설중매는 만해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만해 스님은 청년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엄동설한의 매화나무에 꽃이 필 때 차디찬 설중(雪中)에서 그윽한 향기를 토하는 것과 같으므로, 독립에 대한 노력과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했다. 따라서 이번 특별기획전은 만해 스님의 이러한 염원을 꽃피우고 매화 향기를 통해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며 취지를 전한다.

전시될 주요 작품은 만해 스님의 매화 관련시를 매화그림의 화제로 승화시킨 원로작가 홍석창 화백과 현역작가 강옥희 등 총 33점의 문인화를 전시한다.

정혜숙 기자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마음의 잔영 딛고 새로운 음악 펼쳐

2015 아카데미 3관왕
화제작 영화 '위플래쉬'


영화 '위플래쉬'는 천재 드러머를 갈망하는 학생과 그의 광기가 폭발할 때까지 몰아치는 폭군 선생의 대결을 그린 영화다.

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所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늘의 나는 과거의 지은 인연의 결과이고 또한 미래는 현재의 오늘이 결정지어주는 것이라 말한다. 범부중생은 주어진 업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 업이라는 것은 피나는 수행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다고도 한다. 그래서 업은 현재의 나 자신일 수 있지만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한계의 기반이기도 하다.

영화 '위플래쉬'는 천재 드러머를 갈망하는 학생과 그의 광기가 폭발할 때까지 몰아치는 폭군 선생의 대결을 그린 영화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 음향상, 편집상까지 3관왕을 석권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선댄스 영화제를 시작으로 140여개 영화상에서 수상 또는 후보작에 오를만큼 영화는 유명세를 탔다. 또한 위플래쉬, 카리반 등 배우들의 열연만큼이나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다양한 재즈 선율도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영화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주인공 앤드류(마일즈텔러 분)가 드러머로 거듭나는 그 치열한 심리 변화가 너무나 섬세하게 그려진 성장 드라마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구도의 과정을 통해 수행의 경지에 이르는 구도자의 삶과 닮아 있다.

스승 플렛처(J.K시몬스 분)의 지도 과정은 남다르다. 상대의 열등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해 미치도록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차적 공격은 앤드류의 초라한 배경이다. 집나간 어머니, 가난한 아버지. 플렛처는 앤드류의 보잘 것 없는 집안 환경을 건드린다. 열등의식이 공격당하자 무의식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앤드류는 미친듯이 연습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울분을 털어버리듯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손바닥에 피가 흘러넘치도록 밤새 연습을 한다. 플렛처는 묘한 경쟁심까지 조장하면서 앤드류를 극단까지 몰고 간다.

스승 플렛처, 앤드류의 열등감 자극
수행하듯 피나는 노력하며 질주
극단의 한계에 부딪히며 좌절 경험
참회와 성찰 통해 새로운 경지 도달

하나의 목표, 최고의 드러머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면서 미치도록 전진하는 앤드류. 불철주야 용맹정진 그는 드럼 삼매경에 빠지고, 결국에는 가슴 설레게 했던 여자친구에게 절교까지 선언한다. 하지만 그의 용맹정진에는 없는 게 있다. 바로 참회와 성찰이다. 경주마처럼 달리니 그의 질주는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리며 멈추어야 하는 시점이 오고 만다. 열등의식은 앤드류가 최고의 드러머로 가게 하는 도구에 불구했다. 앤드류는 그 도구의 벽에 걸리고 만 것이다.

중국 단하선사(739~824)가 낙양(洛陽)의 혜림사(慧林寺)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겨울 날씨가 하도 차서 법당의 목불(木佛)을 꺼내다 불을 지폈다. 이것을 알게 된 그 절 원주스님이 달려오더니 펄쩍 뛰며 고함을 쳤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단하 선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부처를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는 참일세."

그러자 그 원주는 더욱 화를 내며 대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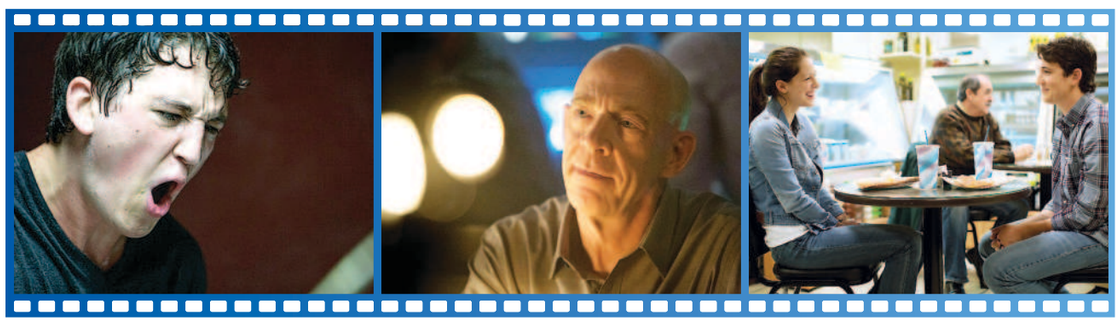
"목불인데 무슨 놈의 사리가 있단 말이오!"

오히려 단하 선사는 호통을 치며 말했다.

"만약 사리가 없는 부처라면 불을 땠다고 해서 나를 책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 앤드류에게 열등의식은 목불에 불과했다. 지나온 시간의 그림자, 화난 업장의 야생마가 그를 달리게 했다면 그는 이제 목불을 버릴 차례다. 그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연주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위플래쉬'는 우리에게 되묻는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그림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의 그림자가 만들어온 현재의 업을 뛰어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혹 목불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3칸겹집 목조건물 : 11,000㎜×6,000㎜×4,800㎜ ■가격 : 평당 1,500,000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700 / 다그라스 대들보 180×210
다그라스목재도리 180×180 / 다그라스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황토홈 ALC 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 자재 –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자연산 구지뽕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1억이상 가능!!
●구지뽕 나무는 잎파리, 가지, 열매, 뿌리 등 전체를 건강식품,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고혈압, 당뇨, 근골강화, 면역력 증진에 특효)
●최고 소득 작물로써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3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500년 이상도 가능)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음으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3년생 7,000주 ▶5년생 5,000주 보유중
개복숭아 묘목분양 (1년생)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솎기, 밭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 한번 심어 놓으면 150년이상 수확 (300년 가능)
※ 전국 최대 묘목 보유! (50주이상 주문 부탁)
구입문의 010-9608-2356(충주농원)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해인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5 ~ 3/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2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법정스님, 최인호	여백
3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스님	불광출판사
4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지승호	운주사
5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스님	민족사
6	숫따니빠따 (빠알리원전번역)	일아스님	불광출판사
7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월호스님, 배종훈	민족사
8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9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10	젠 만다라 컬러링북	Dessain et Tolra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행복하고 싶다면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박진여 지음
김영사 펴냄
1만 2800원

저자의 상담실에 어느 날 한 여성이 예약도 없이 찾아왔다. 그 사람은 여러 해 전, 공무원 시험에 계속 응시했지만 모두 합격하지 못해 다른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다 찾아온 취업 준비생이었다. 내담자의 전생을 읽자 조선 후기의 삶에서 지방 관아 현감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권한을 오용하는 장면이 보였다. 심각한 부정부패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었던 것이다. 누군가 편의를 얻었기에 다른 사람이 짐을 대신 져야 했다. 그때 지은 공무수행의 잘못이 현생서 공무원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카르마(업)를 정화시켜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저자는 지금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와 희생의 시간이 필요하고 5년 정도 걸린다고 상담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6년 뒤, 그때 상담한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다시 방문했다. 얼마 전 7급과 9급 시험 모두에 합격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가슴 한쪽에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전생 리딩이 말해준 것처럼 업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봉사하고 인내하면서 생활하니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전생 리딩 상담가 박진여씨. 저자는 타인의 전생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내담자의 깊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그 무의식 심층에 깊숙이 저장된 영적 정보를 찾아내 내담자의 영적 정보를 읽어내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서 흘러간다. 마치 내담자 자신이 지난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저자는 그 순간 내담자의 기억을 포함한 일체 정보를 그 사람과 공유하는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읽은 전생 정보 가운데 이번 생과 밀접한 내용만을 편집해 내담자의 고민에 답한다.

저자가 이런 능력을 발견한 것은 운명적이다. 대학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한 저자는 병원서 환자의 혈액 채취 실습을 하던 중 특별한 경험을 한다. 채혈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이후의 운명에 대한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져온 것이다. 병원 안에서 자신의 모든 예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경험을 거듭한 저자는 자신에게 운명을 읽는 직감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후 우연히 친구의 최면 전생 상담에 따라간 저자는, 그곳에서 자신의 전생은 물론 다른 이들의 전생까지 읽는 경험한다. 여기서 알게 된 파동 명상 전문가 법운 최영식 선생과의 만남은 저자의 삶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다. 법운 선생은 저자에게 특별한 영적 재능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가르침과 함께 기도와 명상 수행을 통해 능력을 더욱 발전시킨다. 결국 저자는 깊은 명상 의식 상태에서 내담자의 영적 정보가 저장된 차원에 접속해, 30초에서 1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에 상대방의 전생 정보를 읽어낸 후 자세하게 풀어내는 방식의 리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전생 리딩으로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내담자들의 전생을 읽고 상담한 내용과

15년간 전생리딩 경험의 기록 묶어
1만5천명 내담자 상담 사례 소개
고통의 원인 설명하고 삶방향 제시

그 과정서 배운 삶의 메시지들을 기록한 것이다. 현생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큰 차원서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고 진정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안내한다.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고단함은, 우리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시점에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온 영적 약속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든 현생의 고난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면 삶은 놀랍게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자는 오랜 리딩 경험이 가르쳐준 행복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며, 자신이 가진 바를 이웃과 나누라"고. 내담자들의 전생을 리딩하면서 그녀가 거듭 확인하는 사실은, '참된 변화는 다름 아닌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어느 가을 한 40대 여성이 찾아와 자신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리딩을 시작하자 척박한 사막 같은 곳에 자리한 허름한 집이 나타난다. 부모가 일찍 죽거나 미아가 된 아이들을 키우는 고아원이었다. 아이들을 돌본다기보다 입양 보낼 때까지 잠시 머물게 하는 곳이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선택된 아이들은 그곳을 떠났다. 리딩은 내담자가 그 시설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여자아이를 우선 데려갔는데, 그중 어떤 사람이 몰래 돈을 쥐여주는 모습도 보였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지만, 문제는 입양된 다음이었다. 다음 리딩 장면서 아이들이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모습이 나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을 하고 여자 아이들은 남자 주인에게 성적으로 농락당하는 장면도 보였다. 노예처럼 발에 쇠줄을 달고 일하는 모습도 보였다.

불편하고 잔인한 리딩 결과에 내담자와 중간서 안내하는 법운 선생, 저자 박진여 선생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다시 리딩이 이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번 생은 자신이 뜻해서는 아니지만, 자신이 돌보던 고아들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힘든 노동과 성적 착취로 고통받았던 지난 생의 카르마와 연결되어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러한 카르마를 정화하기 위해 희생과 봉사,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영적 목적이 있습니다."

리딩을 마치자 내담자 직업을 미리 알던 중간의 법운 선생이 의아해하며 저자 박진여 선생에게 반문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분은 존경받는 변호사입니다. 훌륭한 인품으로 사회적 역할까지 다하며 봉사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전생 리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자는 법운 선생에게 이렇게 답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카르마를 갚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업을 정화하라는 의미에서 현생에 변호사라는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법운 선생이 다시 저자를 다그치려는 순간 내담자 여성이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아와 성적 착취를 당한 여성들의 무료변론을 해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입양돼 성적 착취를 당한 여성을 무료 변호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현재까지도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내담자는 우연히 그 일을 시작했고 부탁이 오면 그런 변호를 거절한 적이 없었으며, 그렇게 무료변론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면서, 정작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전생을 알면 자신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상담을 청했다고 했다.

이 책의 서문은 다양한 유형의 종교 체험을 연구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성해영 교수가 썼다. 저자의 리딩 과정을 여러 차례 직접 지켜본 종교학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30% 가까이가 윤회를 믿지만, 실증주의적 과학이 지배적인 때에 전생이나 윤회에 대한 주제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학술적 연구가 아닌 전생을 실제로 읽어낸다는 사람의 얘기는 더욱 그렇다. 그러다 보니 책 서문을 쓴다는 것이 대학에 몸담은 학자로서 부담스런 일임에도 기꺼이 응했다.

성 교수는 "박진여 선생은 자신의 오랜 전생 리딩이 준 통찰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요약한다. 어려운 이웃들을 기꺼이 돕고,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함께 나누라고. 그런 진심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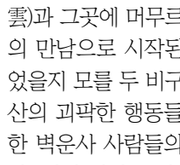
이 책의 상담 사례들은 흥미롭게 읽힌다. 매우 다양하다. 사랑과 결혼, 직업과 각종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부터 성소수자 문제와 불륜, 각종 사고의 원인과 질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궁금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복합판이라 할 만하다.

반면 메시지는 진지하고 간명하다. 다시 한번 나 자신과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 태초부터 인류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살아왔다. 전생을 아는 것은 이 의문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된다. 전생 리딩은 세상에 태어날 때 저마다 풀어야 할 카르마의 숙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생에서 부정적 삶을 살았다 해도 현생에서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고 타인을 배려하면 어느 순간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 상태가 바뀌고 카르마가 정화되면서 삶의 전체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지금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으로 인해 부정적 카르마가 소멸되고 정화된다면, 그 사건들은 오히려 카르마의 엄중한 사슬에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고마운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20대 젊은 날, '나'의 길을 고민한다

만다라

김성동 지음 | 새움 펴냄 | 1만3천원



한국 불교소설의 백미로 평가받는 김성동의 〈만다라〉는 저자가 20대 젊은 날에 겪은 삶에 대한 번민이 고스란히 서린 '잿빛 노트'이다. 이 책에는 당시 산업화 병폐가 나타나던 한국사회와 속세의 가치를 탐한 불교에 대한 직관적 비판이 녹아 있다. 그러나 종교적인 내용들을 모른다고 해서 작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만다라〉는 불교라는 상자 안에 인생의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아,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맹목적으로 불교의 교리가 주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다라〉는 작품에 사용된 불교용어들을 접어두고 읽더라도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때문에 다시 우리 곁을 찾은 〈만다라〉는 작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힐링' 이상으로 자신의 내면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는 자, 그대가 곧 부처다

이야기는 역마처럼 떠돌다 벽운사에 짐을 푼 출가 6년차의 젊은 수도승 법운(法雲)과 그곳에 머무르던 파계승 지산(知山)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운명인지 우연이었을지 모를 두 비구승의 만남. 그러나 지산의 괴팍한 행동들은 법운 스님을 비롯한 벽운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지산 스님의 행동들도 재미있지만 법운 스님의 출가 배경도 이 소설에서 상당한 흥미를 끈다. 본래 그의 아버지는 정국이 어지러운 시절 좌익 정당의 간부를 지낸 마르크시스트였다.

하지만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괴리를 깨닫고 평범한 서생으로 돌아와 자족하며 지냈다. 그러나 그것도 좌익 전력이랍시고 경찰에 끌려간 뒤 한국전쟁이 터져 다른 좌익들과 함께 처형당한다. 어머니까지 집을 나간 후 종조모 댁에 기거하던 법운 스님은 별당에 머물던 지암(智巖) 스님을 만난다. 지암 스님에게 "인간은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은 그는 이것에 인생을 걸어 보기로 하고 출가를 결심한다.

현실적 욕망과 종교적 가치사이의 번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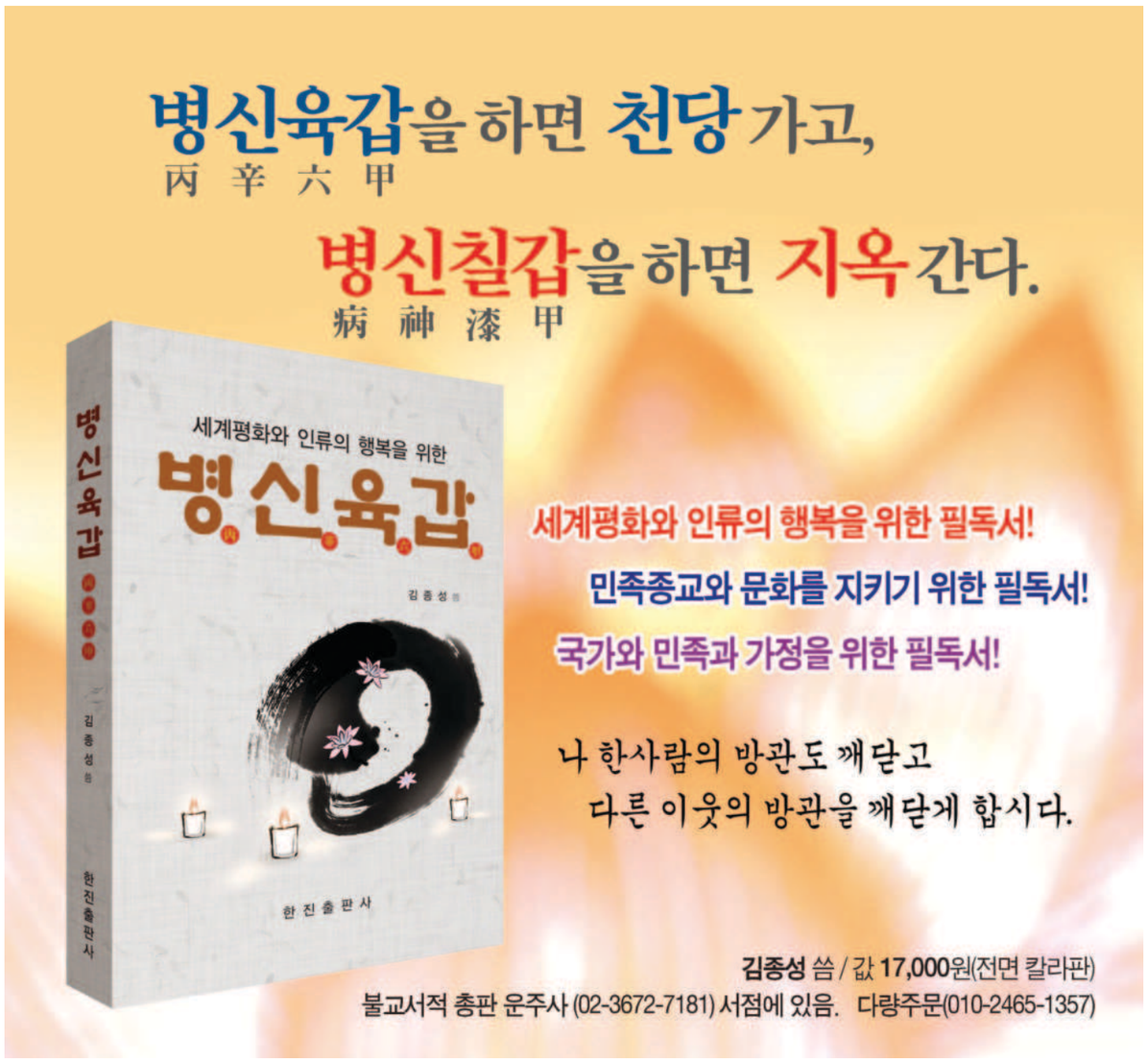
소설 속에는 종교적 수행, 가치와 상반되는 욕망 덩어리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육체, 재물, 혈연, 사회, 불교 교단에 얽힌 욕망들 사이에서 주인공 법운 스님은 갈등한다. 그중에서도 육욕과 자신의 피붙이에 대한 욕망을 떨치지 못해 결국 구도자의 길에서 방황하는 법운 스님. 세속과 종교적 자유 사이에서 번민하는 지산 스님. 이 둘의 결말을 통해 세속적 고민 속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전해준다. 세상사가 어지러운 것은 〈만다라〉가 처음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어딘가에 의지하려하고, 그것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렴되기 쉽다. 이 작품에서도 지산 스님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초심을 망가뜨린 채 파계승이 되는데, 이 행동 또한 자신의 내면이 어지럽기 때문에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도승 본연의 길을 저버린 결과로 나타난다. 의지할 것이라곤 술밖에 남지 않은 파계승의 삶에 우리 현대인의 삶도 투영돼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산 스님은 어지러운 세상살이에 대한 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만다라〉는 나를 망치는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좀 더 풍성하게 채워 줄 소설이다.

〈만다라〉의 생명력 오래도록 지속

김성동의 〈만다라〉는 1979년 한국문학사서 출간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심설당, 삼성출판사, 푸른숲, 깊은강, 청년사를 거쳐 마침내 새움에서 '대한민국 스토리 DNA'로 거듭나게 됐다. 작품의 초판본이 나온 지 햇수로 36년이 지났지만 여러 출판사를 거쳐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힘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81년 임권택 감독에 의해 동명의 영화로 제작됐고 같은 해 각종 영화상을 휩쓸었다. 1992년 프랑스어 번역을 시작으로 영어, 독일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인도문화의 최대 히트상품은 '불교'

에피소드 인도

글 자현 스님 | 사진 하지권 | 불광 펴냄 | 1만 7천원



인도는 여행자들의 천국이다. 여러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분명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다. 그래서 인도 여행을 다녀 온 사람들 대다수가 여정은 힘들지만 또 가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인도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토록 녹록지 않은 여행 환경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일까. 우리와 가장 멀리 있는 문화권으로서, 고정되고 일반화된 상식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나라다. 그래서 인도를 다녀온 사람들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 누군가에게는 똥만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똥도 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묘미는 인도의 이런 생경한 문화가 자현 스님의 해박한 지식에 버무려져 오해와 왜곡의 그림자를 벗고 흥미롭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인도의 문화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잘못됐다거나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인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며, 그들의 문화전통에도 나름의 의미와 곡절이 내포돼 있다.

이 책은 종교 · 철학 · 역사 · 문화를 종횡무진 오가는 종합적 지식인 자현 스님이 동 · 서양문화를 넘나들며 인도문화에 대해 시원스럽게 설명한다. 한 편마다의 에피소드를 꼼꼼히 따라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미지의 문화가 단숨에 풀리며 인도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 하지권 전문 사진작가 찍은 사진 150여 장은 약방의 감초처럼 인도문화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한다.

저자 자현 스님은 박사학위 3개를 취득한 학자이며, 학진 등재지에 100여 편 논문을 수록해 인문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학문적 성과를 이뤄나가고 있다. 걸출한 이력에 걸맞게 그동안 펴낸 30여 편 저서 중 〈사찰의 상징 세계〉 〈붓다순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와 세종도서에 선정돼 문화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을 인정받기도 했다.

여행자의 눈에 비친 인도는 혼란과 경이로움이 교차한다. 어디를 가나 소와 개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오물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오래된 유적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인도를 생각하면 남루한 행색의 명상수행자가 겹쳐 떠오르는 반면, 인도는 핵보유국이자 IT산업을 비롯해 첨단과학기술을 보유중이다. 문화적으로는 영국으로부터 200년간 지배를 받았어도 기독교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는 '제2의 중국' 으로 떠오르며 신흥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고 있다.

이 책은 인도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인도 여행을 다녀왔어도 알쏭달쏭 의문만 증가된 이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그 토대는 바로 다름을 즐기려는, 열려있는 마음이다. 독특하고 낯선 인도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는 시각이 한층 넓어진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필요한 덕목이며, 일상생활서 나와 다른 그 모든 것과 대면했을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이다.

저자 종합적 사고로 인도문화 해설

인도는 여행자들의 천국이요 학교

불교문화, 인도문화 기반으로 탄생

인도문화의 세계적인 히트상품은 단연 불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불교는 더없이 친숙해도 인도는 요원하다. 불교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속에서 2천여 년을 함께하며 인도를 지워버렸다. 원전 대신 팔만대장경 한문 경전으로 불교를 배우고 불상 역시 우리네 생김새로 변모했다. 덕분에 억지로 환기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기억해도 가슴에서는 망각 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고 불교의 탄생은 인도문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 경전과 더불어 문화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부처님은 지금의 스님들처럼 삭발을 했다. 그런데 왜 파마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만 식사했는데, 왜 어떤 불상은 비대한 몸집의 형상으로 표현됐을까? 그것은 모두 시대적인 요청이 반영돼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불상에 콧수염과 상투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살인미소를 머금기도 했으며, 때론 이팔청춘의 젊고 역동적인 모습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인식 속에서 불상을 본다면 우리는 훨씬 흥미로운 시각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듯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문화의 지식을 겸비하고 불상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지적인 만족과 유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불상이라는 종교적인 존상이 뿜어내는 성스러운 의미이다. 이처럼 흥미로운 시선으로 불교에 접근하다 보면, 어렵고 난해하게만 느껴졌던 불교가 훨씬 신선하게 다가오며 불교의 본질적인 의미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다른 종교서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종교의 진수

기독교와 불교, 서로에게 배우다

난잔종교문화연구소 지음 | 김승철 등 5명 공역
정우서적 펴냄 | 2만5천원



이 역서는 일본 나고야 소재 난잔대학(南山大學) 난잔종교문화연구소가 1997년에 개최한 심포지엄의 기록이다. 난잔대학 내에 1974년에 설립된 난잔종교문화연구소는 설립 취지에 맞춰 기독교와 아시아의 여러 종교와의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중에서도 불교와의 대화에 초점을 맞춰 각종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출판에 힘써왔는데, 이 책도 그러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이다. 난잔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얀반 브라후트 신부(1928~2007)의 지적은 이 책의 존재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다.

"종교 간 대화의 시대가 지닌 특징은 '하나의 종교 내의 문제' –단지 하나의 종교에만 관련되는 물음–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나의 종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대부분은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배운다는 것은 기독교와 불교에 공통되는 물음에 대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독교가 묻는 물음과 그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써 제시하려는 대답은 불교의 물음과 대답과 중첩되는 방식으로서 수행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말은 당연히 불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불교의 물음과 대답은 기독교의 그것들과 오버랩 되는 방식으로 물음과 대답이 된다. 타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해진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다.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하나의 지구촌' 이란 '하나의 종교촌' 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라는 종교적 영향사(影響史)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인에게 불교와 대화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자기이해를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근대 이후 기독교와의 만남 속에서 살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불교도들에게도 기독교와의 대화를 통한 불교 이해가 현실적인 과제로서 다가오는 것이다.

원래 이 책의 일본어 제목은 〈기독교는 불교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 제목은 "불교는 기독교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메아리로서 기대한 것이었다. 실제로

1997년 난잔연구소 심포지엄 기록

불교와 기독교 대화 활성화에 시발점

이 책에 실린 불교학자 타케다 류우세이 선생의 글은 그런 메아리로서 읽힌다.

"기독교인이 불교로부터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는 신학적 태도와 그 진중한 겸허함을 자주 목도하게 된다. 반대로 불교인들도 기독교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타종교로부터 배움을 얻고자 하는 기독교인의 신학적, 교의적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비로소 기독교의 종교적 진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렇다면 불교와 대화하려는 기독교와 기독교와 대화하려는 불교,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와 불교의 '종교적 진수' 일 것이다.

일본에서의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가 쿄토학파(京都學派)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 책서 거론되는 주제와 논의의 방향은 한국에서의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믿는다. 쿄토 학파의 사상이 다름 아니라 불교적 전통에 기초하면서 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한국어 출판은 한국서 연구하는 일본의 신학도와 일본서 공부하는 한국의 신학도들이 힘을 합해 번역에 동참해줌으로써 가능했다. 그래서 이 책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연구자들의 학문적인 교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s

'법화경' '믿음' … 참된 신행 키워드

일우 스님의 알기 쉬운 법화경 강의

일우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불교TV 〈붓다의 길을 가다〉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과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 설법해 온 일우 스님이 방송 내용을 재정리해 책으로 엮었다. 전작 〈지금 나의 삶이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면〉이 주로 올바른 불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였다면, 이번 책은 불자로서의 참된 신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법화경〉과 '믿음' 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올바른 불자의 길, 법화행자의 길을 제시한다.

"경전 중의 제일"로 일컬어지는 〈법화경〉은 특히 대승불교권인 중국과 한국, 일본 등서 더욱 사랑받아왔다. 대승불교 사상의 정수를 담았을 뿐 아니라, 신심을 고취시키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거나 사경하고, 널리 전하는 등의 공덕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수많은 영험담이 책으로 엮어져 전해질 정도이다.

저자 일우 스님은 말과 이론만 무성한 현재의 불교는 진정한 불교의 모습이 아니며, 새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는 믿음의 불교, 생활 속 불교, 민중의 불교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불교에 대한 스님의 그런 바람들이 속속들이 녹아 있다. 스님이 가장 강조하고, 올바른 신행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 이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부처님께 맡기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받들겠다는 마음과 신행생활이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물질과 재물과 갑의 위치만을 쫓는 현실에 대해 스님은 묻는다. "과연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서, 분별과 망상과 허영과 아상을 다 내려놓고, 한편으로는 내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 등을 부처님께 진솔하게 드러내, 부처님의 권속으로 부처님을 믿고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스님은 왜 믿음이 중요한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등을 믿음의 경전인 법화경을 통해 설하고 있다.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이 절 안이나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부처님 가르침이 가정이나 사회 속에 투영되고 실천되어서, 건강한 가족관계, 행복한 가정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보살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들을 대할 때 가정이 행복한 공간이 되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생활 속 불교이다.

한편 이 책이 장점은 잘 읽힌다는 데 있다. 물론 경전(법화경) 해설서로서 불교 사상과 개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비유와 생활 속 이야기들로 설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수행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찬탄기도 수행 성취문

만성 스님 지음 | 한진출판사 펴냄 | 8천원



부처님 일대기를 비롯해 제자이야기, 천도의식 등 불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만성 스님이 쓴 〈석가모니 부처님 찬탄기도 수행 성취문〉이다. 저자는 과거 1980년에 〈우주인과 예수〉를 써서 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저자는 "쇠퇴 일로에 있는 불교를 혁신해 불교의 중흥에 이바지 하고자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수행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99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 앙굴리라마는 무간지옥에 갈 나쁜 행위를 많이 했지만 부처님을 만나 아라한이 됐다"며 "계행 중 가장 나쁜 행위가 살생인데 그 것을 99번 하고도 아라한이 된 것은 모두 스승을 잘 만난 덕택"이라고 설명했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예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어 천도법요식이 소개된다. 특히 진정한 천도의 의미도 소개된다. 저자는 "천도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 세계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며 "한문이나 주술적인 진언보다는 읽는 본인이나 참가한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한다.

의미도 모르면서 진언이라는 명목하에 불려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진언 다라니가 만들어진 유래를 비롯해 아라한에 대한 설명, 찬탄기도의 공덕 등이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연속과 불연속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3 밀교학 개론
밀교란 무엇인가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인도문화와 대승불교
塚本啓祥/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돈오돈수와 중도·영원에서 영원으로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그 사상사적 이해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융합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역사와 종교의 변증법적 이해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도겐의 『정법안장』을 중심으로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불교철학과 미술사의 통합적 인식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불전佛典의 성립과 전승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화엄교학의 대성자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유식불교란 무엇인가
후카우라 세이분 저/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실천체계 및 현황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생애 및 사상,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여행을 중심으로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영명 연수의 사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정토불교의 기원과 전개, 교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한국불교 정통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시식, 공양, 송주 의례를 중심으로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가교를 놓다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신행의 사상과 실천, 신라불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천태지자·운서주굉·영봉우익의 주석서들을 종합한 주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신국판양장/556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삼라만상의 변화 자각해 道를 구하다

불교로 읽는 古典

최한기의 〈기학(氣學)〉



손병욱
경상대 교수

기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기학(氣學)은 혜강 최한기(惠岡 崔漢綺: 1803~1877)가 정립한 학문을 일컫는 명칭이다. 혜강은 조선조 후기의 기철학자이자 실학자였다. 그는 생전에 모두 1,000권이 넘은 저술을 남긴 우리 역사상 최대의 저술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저술을 통해서 그는 기존의 성리학과 서학, 그리고 불교를 넘어서는 기학이라는 독특하고도 새로운 사유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당시의 조선조가 처해있던 제반문제를 해결해줄 처방전을 제시하는 한편, 시공을 초월한 보편학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기학은 인문 · 사회 ·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통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가운데서도 그의 기학적 사유체계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일련의 철학저술들인데, 그것은 30대의 〈신기통〉과 〈추측록〉, 그리고 50대의 〈기학〉과 〈인정〉, 그의 철학저술로서는 맨 마지막인 60대 후반에 쓰여진 〈승순사무〉를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학의 학문적 틀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천도(天道)에 바탕을 둔 인도(人道)의 정립과 시행'이라는 틀이다. 이것을 일컬어 천인상행지의(天人常行之宜)라고 부른다. 나중에 〈기학〉에 가면 이 말은 천인운화(天人運化)로 표현된다. 천인운화란 '인간이 천과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천인일치(天人一致)적인 삶'이다. 천인운화는 기학에서 '학문의 근본바탕(根基)과 표준'으로 간주되며, 기학을 '천인운화의 기학'으로 부를 만큼 중요시된다.

이러한 천인상행지의, 천인운화를 혜강은 유교의 개조(開祖)인 주공(周公) · 공자(孔子) 정신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그의 기학은 '지난 성인(聖人)을 계승하여 앞으로 올 미래의 학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계왕성(繼往聖), 개래학(開來學)'을 자임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혜강의 기학적 사유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사대운화(四大運化)와 사등운화(四等運化)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우선 4대운화란 위의 천인운화를 포함한 방금운화(方今運化), 활동운화(活動運化), 통민운화(統民運化)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4대운화에 의해서 기학을 다음과 같이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학은 방금운화를 견문추측(見聞推測)하여 인간의 내면에 품부된 활동운화의 본성을 발현시켜서 천인운화에 도달한 뒤 천인운화의 기준을 수립코자 한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거해 통민운화를 시행함으로써 대동일통(大同一統)의 유교적 이상사회를 실현코자 한다.

이 4대운화에 의해서 기학은 '인식과 실현의 구조'로서 파악된다. 방금운화, 활동운화, 천인운화가 인식에 의한 깨달음의 구조라면, 통민운화는 이 깨달음을 정치와 교육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사회적 실현의 구조이다. 이 중 사회적 실현의 구조를 기학은 다시 4등운화로 설명한다. 일신운화(一身運化), 교접운화(交接運化), 통민운화, 대기운화(大氣運化)가 그것이다. 일신운화란 수신의 요체로서, 깨달음으로 얻은 천인운화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접운화란 제가의 요체로서, 이 천인운화를 가족에게 적용하여 온 가족이 천인운화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통민운화란 치국의 요체로서, 이 천인운화를 국가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운화란 평천하의 요체로서, 이 천인운화를 국가의 범위를 넘어 천하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4등운화를 대표하는 것은 대기운화가 아니라 통민운화이다. 왜 그런가? 기학은 제대로 치국을 이룬 나라가 두루 존재할 때, 대동일통의 평천하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대동일통은 그것이 구호화, 추상화 되어서 그냥 공허한 이상(理想)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기학이 지닌 불교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기학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이 셋이다. 그것은 유도(儒道)와 서법(西法), 그리고 '불교'였다. 기학은 이 셋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취장사단(取長捨短)의 방법에 의해 화삼귀일(和三歸一)시킨 학문으로서, 이때의 일(一)은 곧 기학을 가리킨다. 이에 기학은 일통학문(一統學問)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이 셋의 장단점을 기학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는가?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도의 장점〉 윤리강령과 인의(仁義)라는 덕목.

〈유도의 단점〉 귀신, 재앙(災殃)과 상서(祥瑞)에 관한 것.

〈서법의 장점〉 천문학[曆]+수학[算]+대기에 대한 학설[氣說]로서의 역산기설(曆算氣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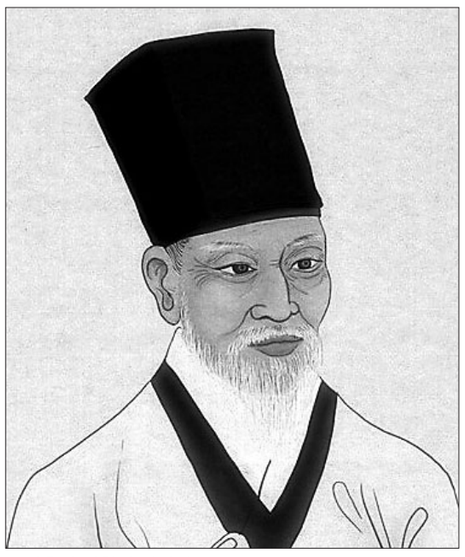
〈서법의 단점〉 천주교의 교리 중 괴이하고 허무한 화복설(禍福說).

〈불교의 장점〉 깨달음의 틀, 만법귀일(萬法歸一)의 궁극적인 본체인 일(一)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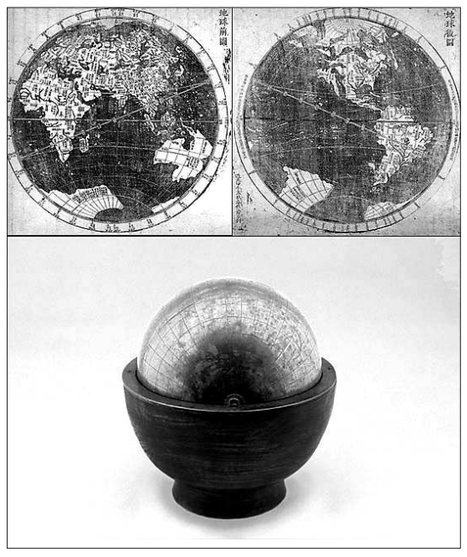
〈불교의 단점〉 실유(實有)를 버리고 허무(虛無)를 취함.

여기서 불교의 단점이란 현상계는 물론이고 궁극적인 본체조차도 실체가 없는 공(空) 내지 허무로 보려고 하는 입장이다. 혜강은 이것을 비판하여 특히 궁극적인 본체인 천(天)은 기불멸론(氣不滅論)의 관점에서 실체가 있다고 봤다. 이때 천은 신(神) · 기(氣) · 리(理) · 형(形) · 운화(運化)의 다섯으로 구성된 형이하적인 것으로서 운화지기(運化之氣) 혹은 대기(大氣)로 불리며, 활동운화의 본성을 지니고 만물을 낳아주는 생명체로서 간주된다. 인간이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의 전범(典範)이 바로 이 천이다.

개인이 천인일치적인 삶인 천인운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품부된 활동운화의 본성을 발현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깨달음'이라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 깨달음을 기학에서는 뜻밖에도 견성(見性)이라고 명명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조선후기 실학자 최한기.



최한기가 소개한 〈지구의〉

화삼귀일로 유불 · 과학 접합
우주와 나 하나로 통해
기학의 연구성과는 불교영향

견문추측법에 의거하여 방금운화를 꾸준히 탐구하다가 보면 천에 대한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정보가 축적될 것이고, 이러한 축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보면 드디어 활동운화 하는 대기의 본성을 체인(體認)하게 된다. 체인은 전체완형(全體完形)의 인식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일컬어 〈기학〉에서는 '견문추측으로 전체대용에 도달[推達於全體大用]하여 대기활동운화의 본성을 보아 얻음(見得大氣活動運化之性)'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간의 내면에 품부된 활동운화의 본성도 스스로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일컬어 '견득활동운화지성(見得活動運化之性)'이라고 한다. 이는 결국 기학적 깨달음인 견성(見性)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이 말은 '천인운화의 본성을 똑똑히 본다(的覩天人運化之性)'는 말과 동의어로서 곧 천인운화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천인운화에 도달하면 '천인운화의 기준'에 의거하여 통민운화를 시행함으로써 대동일통의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방금운화란 '지금여기에서의 운화'라는 의미로 지금현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물리(物理), 인정(人情), 그리고 운화지기를 가리킨다. 불교 역시 '지금여기(now and here)'를 매우 중시한다. 참나(眞我)인 우주와 지금여기는 등가(等價)로 간주된다. 이는 기학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도 기학에서는 불교용어를 무수히 많이 차용하고 있다. 그 용어들을 분류하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불교용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불교용어로는 진면목, 개오(開悟), 돈오, 정각, 전등, 직절법문(直切法門), 중도(中道), 구경법(究竟法), 보각군생(普覺群生)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불교용어는 무상대도(無上大道), 연기(緣起), 산하대지허공(山河大地虛空), 선종창학(禪宗倡學), 성문(聲聞), 공적(空寂) 등이다.

셋째, 불교에서 차용하여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용어는 화삼귀일(和三歸一/會三歸一), 근기(根器/根機), 사재탈락(渣滓脫落/身心脫落), 유아독존(唯我獨存/唯我獨尊), 제피안(彼岸/度彼岸), 통만귀일(統萬歸一/萬法歸一), 보시(報施/布施), 가국천하타성일체(家國天下打成一體/打成一片) 등이다.

기학과 불교는 어떻게 같고 다른가?

기학과 불교가 다 같이 보편학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성(佛性)이라고 하고 기학에서는 활동운화지성(活動運化之性)이라고 한다. 이 보편성을 뭐라고 부르건, 이 '자리'에 입각하면 인간은 시공을 초월한 우주적 존재가 된다. 이 경지를 주객일체, 만물일체, 만성일체(萬姓一體) 등으로 부른다. 그리고 언제나 이 자리에 입각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보편성을 발현시키는 깨달음이라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과 성이 동일하다고 보는 데서도 기학과 불교는 동일하다.

비록 두 학문이 그 깨달음을 견성이라고 표현할지라도 그 내용은 상이하다. 기학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탐구만으로 궁극적인 경지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불교적 견해를 비판한다. 그리고 성리학의 입장도 비판한다. 성리학에서는 그 본체인 리태극(理太極)이 내면과 외물에 똑같이 품부되어 있다고 보고, 내면에 있는 리태극을 발현시키고자 외물에 나아가 그것을 거경궁리(居敬窮理)함으로써 리일(理一)의 관통성(貫通性)을 체증(體證)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기학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리태극은 그 실재성(實在性)이 검증될 수 없는 관념의 소산일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비록 리태극을 깨달아서 성의-정심을 거쳐서 수기(修己)가 완성된 성인(聖人)의 경지에 도달하였더라도 이 경지는 도덕적인 완전성을 보장할지언정, 그것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기학적 깨달음의 특징이 드러난다. 활동운화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활동운화란 생명성(活), 운동성(動), 순환성(運), 변화성(化)의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고 막힌 곳을 뚫는 매우 역동적이고 신바람 나는 창의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전범인 천을 활동운화적 존재로 보기에 이런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혜강은 서양 천문학을 통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활동운화를 천의 본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인간의 도덕적 건전성 못지않게 육체적 안락함, 물질적 풍요로움과 연관된다고 봤다. 그렇다면 어째서 기학적 깨달음이 이러한 활동운화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기학적 인식의 대상인 방금운화는 '같은 것'과 '다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자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방금운화의 하나인 물리의 경우, 그것을 '개물마다 각각 다르게 품부 받아 지닌 천리'라는 의미의 물물각수지천리(物物各殊之天理)로 이해하며, 따라서 이 물리는 천리의 측면에서 보면 같고 물물각수의 측면에서 보면 다르다는 것이다. 나머지 방금운화인 인정과 운화지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방금운화를 오랫동안 견문추측하면 객관적인 추측의 이치(推測之理)가 내면에 쌓이기 마련인데, 이것을 활용하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하고 편리한 각종 도구의 발명과 물질적, 육체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편으로 언젠가는 이 추측의 이치 가운데서 대동의 보편자이자 기일(氣一)의 관통성인 활동운화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기학은 불교와 성리학은 물론이고 서학과도 다르다. 불교와 성리학은 대동의 보편자인 같은 것만을 보려고 하였다면, 서양과학으로서의 서학은 다른 것에만 주목하고 같은 것을 도외시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학과 불교의 '지금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도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둘 다 지금여기란 참나인 우주라는 유기체(有機體)를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우주세포의 하나라고 보며, 나아가 이 우주세포 속에는 우주적인 정보가 온전히, 고스란히 들어있어서 이것을 발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방법은 서로 다르다. 불교는 회광반조(廻光返照)의 수행법에 의거하여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하고자 한다면, 기학은 외부의 방금운화를 견문추측 하여 내면의 '지금여기에 항상 이르러 있는 활동운화'를 드러내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동시에 탐구해 나가게 된다.

이상의 고찰에서 기학이라는 학문체계 정립에 있어서 불교가 끼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혜강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을 알려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기학이 지닌 깨달음의 학문으로서의 특징은 불교에서 영향 받은 바가 매우 컸다고 하겠다. 앞으로 기학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도외시해 왔던 이런 점들에 주목하면, 현실적 의미가 배가 되는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연구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탈 종 공 고

• 법명 : 관능 (속명 황봉구)

• 주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669-1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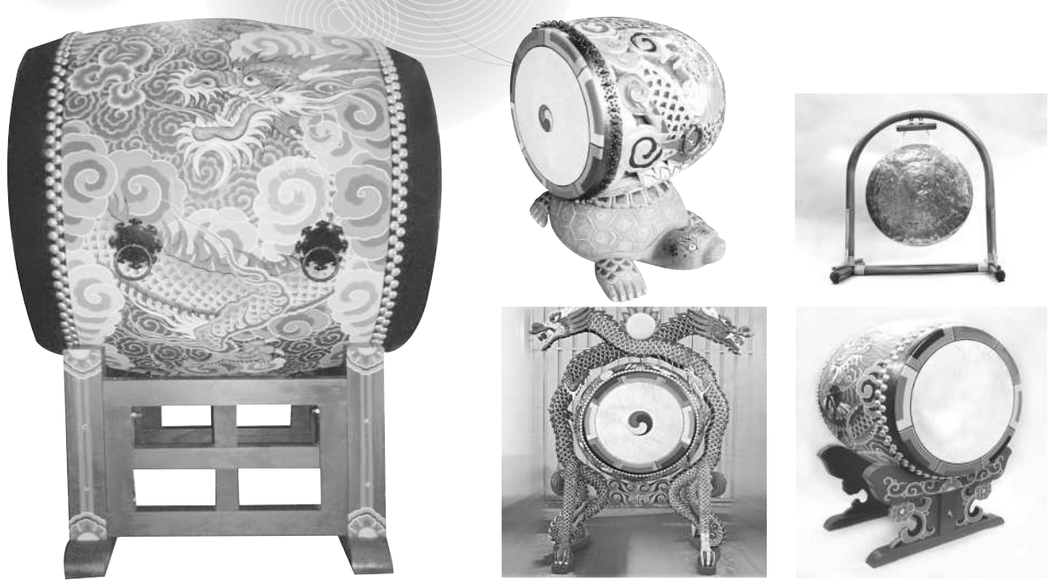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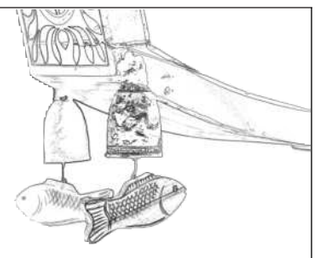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떤 이론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어떤 가르침이 남들의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도 말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말에 현혹되지 말라.

- 중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우주광명 기(氣)천도재
사바세계최초 "재물(음식)을 차리지 않고 목탁, 염불"을 하지않는 우주광명 신통력 기천도재
각종질병,우환,업장소멸과 완벽한 조상천도 / 장애로 인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움 해결 / 가장빠른 깨달음과 해탈 사후 극락왕생 / 아미타불 일광부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우주 기천도재
우주광명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실전 방편술
명리와 귀장술 - 1개월 완성
기초를 알면 - 1주일 완성
사찰운영 하시는 스님, 보살님
무속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성불을 받는가?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호산 합장 010-5960-4984

수행식 중화요리 특허출원
새로운 메뉴 탄생, 밥두부 출원,
짜장이나 짬뽕이 국수(면) 종류지만
소승의 출원은 불교적인 메뉴개발,
채식의 변화 대중화, 연구비만 받고
자금부족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41-542-1120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인과의 업장소멸 해법
만사 만생의 고를 풀어가는 글문 비방
- 불치병(병명無)
- 빙의(신병)
- 사업,소원,가정사상담
- 알수 없는 풍수탈
- 인생의 고는 인생방정식의 해법으로 답을 찾자
- 번뇌 해탈은 불정사에서
불정사 도정 치우 합장
051)558-5585.010-4593-2918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청암 달마도
장당 5천원 (40cm × 60cm)
선물이나 불사용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친필 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10장 이상이면 사찰명,
법명 써 드립니다
010-2953-8770 / 051) 202-8770
www.달마.kr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748-3004

공양주 보살님, 일 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65세이상)
(울진 영명사)
010-2078-959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학인스님 가능)
(경주)
010-3746-8887

주지 시봉 보살 (공양주) 모집
조건 : 운전가능, 숙식가능
컴퓨터 활용가능
급여 : 150만원 이상
이메일 : sbs3049@naver.com
(부산 온천장 삼봉사)
010-4484-57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010-4450-2500

천도재,49재,점안식등
모든행사 봉행함
영남범음범패,바라작법,오공양무 지전무,
살풀이,극락무등
010-8674-3839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신심있는 공양주
2분과 거사님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010-7275-3730 원주스님
042-825-1724 종무소

빈절, 관리하기 어려운 절
절충하여 관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주 풍수에 능함)
현재 조계종 사찰에 있음
010-7121-94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에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 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육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구성학+현공풍수양택 무료공개강의
(4월16일 목요일 오후 3시30분-6시30분)
1. 구성학 인연관법으로 본인과 인연되는 조상영가, 대인관계, 재물운, 직업운, 부부운 등을 정말로 쉽게 찾을 수 있고, 운세을 개운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래정 및 점단 적중 확률이 실제로 높은가?
2. 현공풍수 양택을 내집, 내가게, 내사무실에 적용하면 정말 잘 맞고,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타고난 운명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
* 구성학+현공풍수양택 개강일 : 4월 23일(목)오후3시-7시(4시간씩 16주)
*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2호선 전철 서울대입구 3번출구 전방 80m 버스승강장 옆 안경박사 골목 전방 100m 좌측 세종오피스텔 317호
* 010-5116-9313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사람을 찾습니다
전원생활하시며 노후를 즐겁게 보내실 분. 비구, 비구니, 불자님
45 ~ 65세 부부환영. 신축주택 무료사용. 경우에 따라 식사 제공 가능.
김천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면 소재지 부근 계곡물 콸콸,
남향집이며 시내버스가 집앞에.
• 주변여건 : 대형 복숭아, 자두, 표고, 감나무 정원
• 조 건 : 3천만원 이상 투자 가능한 분, 투자가치 확실하며 등기도 가능합니다.
현재 비어있는 세 집이 있으며 수백평 정원이 정리되어 있고 마당에 잔디,
주차장 완비 총면적 약 3천평이며 유실수 등 텃밭도 있습니다.
기타 상세문의는 전화요망
전화 010-9923-2452 / 팩스 054)434-245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쪼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마음으로 밖을 관찰하고 또 안을 관찰하면 사유를 통해 저절로 기쁨이 생겨 다른 사람들과는 그 마음이 다르게 될 것이다.

- 불설아함정행경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도심사찰 양도
- 목조법당과요사채(방사7).산신각.창고
- 토지 730㎡ 납골터.텃밭.주차장.노천불
- 양도금액 : 5억6천만(융자 2억)
- 원주 횡성 5분거리. 최고위치임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010-5369-4154 (창건주)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소양리 22-31
- 대지 1,240평
- 산식각, 미륵불, 요사채 없음 암반수
- 가액 : 9,000만원

010-3763-2809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 삼존불, 방 5, 공양간
- 평수 85평
- 가액 : 전세 4,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백만원 (절충가능)

010-8384-775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부지 : 65평 ◎ 종교용지 : 1300평
◎ 법당 : 30평 ◎ 법당 : 50평,전각3채
◎ 요사 : 60평 ◎ 요사 : 30, 100평
◎ 양도 : 10억 5천 ◎ 양도 : 17억 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주시 계곡접(폭포) 관광사찰 양도
* 요사건물80㎡,스님실79㎡, 법당,산신각 등 건물 5동
* 토자 6.400㎡ 법당.산신각기와 단청됨.바위계곡접
* 양도가 : 12억(주차장. 전설과 문화재 급 있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산시 남부시장내
- 평수 : 34평
- 보증금 2,000만원 달세 25만
- 보증금 3,000만원 달세 15만
- 전세 5,00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합니다
- 부동산은 연락 자제 해주세요

010-9906-9668

청 평 한 옥 안 내

- 위치: 청평
- 대지 :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큰방1, 작은방 2개 중 하나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

직거래 010-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건평(법당, 요사) : 329.4㎡
- 창고, 기타 : 약 15평 외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되어 있음
- 석등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5천

010-7582-0098

도심 속 사찰 안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신고잔 로데오거리
- 5층 건물 중 5층
- 총 150평에 실평수 75평 마당에 조립식 건물 두동(2동)
- 현재는 부처님 모셔져있지않음 주위에 300전세대 아파트 입주
- 방4개, 화장실2개 엘리베이터, 복도 남녀화장실
- 양도가액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010-9000-2291화주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기가 막힌 명당터"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621, 621. 623
- 가셔서 느껴 보신후 전화 주세요

010-3519-5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곡성 3대명산 설산
- 암석으로 사자형상(사자앙천혈)
- 산 :1만3천평/ 종교부지 : 650평
- 건물 : 경량철골판넬 3동
- 식수 : 암반 지하수 (상수도인접)
- 특징 : 사찰, 연수원, 선원, 별장, 광주광역시 20분거리
- 가액 : 4억 2천 (절충가함)

010-7732-237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 40평
- 대웅전1, 서재1, 큰방 1, 작은방1, 주방겸 거실 1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108소불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 시설비는 협의 가능

010-8653-32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버스정류소 앞
- 2층 약 60평, 큰법당, 방3 샤워실, 큰 공양간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시설 환경 A급
- 가액 :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7337-1727

명당사찰 및 별장터안내

- 위치 : 포천 왕방산 대진대학 우측 중앙 위치
- 군신동조 혈자리 금시발복 거부장자 문무겸전 터
- 대지 300평, 1층 100평 / 2층 100평
- 가액 : 8억 5천

010-9292-31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하철 부근)
- 평수 : 약 45평
- 법당, 방 3,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 4,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 (엄청 싸게 드립니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505-010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150-22(청용안 1길 4)
- 전통기와 한옥건물 대지106평, 건평52평,법당 22평,거실,방3, 후불탱화 4×8 1점
- 신중탱화 1점, 대리석 법단, 태양광 발전설치
- 가액 :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4705-7711

010-6252-7711

사 찰 안 내

- 위치 : 홍천군 홍천강 상류, 경치 좋음. 경춘고속도로 경유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종교부지 312평, 대지 200평, 목조법당 30평
- 요사채 : 30평
- 가액 : 2억 6천

033-434-1365

010-2665-9978

명당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오대산
- 법정스님 집필 하시던 주변 50M 거리
- 좌청 우백 안산이 완벽 수려한 삼길육수
- 1,000평(대지 100평 포함)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십시오

010-2678-0727

사찰 최적지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282-8 남포저수지 앞
- 옥마산 정기를 받은 사찰
- 법당 외 부속건물 3채
- 건평 52평, 토지 377평
- 가액 : 3억 2천만원(주인직)

010-6444-4252

041-934-84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 지역
- 전체 75평, 건평 24평(작은 텃밭)
- 1층 방3, 주방, 욕실, 마당해수관음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시설일체완비)
- 시장안에 위치해 포교하기 좋음

011-9542-8250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에서 20분거리
- 바닷가 5분거리 뒷산을 끼고 경관수려
- 별장 및 전원주택지, 채전밭 황토찜질방, 주차 6대
- 임법당 30평, 가건물 20평
- 토지 150평(등기 78평, 국유지 72평)
- 인근 대규모 아파트 개발 중
- 가액 : 1억 7천 300만원
- 법당 및 주방시설 완벽

010-4392-2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 평수 30평, 법당, 방2, 주방, 욕실
- 건물 4층, 옥상사용가능
- 아파트, 주택지역, 버스정류소앞, 전철3호선, 6호선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기타 집기일체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900만원(절충가능)

010-9511-084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5분거리
- 평수 : 종교부지 300평, 임야 300평
- 법당1, 산신각1, 요사채1동 33평, 약사기도 도량임
- 가액 : 2억 7천만원 (은행대출 6천 5백) (시설물 일체)

010-7183-0114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강남 최고 요지로 주변상권 좋음. 전철 10분 거리
- 양옥으로 포교원 겸 토굴
- 남향으로 깨끗하고 아늑함
- 정원조성 되어있음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 월세 18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259-87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 189평, 법당 23평 요사 : 35평
- 창고 및 암반수. 시내 7분거리
- 가액 : 2억 3천만원

010-2813-1381

010-3194-3738

사찰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단 범종은 조성가에 구입하기기 바랍니다
- 위치 : 충북 괴산

010-4896-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4억 3천(융자 있음) (절충가능)

010-3186-0361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평, 인법당10평 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 임야 : 총 9,260평 중 계획관리 약 1,000여평
- 아름드리 소나무 숲
- 전기, 지하 암반수 완비
- 가액 : 일억 일천만원

010-8998-966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로 11
- 아담한 법당 포교활동 최적지
- 평수 : 30평
- 가액 : 보증금 500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7740-600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 수십년된 명당터 사찰
- 대지 420평, 법당 1동, 요사채 1동
- 공찰소임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저 함
- 가액 : 협의 조정

010-4263-0801

사 찰 안 내

- 위치 : 소백산 부용봉 산하 (예천군)
- 산사 평수 2,000평, 대웅전, 지장각, 산신각 요사채 1, 주거공간 1, 창고 1
- 사찰 옆 과수원 1,550평을 택지 부지로 조성해 놓았음
- 텃밭 300평, 시가 억대 되는 소나무 6그루 정도 있음
- 사찰까지 진입로 포장 되어있음

※ 경치 최고로 오셔서 보시면 대만족 하실 것입니다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0-5203-1326

010-8829-63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관내
- 평수: 대지 167평
- 법당: 15평,(블록조)
- 칠성당: 3평(콩크리트벽조에 전통한옥지붕)
- 요사채: 판넬 33평 5년된 신축건물
- 마을뒤편 야산아래 남향, 경내에 100년된 고목이있음,
- 가액: 1억7천(절충없음)

010-9664-9127

경내로 청정수가 흐르는 조용한 수행 도량임

- 위치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대지: 1408(약 425.92평)
- 전 : 83㎡(약 25.1평)
- 임야 : 103㎡ (약 75.02평) (주차장 완비)
- 가액: 3억 6000만원 (금액조정가능)

010-5479-5779(공산)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밀양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시설비 일체 없음
- 보시고 결정
- 가액:전세 2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010-8620-8889

포교원 안내

- 위치: 광진구 구의동
- 약 60평 2층에 2층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2개, 화장실 겸 욕실 2
- 가액:2,000만원에 120만원 시설비 삼천만원

010-5497-766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 5층 중 3층(32평)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소불 100불
- 시설완비(공양간, 방1, 실내화장실)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010-8423-2335

010-7430-1192

전망 좋은절 안내 (신축건물)

- 대웅전 22평, 총 160평
- 삼존불, 각단 탱화, 소불
- 가액 : 대출 4천 안고 가액 2억 1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성당동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2014년 11월 신조성,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 2차선 대로변 2층,
- 가액: 보 300만 월35만, 시설비 1,200만원 합 1천 5백만원, 절충 없음, 방없음

053-651-1514

사찰 (급) 안내

- 위치 : 김천시 대덕면
- 조용하고 깨끗한절
- 넓은마당, 주차장, 텃밭, 연못
- 대지(종교용지) 380평
- 법당, 40평, 요사채 40평
- 삼존불, 108소불 등
- 가액 : 2억 7천만 (다소 절충 가능)
- 시세이하

017-217-191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산
- 2층 중 1층, 약 150평
- 법당 최고시설,
- 온천물 24시간 사용가능
- 주차시설완비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3574-3303

50년된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 법당, 방사, 공양실 합 50평
- 지하철 2분거리
- 몸만 들어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4,000만원, 월세 30만원
- 절충 가능함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내 전철에서 5분
- 몽땅 : 2억

010-8861-1785

재가불자 수양관

- 위치 : 대학병원 5분거리, 대전 보문산 공원
- 재가신도 세분(3인), 스님 두분(2인) 모십니다
- 스님 직접 운영함

상담 010-5407-80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경주 동국대 15분 거리)
- 건평 : 230평
- 방3개, 공양간, 산신각, 법당
- 집기류 일체 두고갑니다
- 몸만 오신면 법회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5천(조절가능)

054)334-669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7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
- 양도가 : 2억

010-4855-7205

010-3036-7678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틱낫한 스님(승려 · 평화운동가)

〈1〉 먹는 것과 화내는 것

"먹는 것, 보는 것 등 모든 소비를 자각적으로"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세계 불교계의 큰스님으로 존경받는 틱낫한 스님은 그 어느 것도 화를 푸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스님은 함부로 떼어낼 수 없는 신체 장기처럼 화도 우리의 일부이므로 억지로 참거나 제거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화를 울고 있는 아기라고 생각하고 보듬고 달래라고 충고한다. 화가 났을 때는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극에도 감정의 동요를 받지 않고 늘 평상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바로 이 책 〈화–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Anger)〉(명진출판 刊)에서 스님은 그 방법을 전하고 있다. 본지는 책의 내용을 발췌 · 요약한다. 〈편집자 주〉

눈 돌리면 화나는 것 투성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화를 안고 살아간다. 화는 기쁨, 슬픔, 즐거움, 두려움 등과 같은 일상적인 감정들 중 현대인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출몰한다. 그 원인에는 타인과의 부딪힘이나 욕구에 대한 불만족, 과다한 경쟁, 잦은 스트레스 등을 먼저 꼽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먹는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닌 하나라 했다.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다. 그러므로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고, 마음의 병 또한 몸의 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절망할 때, 혹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할 때 우리의 몸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분노와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먼저 식사와 소비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식사는 문명의 한 단면이다. 우리가 음식물을 재배하는 방식,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 그리고 그것을 먹는 방식이 문명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고통을 몰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화를 일으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에 화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에는 화가 들어 있다. 계란이나 닭고기에도 엄청난 양의 화가 들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먹는 셈이며, 따라서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화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음식을 잘 살펴서 먹어야 한다.

요즘에는 닭이 최신 시설을 갖춘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된다. 닭이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흙 속에서 먹이를 차장 먹지도 못하고, 순전히 사람이 주는 모이만을 먹고 자란다. 늘 비좁은 우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밤이나 낮이나 늘 서 있어야 한다. 걷거나 뛸 자유가 없는 상태를 상상해보라. 틀림없이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닭들도 당연히 미쳐버린다.

닭이 알을 더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인공적으로 밤과 낮을 만들어낸다. 조명등을 이용해서 낮을 짧게 만들고 밤을 길게 만들면 닭은 그새 24시간이 지난 것으로 믿고 또다시 알을 낳는다.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이 닭은 결국 엄청난 화와 좌절과 공통을 안게 된다. 닭은 그 화와 좌절과 고통을 다른 닭을 공격함으로써 표현한다.

닭들은 부리로 서로를 쪼다. 그래서 피를 흘리며 죽는 닭이 무수하다. 극심한 좌절에 빠진 닭이 서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는 닭의 부리를 잘라버린다.

그 같은 닭이 낳은 계란을 먹을 때 우리는 그 화와 좌절을 먹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화를 먹으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그 화를 표현하게 된다. 우리는 행복한 닭이 낳은 행복한 계란을 먹어야 한다. 우리는 화가 난 암소에게서 짠 우유를 마셔서는 안 된다. 순리대로 자란 암소에게서 짠 유기우유를 마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농부들이 가축을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기르는 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또 유기적으로 길러진 채소를 사 먹어야 한다. 값이 더 비싸지만, 적게 먹으면 된다. 우리는 적게 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화를 먹을 뿐만이 아니라 눈과 귀와 의식을 통해서도 화를 우리 몸에 받아들인다.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행태도 화와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화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잡지에서 읽은 것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또한 독성을 품고 있을 수가 있다. 그것들도 화와 좌절을 내포하고 있다. 영화는 비프스테이크와도 같다. 거기에 화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곧 화와 좌절을 먹는 셈이 된다. 신문기사나 타인들과의 대화 같은 데도 많은 화가 들어 있을 수 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더러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진다. 한 시간쯤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이 품고 있는 엄청난 양의 독성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엄청난 양의 화가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 우리가 모든 형태의 소비를 자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방송에서 뉴스를 들을 때,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어떤 문제를 놓고 타인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늘 유의해야 한다.

많이 먹어도 화는 풀리지 않는다

슬픔과 절망을 잊으려고 먹는 것을 도피처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과식은 소화계통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하여 화를 일으킬 수 있다. 과식을 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산된다. 이 과도한 에너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분노의 에너지, 섹스의 에너지, 폭력의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적게 먹을 때 우리는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의 절반만으로도 충분하다. 잘 먹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열다섯 번쯤 자근자근 씹은 뒤에 삼켜야 한다. 그렇게 천천히 먹으면, 음식이 입 안에서 액체가 될 때까지 씹으면, 창자에서 영양소가 훨씬 더 많이 흡수될 수 있다. 많이 먹기만 할 뿐 소화가 되지 않아서 애를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깊은 수련이다. 나는 음식을 한 입 한 입 아주 천천히 즐기면서 먹는다. 그 음식을 자각하고,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수련을 통해서 익힐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음식을 즐기면서 아주 신중하게 씹어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이따금 쉬어가면서 같이 앉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아무 근심걱정도 하지 않고 편안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자각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화와 불안을 섭취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남이 정성스레 만든 음식이라면 그 즐거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음식이 입 안에서 거의 액체가 되면 그 맛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해서 입의 움직임을 낱낱이 자각해야 한다. 그러면 음식의 참맛을 음미할 수 있다. 버터나 젤리를 바르지 않은 바싹 바르지 않은 바싹 마른 빵에서조차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또 흔히는 우유를 곁들여 마실 것이다. 나는 우유를 절대로 마시질 않는다. 나는 우유를 씹어서 먹는다. 입에 빵 한 조각을 넣고 정신을 집중해서 씹다가 우유를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는다. 그리고 우유를 의식적으로 빵과 함께 씹는다. 그 맛이 얼마나 깊고 좋은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모를 것이다.

음식이 침과 섞여서 액체가 되면 이미 절반은 소화가 된 셈이다. 그 음식이 위와 창자에 도착했을 때는 소화가 지극히 쉽게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영양소의 대부분이 체내로 흡수된다. 그렇게 음식을 씹을 때는 커다란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면 자연히 적게 먹게 된다.

손수 음식을 차려 먹을 때는 눈을 조심해야 한다. 절대로 눈을 밀어서는 안 된다. 과식을 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눈이다. 우리는 눈이 원하는 만큼 먹을 필요가 없다.



> 우리는 음식, 눈 · 귀 의식 통해
> 화를 몸 안에 받아 들여
> 화를 막으려면 소비 전략 세워야
> 5가지 자각훈련은 건강을 증진

음식을 의식적으로 먹는 것을 익히면 눈이 원하는 만큼의 절반만을 먹고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호박이나 당근이나 빵이나 우유 같은 간단한 음식을 그저 천천히 잘 씹어서 먹는 것이 일생 최대의 식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이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의 수련센터 플럼빌리지 사람들은 이처럼 매우 의식적으로, 매우 천천히, 음식을 씹어 먹는 수련을 오랫동안 해왔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길 바란다. 그러면 우선 몸에서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마음에서도 의식에서도 기분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눈은 위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의 에너지로 눈을 길들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음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수도승들이 사용하는 밥그릇을 바리떼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적당한 양을 재는 그릇'이라는 뜻이다. 우리도 그러한 밥그릇을 사용하면 눈에게 기만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그릇을 채우는 만큼이면 누구에게나 충분한 양이 된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사는 데 비용을 적게 쓰게 된다. 비용이 적게 들면 조금 값이 비싸더라도 유기농으로 재배된 음식을 살 여유가 생긴다.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쉽게 실천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유기농 재배로 생계를 꾸리고자 하는 농부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다.

다섯 가지 자각 훈련

우리는 누구나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의지에 바탕을 둔 식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자면 먹는 데서도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 다섯 가지 자각 훈련은 세계와 우리 개인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비결이다. 하루하루 우리의 소비 행태를 깊이 반성하는 것이 곧 이 다섯 가지 자각 훈련을 실천하는 셈이 된다.

이 자각 훈련은 의식적인 소비의 실천, 개인과 사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식생활의 실천에 관한 것이다. 무의식적인 소비로 인해서 빚어지는 폐해를 직시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각오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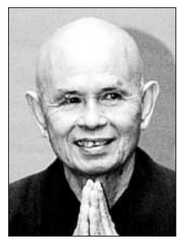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나 자신과 가족과 사회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할 것이다. 나는 나와 나의 가족과 사회의 몸과 마음속에 평화와 복지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들만을 먹으리라고 다짐한다. 나는 술이나 마약처럼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독소가 들어 있는 음식이나 TV 프로그램, 영화나 잡지, 책을 외면할 것이고, 그러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화와 좌절과 절망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이 자각 훈련에 따르는 삶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술을 의식적으로 마시면 술이 고통을 자아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술을 마시면 몸과 마음에 병이 일어나고, 길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술의 제조 자체가 고통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다. 술을 만드는 데 곡물이 소비되는 만큼 세계의 식량부족 사태가 늘어난다. 먹고 마시는 것을 자각하면 이 같은 사실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된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명진출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 승려이자 평화운동가로 전 세계인의 정신적 스승이다. 베트남전쟁 당시 죽어 가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과 평화운동을 이끌었다. 이 공로로 1967년 마틴 루터 킹 목사로부터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받기도 했다.

베트남 정부의 박해를 피해 1980년대 초 프랑스로 망명한 스님은, 보르도 지방에 수행공동체인 플럼빌리지(자두나무 마을)를 세우고 달빛처럼 은은한 미소로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시작했다. 이후 플럼빌리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불자 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iom@hanmail.net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까지 7분거리
• 대지 505평 등기 필
• 요사채 38평, 후면 창고 15평
• 요사채 위 법당 20평 2층
• 옥외화장실 6평 내 창고재중
6층석탑(제주석)
• 가액:방문시 절충요
• 불필요 전화 특히 사절
010-7517-7037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바다가 보이는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위치한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앞은 탁트인
남향바다를 바라보고 있음
• 도로 전기 조명
농막허가(콘테이너)한동 설치
• 지목은 전(관리지역) 총 평수 1,104평
• 건축허가 가능
• 가액 : 2억 (주인직거래)
010-2002-1000

사찰 요양원 부지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10번지
종교부지 700평 요사체 40평 1동
• 여러용도로 사용가능
• 평수 : 전체 약 3,300 평(가보시면 탄복합니다)
• 대웅전 자리 산신각 자리 토목공사 완료,
전기시설 완료, 200M 암반수 시설완료
• 가액 : 10억 5천 만원
011-9016-1096

종교용지, 대지, 임야 및 건물 안내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25-3 번지 종교용지 632 평방미터
525-4 번지 대지 686 평방미터
525-5 번지 임야 131 평방미터
525-7 번지 임야 457 평방미터
528-8 번지 임야 464 평방미터
• 건물 4채 60평, 15평, 30평, 5평
• 총 가액 : 7억
010-8817-8424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 초목이 가득한 암자
• 유실수, 정원수 가득, 넓은 공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년 350만원
※ 양도도 가능
010-8826-837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면소재)
• 건물 : 기와형 독채 약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개인등기 법적 보장)
• 대지: 약 100평(도지료 년 35만)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화장실
• 여건: 큰길변 남향(현대식 시설)
• 가액: 3,850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010-4725-590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찰(터)안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신공리 982-1
• 땅 320평, 옆쪽 계곡 있음
• 삼면이 소나무 울창하여 먼 앞쪽에
물이 보이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 토성 작업 완성되었습니다
• 땅까지 포장도로 되었음. 대형차 진입가능
• 정남향 좌청룡 우백호가 잘 어우려져 있습니다
• 사찰 전원 주택 팬션 적합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 가액 : 6천5백만원
010-3544-977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광주 20분거리
무안 – 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 건축물 목조
대웅전 29평, 요사채20평(방4,욕실1)
• 공양간 10평 방1, 해우소3평반 3칸
• 지하수 130미터 물수량 100톤 일급수
• CC카메라 9대시설, 사찰경내지 계곡물 흐름
잔디조경 완벽
• 사찰 진입도로 현 3m에서
2차선으로 진입 확정 • 가액 : 4억
010-9338-011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 평수 약 50평, 방2, 부엌, 욕실
• 4층 중 3층 삼존불, 소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됨(개원 8개월)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3백만원(절충가능)
본찰 업무상 관계로
010-4541-1140
051)532-114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 대지 37평, 건평 33평
• 법당 12평, 요사 30평
• 삼성각 5평
• 사유지 150여평 사용(불하가능)
• 주차 5~6대
• 가액 : 5억(절충 하양 가능)
010-9284-61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7억(대출 3억 안고 매매금액 4억)
010-5019-5385

절 터 안 내
• 최고의 명당 절터
• 대지 3000천평 내 가옥 60평 한채
•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이
살아있는곳
• 대형차 진입가능
• 가액 : 4억
011-9583-3107

사찰,치유힐링원,연수원
• 위치: 경남 합천군
• 한옥본관 80평
• 한옥 주택 32평
• 한옥화장실 6평
• 황토 초가집 3동
• 전망이좋고 조경이 잘되어있음
• 사찰,치유힐링원,연수원
• 운영에 아주 좋음
010-3521-692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571-1번지 선경복합상가 4층
• 평수 : 55평(법당, 거실, 부엌,
화장실, 엘레베이터)
• 전세 : 2000만원에
달세 8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955-4978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법정 스님 ㊤

‘묻다’ 展… 무소유의 의미 묻고 싶었다

나는 최근 직지사 중암에서 거행된 관응 큰스님 추모비 제막식에 다녀왔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께서 제막식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나를 추모비 뒤쪽으로 부르시더니 관응스님과 나와의 인연을 이야기 하셨다. 스님께서 가리키는 내용은 법정 스님이 2008년 지은 글로서 “…김호석 화백이 그린 진영(眞影)에 스님은 이런 글을 남겼다…”는 글귀였다. 법정 스님께서 김호석 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신 것을 보는 순간 스님에 대한 생각과 인연이 다시금 생각났다.

나는 대학 청년 시절 법정 스님을 만났고 스님을 통해 불교를 알아갔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방식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고상함, 존엄성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만큼 스님의 글은 문학적 감염력이 컸다. 감동을 자아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스님에 대해 세상에 전언하는 바는 많다. 그러나 나는 스님을 생각하면 차와 글이라는 측면이 먼저 떠오른다. 우선 스님은 차를 좋아하는 분으로 불교문화에 차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생들을 일깨우셨다. 다음으로 스님은 불교의 정신을 설하면서 교리보다 이미지를 통해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셨다. 계율을 지키는 승려로서 삶은 깐깐했고 깔끔했다. 스스로 청빈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기에 스님의 말은 힘이 있었고 진실했다.

그 후 스님을 본 것은 그분이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다. 길상사에서 스님의 법구가 운구 되는 모습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스님은 관이 아닌 기다란 판 위에 누운 상태에서 가사만을 덮은 채 몸의 윤곽이 그대로 돌출된 형상이셨다. 무소유를 주창하신 분이 마지막으로 세상과 인연을 정리하며 회향하는 모습에 욕심을 낼 수도 있었으나 훌훌 털어 버리는 파격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식의 장례가 역사 속에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 잔상은 오랫동안 지워지지를 않았다.

스님께서 입적하신지 1년이 지날 즈음 법정 스님 문도회로부터 연락이 왔다. 길상사 진영각에 모실 스님의 진영을 그려 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진영과 추모제에 사용할 전신상을 제작하면서 스님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의 그림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스님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법정 스님께 작품을 통해 우리사회를 구제할 메시지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나는 진영 작업과 별도로 법정 스님을 주제로 한 대규모 전시를 하고 싶었다. 그만큼 스님의 존재는 우리사회에 희망이었고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 측이 수용한 기획 초대전(전시제목은 김호석- ‘묻다’ 였다)으로 2014년 5월 1일~6월 18일까지 한 달 간 열렸다. 전시는 스님의 말씀을 예술 형식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스님의 말씀을 기초로 스님께 법을 구하고 싶은 의미와 내용을 담고자 준비 했다. 그리고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림을 그린 화가로서 소회와 목적을 밝힌 바 있다.

몇 해 전, 법정 스님의 진영 제작을 의뢰 받았다.

언제나 그렇듯 진영 제작에 앞서 먼저 스님께서 남긴 글들을 찾아 읽었다.

스님의 정제된 문학 작품은 나에게 문학이 아니라 법문이었고 화두였으며 미학이었다. 불교를 설파한 방편이었다.

그리고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은 인간과 자연을 찾아보았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떨쳐 버렸어야 할 것이
세상의 명예욕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한계나
인연의 또 다른 모습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
아니면 스님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 놓은
숙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들을 만나면서 불교의 핵심은 나 자신과 사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발고여락(拔苦與樂)이었다. 그러면서 근본토대가 자정기의(自淨其意)에 있음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초상화 제작에 앞서 먼저 대상자의 면면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과정을 경험한다.

생명의 감동과 실감을 느끼는 것, 그것은 대상자의 본 모습과 전신을 추구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법정 스님을 그리는 과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대선사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화가로서의 삶이 아닌 수행자의 검박함을 체득할 수 있었다.

수묵화로 스님을 그리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들었다.

선과 그림의 정신적 일치점은 어떤 것인가?

초월적인 무아의 세계는 무엇이며 가능할까?

대자연의 순수한 미감으로부터 초탈할 수 있을까?

화의와 선심이 하나일 수 있는가?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며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그림은 그림대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힘과 용기를 주었다.

이번에 내놓는 그림들은 이런 번민과 좌절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놓아 둔 작업 과정의 편린들이다.

나에게 수묵은 간결 명쾌한 해방이었다. 속박이 아니라 자유였다.

작업을 하면서 선과 그림의 극단적 상충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초감각적 세계를 표현하는데 감각적 극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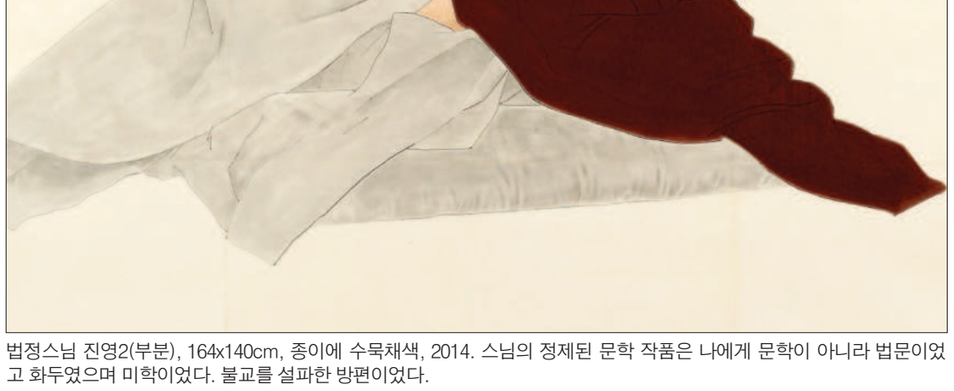
형상를 떠나 마음속의 뜻을 기리기란 쉽지 않았다.

선사의 물음에 화의로 답하는 방식이 아닌 그림으로 선사께 묻고 싶었다.

나는 그림을 통해 스님이 생각하는 무소유가 어떤 것인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면 무소유가 되는 건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스님에게서 부드러움을 찾으려 무척 애를 썼다. 그것이 스님이 마지막으로 떨쳐 버렸어야 할 세상의 명예욕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한계나 인연의 또 다른 모습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 아니면 스님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 놓은 숙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누구에게나 갈등은 있다. 그 갈등이 어떤 집단에게는 반목을 조장하기도 하지만 대척을 조화 시키면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나는 법정 스님을 그리면서 스님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보았다. 아울러 그 갈등조차 조화와 균형 그리고 힘의 순기능으로 바뀌는 선한 기운도 읽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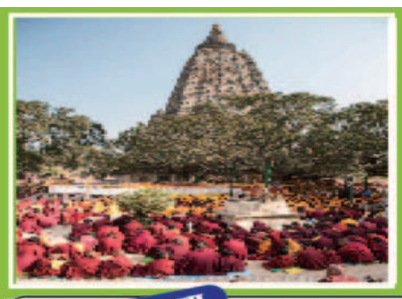
〈계속〉



법정스님 진영2(부분), 164x140cm, 종이에 수묵채색, 2014. 스님의 정제된 문학 작품은 나에게 문학이 아니라 법문이었고 화두였으며 미학이었다. 불교를 설파한 방편이었다.



헌화가(부분), 140x70cm, 종이에 수묵채색, 2012


Since 1994
마하연투어
문의처 : 02)365-7747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www.mahayeon.com

①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②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③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④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⑤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비교 필수

출발 : 인천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문의주세요
대만 “공승제”5일 출발일 9월2일 요금문의
위동 훼리 태항산 완전일주6일 ‹‹행사 가능›› 출발 매주 목,토요일 요금문의
집중모객
봉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축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5월27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구화산/[관음도량]보타산 6일 출발일 6월11일 요금문의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5일 출발일 6월17일 요금문의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6월24일 요금문의
◆ 라오스
● 라오스 6일 (베스트상품)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 라오스/베트남 7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 베트남/캄보디아
● [베트남]하롱베이 [캄보디아]씨엠립 6일
◆ 태국
●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 대만/홍콩
● 대만5일 대만3대사찰 순례
●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 미얀마
● 양곤/바고/시리암 5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7일
◆ 티벳/부탄
●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 네팔/부탄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 중국
●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항주/보타/낙가산 5일
●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북경/오대산 5일
● 백두산 5일
● 훼리 크루즈(수륙대제 가능) ▶대룡훼리,화동훼리,위동훼리
● 세계3대 트래킹명소 호도협 ▶곤명/호도협/옥룡설산 6일
◆ 인도/네팔/스리랑카
●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 인도/네팔 10일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사라바스티-아그라
● 인도/네팔 15일
●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그리스 문화탐방 9일 ▶하와이 문화탐방 6일
▶동유럽 문화탐방 8일 ▶미서부 일주탐방 9일
▶서유럽 문화탐방 8일 ▶미동부 일주탐방 9일

업보가 붙을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업보가 붙습니까?

(지난 호에 이어서)

신도회장 큰스님께서 이렇게 시카고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질의 응답 하실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한국에서는 큰스님 뵈려고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미국에서는 몇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니까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질문자1(남) 아까 큰스님께서 말씀 거의 끝마무리 무렵에서요,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업보도 지은 거 없고 원죄도 지은 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러죠. 여러분은 여기 발을 붙이고 지금 내가 산다 이러시지만 그 사는 게 지금 찰나에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막 찰나찰나 돌아갑니다. 그걸 표현할 때, 아버지가 됐을 때는 의연히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여보!" 할 때 의연히 남편 노릇을 합니다. 또 "얘, 아무개야!" 하고 부모가 부를 때는 의연히 자식 노릇을 합니다. 이렇게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위치 속에서, 그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저 찰나로 이렇게 돌아가는 판국에 거기 업보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업보가 있다 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따라서 '나는 업보로 인해서 이렇다.' 하니까 업보가 붙는 거지, 업보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데 거기 어떻게 업보가 붙습니까? 과거는 바로 현재에 짊어지고 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공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업보가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죄 붙을 자리도 없어서 모든 것에 끄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그런 데서 끄달린다면 그 차원은 3차원의 차원도 4차원의 차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업보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아시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내놔 보십시오, 거기 붙을 자리가 있나. 금방 아버지 노릇 하고 금방 남편 노릇 했는데, 방귀 뀌면 뽕 소리는 났는데 도대체 간 곳이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병 붙을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을 완전히 터득을 하시고 물리가 터지시려면 나로부터, 나부터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나부터 믿고 거기에서, 믿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마시고요. "주여, 잘해 주십시오." "부처님이여, 잘해 주십시오." 이럭하면 벌써 둘이 돼. 그러면 그 업보가 붙어!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믿음과 더불어 둘이 아니어야 되겠죠? 납득이 안 가십니까?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납득이 갈 듯한데요. 하하하.

큰스님 알쏭달쏭입니까?

질문자1(남) 왜 그런가 하면 찰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요, 찰나가 모여서 영원의 실체가 되고 찰나라는 게 누적이 돼서 영원이 되는 건데, 우리가 찰나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원죄도 붙을 수 없고 어떠한 업보도 붙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좀 더 제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항상 제 자신을 생각하고 내 삶의 실체를 항상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스님 말씀 듣고 내 자신의 삶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아리송한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솔직한 의견입니다.

큰스님 네.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내는 데서 '이것이 될까, 안될까?' '이것은 뭘 어떻게 해야 옳을까?' '이거 잘하는 걸까? 망하지나 않을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걸림이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이지, 그 마음내기 이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거기에 아무것도 붙을 데가 없습니다.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나온 것도 없어서 갈 것도 없고, 이 자리가 천당이고 이 자리가 지옥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보신다면, 자기를 잘 터득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게 환히 밝아져서 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전통신기 하면 벌써 우주 전체를 들을 수 있고 저런 꽃 한 송이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남의 속을 빤히 안다. 과거에 어디서 온 거를 안다. 가고 옴이 없이, 이 실체가 아닌 내 마음, 그 영령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그것이 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에서 벗어나야, 시스템 이 자체에서 벗어나야 그 바퀴를 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불바퀴라고 하죠.

불가에선 불바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뭐라고 하더라? 블랙홀이라나, 뭐. 난 이름도 잘 모르니 블랙홀이라던가? 하하하…. 요렇게 해야, 좀 모르는 듯하고 미련한 듯하고, 아주 몰라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너무 알면요, 웃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우리가 전부 통한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릴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거기는 수없는 영계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수없는 거를 빼내도 줄지 않는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아실 것 같으면 우리가 모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질문자2(남) 맥킨리에 사는 OOO입니다. 스님께서 한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큰스님 허허,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셈을, 숫자를 세었대요. 하나도 하나요, 둘도 하나요, 셋도 하나요, 만도 하나요, 천도 하나니 그 하나도 없느니라 이랬대요. 왜냐? '하나' 하고 '둘' 하고 세고 가니까 하나 부른 거는 벌써 둘에 가 붙어 버렸죠? 그러니 하나죠. 아무리 세어도 하나더랍니다. 하하.

질문자2(남) 큰스님께서 과거심도 말할 수 없고 또 미래심도 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찰나도 이미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스님 (법상 위의 잔을 들었다 내리심)

질문자3(남) 사보이 일리노이에서 온 OOO입니다. 늦었기 때문에 제가 법문을 못 들었어요. 근데 항상 제가 가슴속에 담고 있던 걸 한 세 가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신문을 봤을 때 참나를 찾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책을 봤을 때는 스님께선 상당히 그 육체적인 고행을 많이 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참나를 찾는 건 마음에서 찾는 건데 꼭 육체적인 고행을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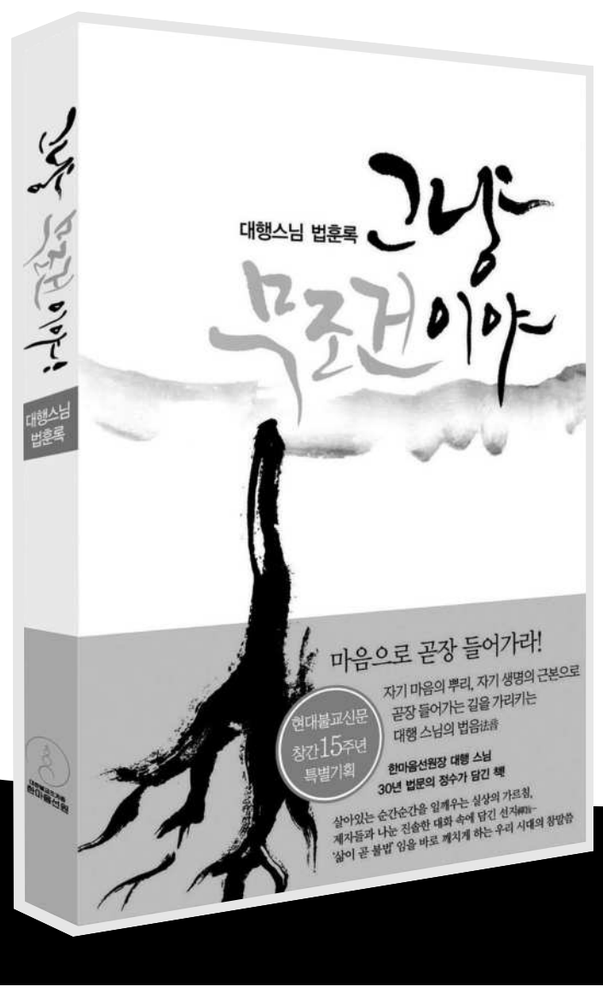
큰스님 부처님께서도 힌두교에서 몸으로 고행하는 걸 막으셨죠?

질문자3(남) 예.

큰스님 그런데 당신께서는 특별히 그렇게 몸으로 고행을 해야만 됐느냐고 지금 묻는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안 짓고 하는 겁니다!

☞ 29면에서 계속

데, 내가 그걸 고행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야, 그러면 어린 고아가 고생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럼 다가오는 걸 그거 안 삽니까? 누가 고행을 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고행을 하려고 그래서가 아닌 게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참나를 발견했을 때 그때 둘이 아닌 도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버린 채 그대로 길을, 즉 말하자면 주막도 없고 번지도 없고 그런 길을 그렇게 걸었더니 시공이 없는 초월 이 자체도 알았고 또는 끝간 데 없이 시발점과 종점도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행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하, 이 고행을 꼭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서의 수행을 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지금 있지 않아요?

질문자3(남)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은 저희들이 지금 속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삶 자체 내에서 짧게 어떻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화두를 던져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빨리 깨치는 방법은 없는지요. 하하.

큰스님 도라고 할 건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섯 가지를 다 알아도, 이 세상을, 천문학을 두루 그냥 꿰뚫어서 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가고 옴이 없이 이 우주를 한 찰나에 전부 다녀온다고 그래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남의 속을 빤히 알아도 도가 아니요, 남이 과거에 어디서 온 거를 알아도 도가 아니요. 그럼 뭐가 도냐? 거기에서도 벗어난 게 도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어려운 것은 빼 버리고도, 지금 간단히 말해 달라고 그랬죠?

질문자3(남) 예.

큰스님 허허,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참선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요, 또 이 생활하는 데 모든 용도에 따라서 닥치면 바로 그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고 '야, 나온 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잘 돌아가게끔 나올 수 있거든, 이열치열처럼.

질문자3(남) 거기서 나왔다는 건 부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큰스님 (손을 가로저으시며) 당신 마음속에서, 당신.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에 나온 게 화두야. 생명, 마음, 육체 움죽거리는 거, 이것이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공존하는데 이 배 속에 있는 것도 꼭 바로 그렇게 공존을 하거든. 그러니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맡겨 놨을 때,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한다 하고 믿었을 때, 바로 그 몸뚱이가 나온 게 화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에요, 바로. 그러니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생활에는 아주 그대로 참, 실행이 되는 거죠. 실천이 되는 거고요.

질문자3(남) 저도 옛날에 머릴 깎고 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절에 안 들어가도 제 스스로가 지금도를 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큰스님 그렇죠. 그걸 알면 좋죠. 그런데 처자식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도 버리고 먼 데 좋은 거 찾자고 가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머릴 깎느냐? (장삼 자락을 들어 보이시며) 이 의복은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다. 이 무(無)의 세계와 유(有)의 세계를 한데 합친 바로 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순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머리를 깎는 거는 이 세상, 어지러운 무상한 세상을 깎아 버리는 겁니다, 예를 따져서 말한다면. 무상한 것을 구태여 그렇게 놔둘 필요가 있나 해서 그냥 깎아 버리는 겁니다. 수효로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입산을 하고 그러느냐. 여러분보다 우리가 위대하죠. 왜 위대하냐? 높고 낮음은 없지만 높은 건 높고 얕은 건 얕죠. 평등하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죠. 그런 관계상 우리가 가정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탁 이렇게 나와서 입산한 것만 해도 여러분보다 90%가 위죠. 또 하나, 둘째로는 모르는 중생들이 벌써 이 옷을 입고 머리 깎은 사람을 보고 "스님! 날 좀 구원해 주시오." 하지 아니, 공부를 했다고 그래도 옷도 입지 않고 머리도 안 깎은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오' 한다면, 공부 못 한 사람들도 그걸 볼 줄 알면 그럼 다 꿴 사람이게요? 꿰게요? 자기네들하고 똑같은데 거기 가서 날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중생을 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체를 구하려면, 법을 구하고 또는 이 세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보이는 데 방편으로서 이렇게 깎아야 되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깎아야 되고, 나중엔 알아 가지고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기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 되기가 얼마나 어렵고 점점 갈수록 어려운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몸뚱이가 화두요, 자기 몸뚱이가 움죽거리는 게 바로 자기의 보현이요, 자기가 생각 내는 게 법신이요, 자기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부처라는 겁니다.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연히 죄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움직이면서 죄를 낳지 않고 속세에서 살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큰스님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안 짓고 하는 겁니다.

질문자3(남)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한텐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큰스님 하이고 참! 여러분, 그러면 여기 오실 때 지금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 병 불을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을
> 완전히 터득을 하시고
> 물리가 터지시려면 나로부터,
> 나부터 발견하십시오.

질문자3(남) 차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하하….

큰스님 에이그, 차는 여러분의 몸과 같고, 운전수는 여러분의 마음과 같고, 기름은 여러분이 나기 이전 원, 즉 말하자면 주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다니는 사람은 불성이요, 기름이. 불성으로 치면 됩니다. 탁 붙이면 불이 번쩍 일어나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차와 운전수와 기름이 그렇게 배합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게 화두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화두라고 알면 그냥 우리 살림살이가 참선이고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나는 조용하게 좀 앉아 있고 싶다 그러면 앉아 있는 거고, 내가 서서 좀 명상하고 싶다 그러면 명상하고, 졸린다 하면 자고, 똥 누고 싶다 하면 똥 누고 아, 그런 게 그대로 여여하고 그게 삶이요 그게 참선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자3(남) 네, 그런 삶의 자세라는 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큰스님 아이고 참!

질문자3(남)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면 물론 종교적인 방법에서는 어쩌면 옳은 일일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자기 몸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생각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건 이 사회의 흐름에 어긋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생각할 때는 동물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미국처럼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나간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볼 땐 이 사회생활 자체 내에서 오히려 배제당할 그런 가능성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큰스님 그럼 내가 한마디 해 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자3(남)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것이 곧 좌선이고 그것이 곧 도를 아는 길인데 과연 저희들이 그런 사고방식의 태도를 갖고 이 사회에서 살아나갔을 때 어떤 이질감을 갖지 않을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맞춰서 살려면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구조를 알고 그 구조에 맞춰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에 사는 구조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우리들의 사고방식대로만 살아나간다는 그런 그 생각이….

큰스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조 구조' 하는데, 생명도 같고 움죽거리는 것도 같고 삶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림살이가 좀 달라서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건 다릅니다, 다. 주마다 또 다르듯이. 그러나 다르면 다른 대로 응용하고 지금 움죽거리는 게 그대로 지금 참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나쁜 거 좋은 거를 다 알고 지금 삽니다. 그걸 모르고 살지 않으시죠?

질문자3(남) 네.

큰스님 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다면 무슨 생각이 나더라도,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 나더라도 그거를 잘못됐다고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몸뚱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죽거립니다. 마음이 움죽거리면 바로 몸뚱이가 움죽거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그 마음 내는 거와 몸뚱이가 움죽거리는 게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닌데다가 자기가 그르고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도 있고 사랑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쁜 데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이끌어지는 게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바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자기를 바로 부(父)가 되게 만들고 자(子)가 되게 만들고, 어떠한 거든지 자유자재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저희들이 배워 온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위에서 만들어 온 구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 실질상으로 자기가 참나를 찾았을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옳고 그름에 대한 거하고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큰스님 예. 이 참선에는 그르다 옳다 이거를 다 떠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죠. 배가 지금 고파서 죽겠는데 내가 이 밥을 먹어야 하느냐 안 먹어야 하느냐, 이건 떠나야죠? 그냥 먹죠?

사명 대사가 말입니다, 새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손에 쥐고 와서 서산 대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새를 내가 놔 주겠습니까, 안 놔 주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무 소리 않고 일어나서 문지방을 터억 걸터 짚고 서서 "내가 일로 나가겠느냐, 들어오겠느냐?" 이러더랍니다. 그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든 들어오든 자기가 결정짓기에 달리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마음으로 요다음에 또다시 만나기를 빌면서 그럼….

※위 법문은 1991년 3월 31일 시카고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액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게엘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불자 세상보기

방산비리, 국가 안보 훼손의 진짜 주범



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

요즘 한국의 군대는 무엇인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연일 보도되는 기사들은 정말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부정과 비리로 지면이 덥혀지고, 그 내용 또한 충격적이다. 젊음과 인생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물새는 관사와 척박한 오지에서 수준이 하의 삶을 살고 있노라는 푸념을 매일같이 들으며 그들에게 최소한의 대가조차도 주고 있지 못하다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죄의식을 느끼던 터이라서 과연 우리 군의 지휘관들이 설마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지 의심케 한다.

공군에서는 하늘을 지켜야할 비행기의 수리를 했다면서 업체와 결탁해 하지도 않은 정비 비용으로 국민세금 수백억원을 받아 착복한 사람들이 붙들렸고, 해군에서는 수십년 전에 만들어져 이제는 생산국의 해군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구식 음파탐지장치를 20배나 넘게 주고 구매해 국고를 탕진했다. 쓸모없는 물건을 거간한 미국 현지 업체의 사장은 초호화주택을 사들이는 등 축재했고, 그 축재금은 부정에 가담했거나 지시한 사람들도 함께 나누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적 잠수함의 탐지수단으로 해군의 목숨과도 같은 대잠수함탐지용 헬리콥터도 정비 불량과 짝퉁부속품을 사용하다 추락해 금쪽같은 생명과 전력손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미 알려진 통영함도 그렇지만 해군이 새로 건조해 진수한 기뢰전함들 역시 짝퉁부품과 ROC에 미달하는 탐지장치들이 같은 미국업체에 의해 거간돼 우리 군선에 부착되어 그 효용성이 없다고 일선에서 난리다.

상황이 이러하니 보도되는 심각한 사태들을 바라보며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명예와 충성을 목숨처럼 여긴다는 사관학교출신 고위 장교들이 관련된 부정이고 비리이니 더 걱정스럽다. 지금껏 우리 군에 무기를 거간해온 업체 사장의 비밀 사무실이 발견되고, 급기야는 군사기밀서류들이 가득 찬 컨테이너까지 찾아냈다니 할 말을 잊게 된다. 이러한 방산비리는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폭력 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안보와 국방의 직접적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년전 서해북방에서 들려온 참담한 비보에 온 나라가 침통에 빠진 일이 있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의 민가에 대한 포격소식이 그것이다.

100명 가까운 장병이 승선한 우리 군선이 우리 해역에서 침몰했고,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피격이 침몰 원인이라고 했다. 온 나라가 그 진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발칵 뒤집혔다.

조류속도가 5노트에 달하는 급한 물살이 흐르는 바다 속에 잠수한채 시동을 끄고 배터리작동만으로 동력을 받아 균형을 유지하며 매복해 있다가 우리 군선이 지나는 것을 탐지하고 어뢰를 쏘아 정확히 측면을 강타해 버블젯을 일으켜 반동강을 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해군이 밝힌 그 진실이라는 것과,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비록 논란이 있었지만 천안함 폭침사건은 오늘날 보도되는 우리 군의 황당하고 해괴한 부정부패비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파도가 조금만 몰아쳐도 균형을 유지못해 정확한 포탄발사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구식 배와, 현대적 의미의 전력으로서 보자면 가치가 전무할 지경이어서 움직이는 관이라 조롱 받는 구식잠수정으로 무장한 북한의 목선함대들에 조차도 이리 무참하게 두들겨 맞고 침몰하여 누구한테 무엇에 맞아 죽는지도 모르고 수장당한 장병들과 그 부모들, 비보를 접한 시민들의 자괴감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우리 군대가 유사시 제 역할을 반이라도 해낼지 의문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군과 공군의 비리와 전비태세가 이럴진데, 군의 절대적 다수를 점한 채 인사와 보직을 거의 독점하디시피 하고 있어 육방부로까지 불리우는 우리 군을 장악한 육군의 현실은 어떨지 꼭 뚜껑을 열어야만 실체를 볼 수 있을까.

수백년전 임진왜란을 당한 조선의 국방태세가 이러했고, 패망직전의 월남군대가 그러했다. 우리 군이 지금과 같은 상태를 지속한다면 결코 오래지 않은 미래에 만주와 연해주, 하와이로 망명해 또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선지식의 산실 '산중불교'를 회복하자



배금란
서울대 종교학 박사과정

오늘날은 자기 개선과 여가 활용의 차원에서 '문화'를 구매하는 시대이다. '종교' 역시 여러 가지 문화적 선택 옵션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각 종교는 전교의 차원에서 현대인들의 '종교적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해졌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 근무환경의 변화로 현대인들의 여가문화 및 활용의 패턴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명소나 유적지를 단순히 둘러보는 주유형 패턴에서 일정 장소에 체재하여 직접적인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흐름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옥 스테이, 농촌 체험, 어촌 체험 등 체험관광 상품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이를 증명한다.

오랜 역사 속에 축적되어온 한국불교의 신행과 수행문화 역시 소비문화의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상품화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템플스테이이다. 불자, 비불자를 떠나 타 종교인들까지 포괄하는 개방적 프로그램으로서 템플스테이는 예불, 참선, 108배 등 불교수행 문화를 기본 체험의 내용으로 하면서 현대인들의 문화적 기호와 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테마로 운영되고 있다. 자연체험 프로그램,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 참가자의 입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다양하다.

템플스테이의 확산과 함께 근래에 활성화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단기출가이다. 단기출가는 승려가 되기 위해 예비 수행자들이 거쳐야 할 사전 수련과정을 일반인들이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체험 콘텐츠들은 현재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산사로 불러들이면서 새로운 불교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여건이 허락되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가문화로 또는 종교문화상품으로 기능하면서 포교의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현재 사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 콘텐츠들은 전법의 차원에서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산중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의 여지가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출가한 수행자들의 본거지가 일반 대중들에게 거리낌 없어 노출되면서 승속의 구분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고택 속에 면면히 이어지는 수행의 기풍과 용맹정진에 몰두하는 수행자들의 존재는 한국불교가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이었다. 그런데 당장의 가시적인 호황에 눈이 어두워 무분별하게 대중들을 끌어들이다 보면 산사의 고유성과 청정성 그리고 수행의 기풍을 훼손할 수 있다. 또 상업화된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변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산사는 일반 대중들의 여가 공간으로 혹은 문화체험의 장소로 세속화되어가는 측면도 없지 않다.

종교가 종교의 아우라를 지니지 못하면 존립 근거를 박탈당하게 된다. 종교는 '종교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오히려 내적인 차원에서 산중불교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는지도 모른다. 진정한 선지식의 산실로서 사찰의 본령과 올바른 승려상을 강조했던 용성 스님의 인식은 오늘날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한국불교의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산사가 대중들에게 진정으로 전해주어야 할 한국불교의 '법(Dharma)'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체험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도 이러한 성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종교상품으로서의 생명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불교평론 61호에 수록된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통해 발췌 · 정리했습니다.

社說

세계평화기원대회 빈틈없는 준비를

전세계 고승들이 모여 한반도와 지구촌 평화를 기원하는 대규모 법석이 마련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평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 (위원장 지현)는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조계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이하 기원대회)' 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주요 참석 인원을 발표했다.

주요 행사인 광화문광장에서의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부터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 행진,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무차대재 세계종교지도자 현충원 참배까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남북 · 동북아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 회의에서 발표되는 종교인평화선언도 주목할만하다.

간화선 무차대회에서는 총 2500여 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입정에 드는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평화법문과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이미 캄보디아 승왕 텝봉 스님을 비롯해 프랑스 담마라타 유네스코 불교협회 책임자, 인도 롭장 아쇼카미션 회장, 수담모 호주불교연합회장, 방글라데시 우파냐조타 골드사원 원장, 프라냐난다 그린하트 승가대 총장, 네팔 노르부 타망사원 회장 등은 대회 참석을 확정지었다. 봉행위원회는 300여 명의 세계 고승들을 초청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제 봉행위원회는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한국불교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보여줄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조계종 교구본사와 범종단적인 협조와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행사이면서도 한국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보듬을 수 있는 행사로도 채워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남북불교 상호교류 활성화 기대

조계종을 비롯해 천태종, 진각종 등 한국불교 대표적 종단 수장들이 중국 심양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만남을 갖고 남북불교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말 1주일 동안 2~3일 간격으로 회동을 가진 셈이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회동에 특히 무게를 싣는 것도 종단 종무행정 수반들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만났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요 실무진들끼리만 회동 한 것에 견주어 보면 혹시 무슨 중대 결정 사안이 있어서일까 의구심이 들 정도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봐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해이다. 광복 70주년과 6 · 15공동선언 15주년이 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볼때 남북 불교인들이 지혜로운 원력과 화합의 실천을 위해 상호교류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을 모으고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만남서도 주요 종단 수장들은 범종단적 차원으로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금강산이나 개성서 갖기로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실무적인 문제들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6 · 15 남북동시법회(서울과 평양)를 갖는 방안도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한 것 같다. 각 종단마다 서로 대북관계 사업의 방향과 종류가 약간씩 달라 제의한 것은 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맥락은 한 가지다. 남북불교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민족의 전통문화 계승자로서 불교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아직도 경색 상태다. 좀처럼 좋아지기 힘든 눈치다. 우리 불교계라도 먼저 앞장서서 남북간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팔을 걷어 부치자. 그것이 종교가 해야할 본연의 일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명 / 규격(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촛대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붇다

위드붇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붇다를 검색하세요.

히말라야 고요왕국
지구상의 마지막 샹그릴라,
사자의 서 파드마 삼바바 수행처인 탁상사원
행복지수 1위!
부탄 순례
출발일 5월28일/6월19일/7월24일/8월31일
※6인 이상 매일 출발가능!!

순례가 시작되는곳
아제여행사
AJE
☎ 02)730-4008
{구광국대표 010-3048-4008 / 구경모이사 010-2747-0908}
www.ajetour.co.kr
SINCE1999

出 : 4월14일 5/19, 6/22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 아미산, 낙산대불
出 :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테를지
出 : 9월3일 대만 공승제 5일
중태선사,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남방불교의 보고
& 인도양의 보석
아유보안 스리랑카
출발일 4월29일

하늘과 맞닿는 땅 티벳
수미산 · 구게왕국 탐방16일
출발일 5월29일

동티벳
야칭스, 오명불학원, 인경원
3대 사원
출발일 5월27일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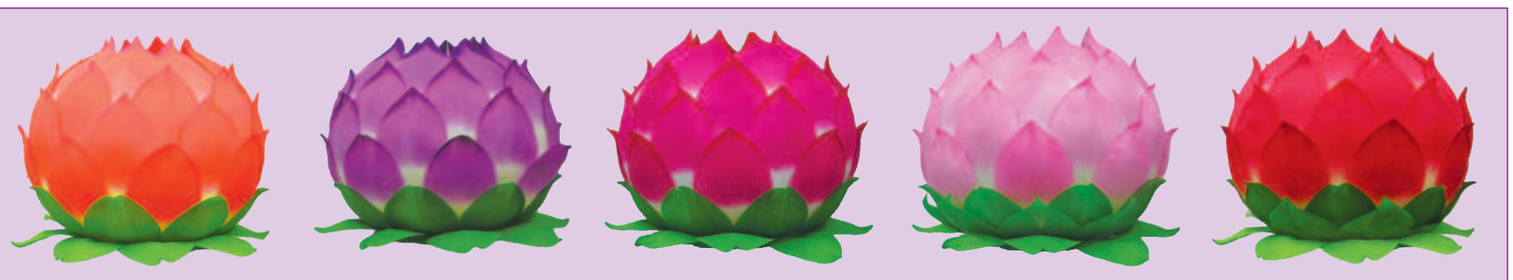


방수연등전선 전문 KS정품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Made in Korea -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 2줄 이상일때 한줄당 가격입니다.
• 22cm, 23cm, 25cm (50구) @65,000 (2줄이상)
• 30cm (50구) @65,000 (2줄이상)
• 35cm (50구) @70,000 (2줄이상)
• 40cm (50구) @73,000 (2줄이상)
• 50cm (50구) @75,000 (2줄이상)
• 1m (50구) @90,000 (2줄이상)
• 2m (25구) @80,000 (2줄이상)



바림등(6cm) @2,500원(60개이상)
바림등(8cm) @3,000원(30개이상)

＊국산LED전구 (50개)
＊ @90,000 〈개당 1,800원





• 화엄등(6cm)@ 3,200원 (60개이상)
• 화엄등(7cm)@ 3,500원 (50개이상)
• 화엄등(8cm) @4,000원 (30개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